

행정간행물
25090-33246-44-96014

공군

AIR FORCE QUARTERLY
1996년 겨울호(통권 제237호)



공군본부

공군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글 차례

● 권 두 화 보	_____	4
● 권 두 언	희망찬 새해의 다짐/정훈공보실장 대령 서홍교	10
● 보 라 매 칼 럼	콜롬부스의 달걀/대령 윤성기	12
● '97년 새해에는	정축년을 맞이하며/소령 조병수	14
	한해를 맞는 마음가짐/중위 임재하	16
	새해를 맞는 우리의 다짐/준위 강상률	18
	춘면불각효(春眠不覺曉)/병장 임욱빈	20
	양심껏 최선을 다하는 새해/5급 최태남	22
● 시 사 안 보	한총련 밀입북 대학생 체북활동 실태/공군 기무부대	24
	최근 북한의 정세와 변화전망/정치학박사 김강녕	33
● 공 군 논 단	군 교리 발전에 관한 제언/대령 구분담	40
	방공포병인 양성을 위해/중령 권오극	44
	비행단 근거리 전산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소령 정상수	54
● 생 활 정 보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하여/대위 박종원	62
	겨울철 안전운전 및 차량관리 요령/원사 유희철	67
● 화 보	_____	73
● 서 울 에 어 쇼	서울 하늘의 화려한 곡예비행/소위 현수철	81
참 관 기	창공의 향연/소위 홍성일	83
	미래를 향한 도전/상병 박중상	85

글 차례

● 호 국 문 예	되었다! 통일!/김성주	88
● 작 품 들	할아버지의 꿈/장예지	90
	북한의 친구들에게/백인주	92
	어머니의 지구본/김병운	94
● 취 미 생 활	인터넷을 배우자/하사 박성혁	96
	아마추어 무선이란?!/병장 정수범	102
● 만 화	1996년의 기억들/고석현	106
● 독 후 감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를 읽고서/중령 김광희	114
	"삼국지"를 읽어 보셨나요/상병 김기표	117
● 공 군 문 단		121
- 과학칼럼 -	열역학 제2법칙의 관점에서 본 삶의 양과 질	/중령 이기영 - 122
- 시 -	해바라기의 꿈/대위 김성민	127
	통일의 그날 위해/하사 김길수	128
- 수 필 -	장경각(藏經閣)에 핀 연꽃/수필가 최종호	130
	다시 이별의 순간에 생각하는 삶의 의미	/중위 윤재홍 - 133
- 소 설 -	땀을 내린 은하수/대위 이상규	135
- 공 트 -	하이힐(High Hill)/준위 전호명	141
● 병 사 들 의	꿈을 갖는 이들에게/병장 홍대위	143
이 야 기	생각을 바꾸고 사랑을 나누며/상병 서영호	146
	주어지는 일보다는 찾아서 하는 일/병장 김도현	149
● 글을기다립니다.		152

참 · 모 · 총 · 장 · 동 · 정



▲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96-3차 전술기/'96-4차 지원기 고등비행교육 수료식」에 참석하였다. 공군 지휘관·참모와 부대장병 및 수료 조종학생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료식에서, 모두 41명의 조종장학생들이 영예로운 조종훈장과 빨간 마후라를 수여받고 영광스러운 조종사로 새롭게 태어났다.(10.15.)



▲ 공군분부를 방문한 러시아 공군 총사령관 데이네킨 대장을 접견하고, 상호협조와 군사 협력 증진방안 등 한국과 러시아 양국 공군간의 공동 관심사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10.24.)

참 · 모 · 총 · 장 · 동 · 정



- ▲ 공군의 최고 지휘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군대학 지휘참모대학(CSC)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졸업한 학생장교들은 지난 1년간 제대별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군력 건설·유지·운영 능력 등을 습득해, 장차 비행대대장급 지휘관 및 참모로서의 군사 전문지식과 자질을 함양해 왔다.(12.6)



- ▲ 공군 각급 지휘관 및 공군본부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 전지휘관 회의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 공군의 활동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최고의 대비태세를 강구하였으며, 공군의 새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다짐했다.(12.13.)

서울 에어쇼 '96

21세기 항공우주 선진국 진입과 방위산업 육성, 기술교류 및 협력의 장이 될 역사적인 「서울 에어쇼 '96」이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에서 개최되었다.

공군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의 총관람객 수는 45만여명에 이르렀으며, 행사 기간중 출입한 내외신 기자 900여명 중 외신기자가 총 63개 매체 160여명에 달했고 외국인 관람객도 상당수 출입하여 이번 에어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행사의 성과중 하나는 실내외 전시와 시범 및 곡예비행 등의 각종 볼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일반 대중의 관심권 밖에 있었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과 미래 공군력 건설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관·군이 협력하여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리에 치르어 군의 행정 역량을 제고시켰으며, 국민과 군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 친근감 있는 군인상을 정립하였다.

한편 2년마다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한다는 기본계획 아래 다음 대회인 「서울 에어쇼 '98」은 '98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열릴 예정이다.



SEOUL AIR SHOW '96



◀ 화려한 개막식



◀ 에어쇼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이광혁 공군 참모총장



◀ 제7회 국제 항공 우주 심포지움

서울 에어쇼 '96



▲ 프랑스의 라팔기



▲ 러시아의 SU-37 플랭커기



▲ 호주 스카이 블레이저스팀



▲ 미국 시에라 에이스팀



▲ 한국 공군 블랙이글의 편대비행



▲ 실내 전시장 내의 공군 전시관



▲ 한국-러시아 공군 우정비행

공군

AIR FORCE QUARTERLY

1996년 겨울호(통권 제237호)



參謀總長 指揮方針

最高의 戰備態勢
科學的 教育訓練
總和的 安全管理
斬新한 空軍文化

공군본부

희망찬 새해의 다짐

해마다 연말이 되고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면서, 지나온 일을 되돌아 보며 반추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기회이다. 각 언론기관에서도 국내, 국외로 나누어 10대 뉴스를 뽑아 놓고 나름대로 지난해가 어떠했는지 평가를 내린다.

1996년은 공군에게 있어서도 완벽한 영공방위의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해로 기억된다. 13년만에 복귀 미그기 귀순에 따른 5·23 작전의 성공적 임무수행과 가을 하늘을 수놓은 『서울 에어쇼 '96』에 연일 수많은 관람객들과 취재열기로 가득한 서울공항에서 공군의 위상은 어느 때보다 더 높았다.

사관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생도를 뽑아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여성 전투조종사의 탄생을 보게 되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KF-16 최정예 전투비행단의 창설로 수도권 및 서북부 지역의 완벽한 영공수호 등 크고 작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많은 장병들이 쏟은 땀의 결과이며,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해 온 우리 모두의 노고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제 새해가 밝아 온다. 새해 새 아침에는 모두 새로운 다짐을 한다. 자기 자신이나 가정을



徐 弘 毅
대령/정훈공보실장

위해서, 크게는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나라가 더욱 튼튼해지길 바란다. 정축년(丁丑年) 새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져 본다.

우리에게는 꼭 해내야 할 큰 일 하나가 있다. 아직도 둘로 갈라진 채 서로 맞서고 있는 우리 땅, 우리 겨레를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이다. 하나였던 것이 둘로 갈라졌으니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일인데, 언제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할 수는 없다.

북녘에서 사는 우리 겨레가 하루 두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을 눈여겨 보면서, 쌀밥에 고깃국과 비단옷에 기와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북한 공산집단의 말에 속으면서 살아온 불쌍한 그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로 통일이 되길 기원한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마냥 부풀어 온다. 장병 모두가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각오를 굳게 다짐하고 계획을 보다 알차고 충실하게 설계함으로써, 완벽한 영공방위를 빈틈없이 지키고 나가는 것이 우리 공군이 해야 할 당면과제이며, 국가 발전과 더불어 세계 일류의 정예 공군을 건설하는 초석이 될 것임을 다짐하자.

콜럼부스의 달걀

윤 성 기

대령/제17전투비행단 비행전대장



역사적인 대사건이나 발명, 발견의 단초는 얼핏 보기에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구대륙에 한정되어 있던 세계사가 전 지구로 확산되고,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과 제국주의 시대의 개화를 가능하게 했던 신대륙의 발견도 콜럼부스의 기지가 아니었으면, 훨씬 나중이야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콜럼부스는 신대륙 탐험에 필요한 재정적 후원과 옹호세력을 얻으려고 스페인의 여왕을 찾았지만,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까지 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네모반듯한 모습으로, 세상의 처음과 끝이 존재하고 세상 끝에 이르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믿음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신대륙 탐험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때문에 여왕이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콜럼부스는 달걀을 세워 보임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사람들은 당연히 날 달걀을 세우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콜럼부스는 이러한 장담을 보란 듯이 잠재워 버렸다. 바로 달걀의 밑부분을 깨뜨리고 세움으로써…….

“콜럼부스의 달걀”로 알려진 이 유명한 일화로 여왕과 사람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콜럼부스는 스페인 여왕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신세계를 향한 탐험을 시작하여 신대륙을 발견하는 업적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콜럼부스의 이야기로부터 몇 가지 배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먼저 ‘시각 전환’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달걀을 세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온전한 상태로 세우는 것만 생각했지, 달걀에 변화를 준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콜럼부스는 바로 이러한 전제를 깨뜨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실제로 콜럼부스가 낸 문제는 달걀이 온전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던 것이다.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수많은 경험이

만들어낸 일정한 순서와 법칙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법칙은 동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일상화된 법칙과 사고의 틀은 고정관념으로 변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어느새 고정관념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것,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을 요구한다. 즉,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기', '뒤집어 보기'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콜럼부스는 달걀을 깨뜨림으로써 고정관념을 깨뜨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또다른 무엇이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고, '시각 전환'의 필요성을 웅변한 것이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진취성'이다.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는 뜻을 어느 정도 담고는 있지만, 새로운 것이 진취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내해"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도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슬람인들과 싸워 이길 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 콜럼부스는 바깥세상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길을 찾아 대서양 너머로 나갈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의 한정된 지식 때문에 지구의 지름을 훨씬 작게 계산하여 인도로 가는 길이 얼마 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출발했고, 죽을 때까지 신대륙을 인도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그의 '진취성'을 평가하지는 못한다.

끝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과감성'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달걀을 세울지 고민만 하고 있을 때 콜럼부스는 과감히 껍질을 깨뜨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비슷한 일화로 고대에 대제국을 건설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있다. 알렉산더가 프리기아 지방을 방문했다가 고르디우스라는 왕이 만들어 놓았다는 매듭을 보게 되었다.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은 대제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알렉산더는 그때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던 이 매듭을 칼로 내리침으로써 글자 그대로 '한칼'에 해결해 버렸다.

결국 알렉산더는 고르디우스 왕의 예언대로 지중해 유역은 물론 인도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이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매듭의 전설보다 오히려 알렉산더의 과감성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만들었던 것도 과감성의 결과이다. 수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의 항해술과 장비로 볼 때, 신대륙을 찾아낼 가능성은 최신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우주선이 외계의 생명체를 찾아내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고 한다.

요즈음 어느 회사 광고에서는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세움으로써 '콜롬부스이 달걀'이 오히려 고정관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깨뜨리지 않고 달걀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콜럼부스의 달걀"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시각의 전환', '진취성', '과감성'은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고여있는 물은 쉽게 썩어 버리듯이 변화와 이를 통한 발전의 과정은 계속되어야만 하고, 우리 공군 가족 역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찾아 험난한 모험의 길을 떠났듯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선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ND**

정축년(丁丑年)을 맞이하며

음력년(1丑年)을 맞이하며

조 병 수

소령/제1전투비행단 115대대



다사다난했던 쥐의 해인 병자(丙子)년이 가고 소의 해인 정축(丁丑)년 새해가 밝아 왔다. 문민 정부의 마지막 정치적인 국민의 심판을 받은 병자(丙子)년이며, 5공화국과 6공화국의 주역들이 국민들 앞에서 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은 해였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과 특히 잠수함 침투에 따른 무장공비 소탕작전의 장기화 및 성공적 임무 수행으로, 일부 희생된 군인들의 숭고한 정신과 함께 침체되었던 군 사기가 고조되었으며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정축년은 소의 해인 만큼 소처럼 묵묵히 일하며 국민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일꾼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하는 해이며, 제복을 입은 우리는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 안보 및 국토방위에 더욱 더 정진을 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인 만불 소득을 달성하였고 경제화·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산업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학의 총화인 첨단 병기 항공기를 운용하는 전투기 조종사로서 조국 영

공 수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전력의 요체 및 관리자로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첫째,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세계 유일의 남북이 분단되어, 공산주의 국가인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국가 안보 현실은 굉장히 위험 수위에 있다. 북괴의 잠수함 침투 및 무장공비 침투 사건, 백배천배 보복하겠다는 '정전위'에서의 북괴 고위 간부의 발언 등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남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세계 각국인 UN을 통한 수재로 인한 식량 지원 요구, 우리 대한민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경수로 협상등 북괴의 실리를 취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인 항공력을 운용하고 있는 전투 조종사 및 공군 요원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60분 비행을 위해 자신의 육체적·정신적인 정성과 노력으로 200%의 비행준비를 하여, 60분 비행을 하였을 때 100%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이러한 습관과 비행 경력이 누적되어 결국은

최대의 전투력을 구사할 수 있는 전투조종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정신적·육체적 성숙된 인간으로서 좀 더 원대하고 큰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공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독려하여 시행함으로써, 정신적·영적 성숙을 통한 인간 본연의 순수성 개발과 적과의 전쟁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을 갖는 사기 충전한 강한 군대, 강한 전투 조종사가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개인의 능력 향상이다.

현재 우리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이 모태에서 태어나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하여야 하며, 친구를 알고 그들과 우정도 키우며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는 자기 영역 확대 및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경쟁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투 조종사들도 항공 무기 체계의 발달로 인한 개인의 노력 및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고가의 무기체계인 항공기를 다루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 개발, 그리고 실제 비행에 적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기 혁신(S.R)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고의 군사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전투 조종사 및 지·덕·용을 갖춘 지휘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셋째, 미래 전장에 대비하는 자세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전쟁의 주역, 핵심 전력인 항공력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공군의 요원으로서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투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는 제115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으로서 교육 훈련의 중요성을 평시 양병 최우선의 정책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 지식 및 기반을 구축하는데 교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병자년은 서울 국제 에어 쇼 등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널리 알린 한해였다. 그리고 21세기를 몇년 앞둔 현시점에서 분단된 국가에서의 공군력 건설이 아닌 통일 한국 이후의 우리 공군력 건설 및 공군의 위상 정립과 군사 대국인 대 주변국(중국, 러시아) 및 군사 강국으로 커 가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력 및 억제력 비교 측면에서, 우리 공군력의 건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에 걸맞은 항공력을 구비하고 건설할 수 있게 노력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1997년을 맞이하여 제복을 입은 우리는 국가 안보와 평화를 위해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는 것이 충성하는 길이며, 보다 나은 빨간 마후라 전투조종사로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공군·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최정예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나의 정성과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것이 기초가 될 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노력할 때 우리 공군의 지표인 세계 일류 정예 공군 건설이 달성되리라고 본다. **동근**

한해를 맞는 마음가짐

임 재 하

중위/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헤어진다는 것은 또다른 만남의 전주곡이다. 특히 시간에 있어서는 이러한 말이 꼭 들어 맞는다. 계속해서 과거를 보내고 미래를 맞이하여 오늘을 이룬다. 이러한 연속선에서 과거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미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과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한해를 보내며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해에 대한 설렘이 더 큰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 행복한 자일 것이다. 하루하루를 큰 탈없이 보내는 것에만 만족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해는 단순히 나이를 한살 더 먹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점점 나이를 먹어 갈수록 새해를 맞는 기대감 보다는 또 한해가 가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커지는 것은, 올 한해도 열심히 살지 못했다는 후회 때문이라 생각된다.

어느덧 군생활을 시작한지도 2년이 흘러간다. 몇 십년동안 군에 몸담고 계신 분들앞에서 2년의 짧은 생활을 논한다는 것은 감히 펜을 들기조

차도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긴 인생가운데 3년의 복무기간은 단 한번 경험 할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고 보면 그 분들과는 또 다른 특별한 느낌을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더구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인생의 마지막 꽃다운 청춘을 이곳 계룡대에서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것들을 남겼느냐에 앞서 그 자체만으로 뜻깊은 일일 것이다.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지난 2년동안의 군생활을 되돌아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아온 것 같다. 그렇게 된 것은 군대라는 낯선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생각도 들지만 무엇보다 의무복무라는 속성 때문인 것 같다.

이제 3년의 복무기간중 2년을 보내고 마지막 남은 군생활 1년은 보다 새로운 각오로 맞이하고 싶은 것이 지금의 바램이다. '3년이란 기간은 긴 것 같으나 지내고 보면 정말로 짧다.'는 선배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들처럼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으리라 결심하며 군생활을 시작했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2년의 기간도 무척이나 빨리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그동안 이것을 성취했다고 말할만한 그 무엇도 없다. 뭔가 해야겠다는 막연한 강박감과 초조함에 쫓기며 보내왔다.

그러나 이제 되돌아 보면 군생활중 또다른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큰 착각이었으며 사치였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생각속에는 "군생활은 나의 인생에 있어 과외적이고 부수적인 기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군생활도 엄연히 인생에 있어 거쳐야 할 한 과정이라고 볼 때, 그 기간 중에 또 다른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초조함은 어쩌면 사치스러운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병들 뿐만 아니라 단기장교들 대부분은 군대라는 곳이 계속 몸담을 곳이 아니며 얼마간 있다가 떠날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나는 이 기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방관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내 자신의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을 당분간만 해준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

이러한 생각으로 보낸 3년이라는 기간은 결국 무의미하고 낭비적이며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게 흘러가 버리고 말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고방식은 하루하루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인지도 모른다.

사관후보생 시절, "졸병같은 장교"가 되지말

라 당부하신 분이 계셨다. "졸병과 장교의 차이는 계급의 차이가 아니다. 졸병은 시키는 일만 한다.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교는 다르다.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는 것이 장교다. 일단 장교를 선택하였으면 당당하게 장교로서 살아라." 이말을 군생활의 좌우명으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임관했었는데, 이제 되돌아보면서 과연 그동안의 군생활이 올바른 모습이었던가 자문해 본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97년, 정축년은 나에게 있어 군생활의 마지막 해라 할 수 있다. 과연 이 한해를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무엇이 남은 한해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는 벌써 떠날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이곳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자세로 이 한해를 보낸다면, 결국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었다라는 한숨으로 군생활을 끝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짐을 갖는다면 결국 사회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로 방관자로서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군생활이기에 마지막을 한해 만큼은 올바른 주인의 자세로 살아야겠다. 이곳에 몸담고 있는 동안 만큼이라도 공군이 나의 삶터이며, 이곳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해를 보내리라 다짐한다. **등은**

새해를 맞는 우리의 다짐

강 상 름

준위/제16전투비행단 아전정비대대



성취와 아쉬움이 남아있는 병자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정축년을 맞이했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지난해 못 다 이룬 숙한 과제들을 신년에는 기필코 이루어 내겠다는 굳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한번씩은 다져지는 새해아침이다.

지난해 후반기 우리의 안보상황에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강릉앞바다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채, 아직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들의 위장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해를 보내는 마음은, 국방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으로서 조금도 긴장이 풀릴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새해에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책동이 가져올 한반도 긴장상태에서 벗어나, 안정과 평화가 보장되고 국민경제가 활성화되며 국운이 날로 비약하여, 우리의 선진조국이 나아가야 할 희망찬 2000년대를 위해,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찬 한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동서냉전이 종식된 이후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토를 요새화하여 무력혁명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북한은 민족분단의 아픔을 외면한 채 상투적 위장전술로 대남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얼마전 사정거리 1천Km의 노동 1·2호 차량탑재 이동식 미사일을 동해 앞바다에서 시험 발사하려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속도전을 위주로 하는 우리의 막강한 공군력과 그동안 현 전선에서 피와 땀으로 축적한 강인한 정신력으로 싸우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오늘'의 문제이며, '내일'의 문제는 적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필승의 결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첨단 항공전력을 향해 더 높은 이상과 꿈을 지니고 일취월장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인 미래의 공군을 위해 모두가 하나라



는 공동체의식을 지니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조국영공방위 임무에 전력투구하여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제몫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날로 '신뢰받는 공군', '사랑받는 공군'으로써 공군의 이미지는 늘 국민과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다. 나 또한 내가 있는 분야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때론 시련과 아픔에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오직 천직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으며, 비행안전을 위한 정비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준 공군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며 생활하고 있다.

기계는 성실한 사람에게 언제나 성실하게 대답해 준다는 것을 항공기 정비를 통해 체험하고, 모든 기계 앞에서 '움직이는 감독관'으로서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하며, 머리로는 완전무(完全無)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작전에 투입되는 항공전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의 정비사들은 라인에서나 격납고에서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임정비에 여념이 없다.

인간의 능력이야말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꾸며 이룩하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자기 분야에 책임지는 삶의 엄격한 자기 수련과 규제로 매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무한책임을 담보로 할 때 완벽한 책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삶의 터전을 실현해가는 공군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성취감을 느낄 때만이 더욱 더 공군에 대한 애정(愛情)을 지니게 될 것이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 공군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적화통일 망상이라도 분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땅에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는 한해가 되어야겠다.

어느덧, 정축년 새해를 맞는 신년의 독수리는 새벽하늘을 폭음으로 열고, 저마다 스스로를 밝히는 별이 되어, 다같이 희망차게 떠오른 새해 아침을 향해 웅비(雄飛)의 거룩한 나래를 드높게 펼쳐 나가자. **등근**

춘면불각효(春眠不覺曉)

임 옥 빈

병장/제8985부대 정훈과



한때는 갑자기 짧아진 밤때문에 새벽(曉)이 오는 것을 느끼지 못 하고 계속 늦잠을 자곤 했던 적이 있었다. 어머니께서 날이 밝았으니 어서 일어나 학교 가라고 아무리 채근하셔도, 강의가 있었든 없었던 “저 오늘 강의 없어요.”하고 한마디 내뱉고, 계속되는 어머니의 원성을 듣는동안 하던 지겨워서 도저히 잠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이르거나 또는 너무 오래 누워 자서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올 때까지, 아니면 눈을 너무 오래 감고 있어서 눈꺼풀이 아플 때까지 잠을 자고는, 천천히 일어나 빈속에 커피를 한잔 마시고 고등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쯤 세수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집을 나서던 때가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2년동안 갑자기 구속력이 없어진 모든 제약에서 벗어난 나는 새해가 왔는데도, 봄이 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냥 하고 싶은대로 할 뿐이었으며 갑자기 생겨난 자유와 더불어 나의 게으름도 점점 심해져만 갔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봄에 늦잠자는 것까지 자연의 섭리(春眠不覺曉)이므로 거스르면 안되는 인간의 권리이자 자유라고 판단한 것을 정신없이 누리다가, 남들처럼 2학년을 마치고 아무 생각없이 군에 입대했다. 나는 정말 무덤덤하게 군에 입대했다.

군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지만 남들이 다 잘 다녀 오는 곳이니 나도 가야만 하는 것이고, 별 거 이겠냐는 생각까지 하면서 마치 칸트가 항상 거닐던 산책로를 찾아가듯이 자연스럽게 입대했던 것이다. 그런 무덤덤함은 입대 후에도 꽤나 지속되어서 빨간 모자를 쓴 사람들이 눈에 익기 시작하고 동기생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이 눈에 보일 때에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그렇게 기본군사훈련을 마친 나는 야전상의 위에 이등병 계급장을 달면서 비로소 ‘지금이 봄이구나. 지금은 ‘95년 새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밤이 짧아졌건 길어졌건 아랑곳하지



않고, 정시에 기상하고 정시에 취침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으며 좀더 건강해진 몸과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 이후 정신없이 달려온 군생활. 군에서 맞는 세 번째 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나를 갑자기 놀라게 하는 일이 생겼다. 그것은 완전히 변한 나의 의식구조였다. 어느날 돌아본 나의 의식구조는 입대 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입대 전에는 '만일 내가 진주조 개라면, 나는 입을 닫은채 오랜 인고의 세월로 진주를 키워내기 보다는 차라리 입을 벌려 진주를 포기하고 자유를 마음껏 호흡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돼지발에 진주라는 말이 생겨난 것인가.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비단 진주뿐만 아니라 그를 이루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과정, 그리고 그를 위한 인고(忍苦),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반드시 필요한 절대가치이기도 하지만,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 가치를 깨닫지도 얻지도 못하는, 즉 남을 위해 희생하는 과정에서만 얻어질 수 있

었던 그런 진주였던 것이다. 나는 남들이 모두 잠든 밤하늘 아래에서 보초를 서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진주의 가치를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갔던 것이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새해가 밝고, 봄이 다가온다. 춘면불각효. 맞는 말이다. 그러나 군인에게는 갑자기 짧아진 밤에 늦잠이 늘었다든지 하는 한가한 소리는 지나친 사치이다. 우리에게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계절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저 나라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변함없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은 진주의 가치를 깨닫는 비결이요, 진주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자체가, 진정한 자유인 것이다. 나는 지금의 이 깨달음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전역한 후에도 혹시나 봄잠이 나를 나태하게 만드려 한다면 다시금 되새겨 볼 것이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진주가 무엇인가를 말이다. **중문**

양심껏 최선을 다하는 새해



최 태 남

5급/제8전투비행단 시설대대

“아버님! 뭘 그렇게 보고 계시죠?”

“음, 저 치악산을 좀 보라. 눈 덮인 산이 햇빛에 반사되어 정말 흰색이 저렇게 하얗수가 있니?”

“정말 굉장한 경치군요, 새삼스런 느낌인데요.”

“그래, 늘 치악산을 바라보며 살아도 새삼 이렇게 바라보니, 겨울산이 그 나름대로 멋진 풍경이구나. 너 귀대준비 다 되었니?”

“네, 이제 가 보겠습니다.”

“그래, 내 아들 최 소위야! 열심히 해라. 늘 애기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양심껏 최선을 다하는 생활자세를 가져라.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사명감을 잇으면 무의미한 시간의 낭비란다. 어서 서둘러라. 좀 일찍 떠나야지.”

겨울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휴일날 해맑은 오후, 집 거실 흔들의자에 앉아 치악산을 바라보면서 지난 7월 임관을 해서 잠시 집에 다니러 왔던

아들이 부대에 가기위해 떠나며 나는 대화였다. 아들을 문밖까지 배웅하고 다시 돌아와 의자에 앉아서 명상에 잠겼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되었다. 해 놓은 일도 없는데 또 한해를 맞게 되니 마음만 바쁘다.

그래도 지난해 막내아들의 임관식 참석은 두고두고 감동적이었다. 큰 아들 녀석에 이어 막내아들도 공군에 입대하므로써 우리 3부자가 모두 공군가족임을 실감하던 임관식장에서, 아들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줄 때 아들이 하던 얘기가 생각난다.

“입대해서 공군가를 배우면서 아버님 생각 많이 했어요.”

“왜?”

“형과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가르쳐 주시던 공군가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뭉클 아버님 모습이 보고 싶었어요. 의미도 모르

면서 동네 친구들과 들판으로 뛰어 다니며 부르던 그 공군가에 향수를 느끼기도 했구요. 끝내 저까지 공군에 입대시키셨으니 아버님 집념은 대단하셔요.”

“그건 집념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사랑하는 마음일 뿐이다.”

입속으로 공군가를 웅얼거리려 본다. 팔팔하던 젊은 시절, 내가 공군에 입대하느라고 덜컥거리는 시골 버스를 타고 비좁은 산모퉁이를 돌아서 떠날 때 동네밖 길가에서 차가 안보일 때까지 지켜서 배웅해 주시던 어머님 생각도 간절하다.

어머님께서도 내가 어린시절, 6·25 전쟁 중이었을 때 형님을 전쟁터로 보내시며 나를 끌어안고 눈시울을 붉히신 채 “네가 군대 갈 때까지 전쟁이 안 끝나면 어쩌니…….” 하시며 근심이 가득하신 모습도 생생하게 떠 오른다. 이미 어머님께서도 저 세상에 가셨지만 내가 군대를 마치고 내 아들이 이렇게 군대를 갔어도, 전쟁은 끝날줄 모르고 긴장감이 감도는채 민족의 아픔으로 여전히 남아 있으니 저 세상에 계신 어머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실까?

새해에는 통일의 기미가 있을까?하고 고대해 온 수십년 세월. 정말 이제는 통일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쟁취해 야될 민족의 숙제다. 국력의 신장만이 확실한 보장을 해줄 것이기에 국력증진에 온갖 힘을 기울여야 되는 한해가 되리라 믿는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내 분야에 1인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때, 그 하나하나 모여진 힘은 국력신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활주로를 박차고 치솟는 우렁찬 폭음의 비행

기를 보면서 가슴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내 직장의 소중함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보람된 일임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모든 이가 활기찬 업무수행으로 확실한 영공방위가 이루어질 때 통일의 시기는 빨리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매년 이맘 때만 되면 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을 무겁게 한다.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또 에어컨이 안된다고 도움을 요청할 때 과연 즐거운 표정으로 나섰던가? 많은 장비를 다루다 보면 일속에 묻혀 본의 아니게 통명스런 말씨도 많았고, 여의치 않은 작업 여건속에 속도 많이 상하지만 그 못지 않은 보람도 느끼게 된다.

우리가 한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그 곳의 주인은 아닌 것이다. 주인은 주인답게 행동할 때만이 참 주인인 것이다.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를 스스로 깨달을 때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30여년이 다 되어가는 군무원 생활에서 과연 난 참 주인답게 살아 왔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면 조금은 쑥스럽기도 하다.

새해에는 좀 더 상냥하게, 즐거운 표정으로 타인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것만이라도 고쳐 봐야겠다. 그리고 내 양심에 물어봐서 최선을 다했다는 대답이 나오도록 노력해 보리라. 그래서 1997년은 정말 내게 뜻있는 해였다고 내년 이맘 때 자부할 수 있도록 하리라고 다짐해 본다.

흔들의자 팔걸이를 매만져 본다. 임관한 아들이 첫 효도 봉급이라고 사서보낸 의자기에 아들의 건투를 비는 마음으로…….

눈덮인 치악산에 저녁 산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등산**

한총련 밀입북 대학생 체북활동 실태

공군 기무부대 자료제공

I. 문제 제기

우리는 지난 여름의 「연대사태」를 통해 한총련이 비현실적인 통일관에 사로잡혀 시대착오적인 친북성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운동'이라는 그럴듯한 허울을 둘러쓴 한총련의 시위 양상은 그 폭력성으로 볼 때 준 '무력투쟁'의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조국통일을 달성한다며 내건 목표는 북한이 내걸고 있는 적화통일전략의 구체적 실천방향을 그대로 베껴놓은 복사판에 다름 아니었다.

즉 학생운동이라는 명분을 빌려, 소위 「통일 대축전」을 연다며 불법 폭력시위를 야기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고, 동축전에 북한 대학생들을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대표 2명을 밀입북 시키는 등 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과 체제에 대한 도전마저도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상식을 벗어난 한총련 학생들의 시

위행태를 바라본 대다수 국민들은 깊은 우려와 함께,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에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한총련의 배후를 규명하고, 이에 동조하는 불법·폭력세력을 법으로 엄히 다스려 우리 사회가 또다시 이같은 소동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들은 소영웅주의적 무력투쟁과 친북성향을 질타하는 여론에 대해 반성은 커녕 "청년학생들의 순수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매도하고 탄압하는 반통일세력들의 음모일 뿐"이라고 호언하는가 하면, 그후에도 자신들이 마치 '조국통일의 선구자' 인양 행동하고, 투쟁이 정당하다는 각종 투쟁문건을 배포하면서 대중선전전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총련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 낸 각종 투쟁구호와 선전문건 등은 오히려 그들의 주의·주장이 친북적이며 체제 부정적 시각을 담고 있음을 여지없이 드러내 주고 있다.

우리는 한총련이 북한의 '남조선 해방전략' 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친북·좌경세력임을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통일운동의 4대 정치적 과제' 와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행사를 빙자하여 밀입북했던 2명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체북 활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II. 통일투쟁 양상

한총련은 「연대사태」 직후 8.15를 전후한 자신들의 '통일투쟁' 결과를 평가하는 문건을 통해, 올해에는 소위 '통일운동의 4대 정치적 과제' 를 내걸고 가열차게 투쟁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한반도에서 미국과 김○○ 정권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북·미 평화협정 체결, 군비축소 및 주한미국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방안 이라는 핵심적 정치과제를 앞세우고 힘차게 통일투쟁을 전개

〈「한총련 자료집」(96.9월), 수록 내용중〉

그러면서 올해 통일투쟁의 총지침을 “연초부터 자행되는 미국과 김○○ 정권의 전쟁책동을 예지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으로 삼았으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우리 민족에게 조국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생존을 건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그 핵심적 과제로 제기했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북과 미가 나서서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이

라는 등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강변하고 있다.

한총련은 자신들이 통일투쟁과 관련하여 제기한 정치적 내용의 주장(즉,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방안 확산 등)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친북시비가 일고 있음을 의식하여 “정치적 내용이 북의 주장과 유사하느냐 아니냐를 떠나 합리적이고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애써 친북시비를 외면하고, 어떠한 탄압에도 굽히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고 있다.

한총련이 올해 '통일운동의 4대 정치적 과제' 라며 스스로 제기한 “북·미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방안 확산” 쟁점에 접근하는 시각과 주장을 살펴보면, 한총련이 지향하는 통일관과 목표가 북한과 다르지 않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

- ◆ 한반도 분단원인은 “미제국주의의 민족분열책동에 의한 것”이며, 한반도 긴장과 대결의 원인 또한 “한반도에 미점령군 즉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온갖 전쟁훈련을 자행하고 온갖 전쟁무기를 강제로 배치한 미제국주의의 긴장 고조책동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 또한 <한반도 긴장고조의 주범은 북이 아니라 미국과 김○○정권>이라는 논리 전파
- ◆ “미국과 남한정부가 76년 이래 93년까지 매년 팀스피리트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한반도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조장했으며 이 훈련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니라 “이북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대

북전쟁도발행위"라고 주장. 또한 한-미가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에 비해 몇배나 많은 양의 무기 배치와 군비증가에 주력"했다고 맹비난

◆ 휴전협정 체결이후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한시도 멈추지 않았음에도 미국과 남한정부가 "이북에서 시종일관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결코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

◆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민족의 시급한 과제"라며, 그 이유로

1) 휴전협정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2) 휴전협정의 내용은 이미 사문화되었다. 3) 휴전협정의 이행기구는 사실상 해소되었다. 4) 북한의 유엔가입과 북미관계개선은 더 이상 휴전협정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남한을 배제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의 당위성 전파

※ 동 논리는 북한이 소위 「조-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며, 그간 정전체제 무력화(와해) 책동 과정에서 제기했던 주장과 동일한 맥락임

주한미군 철수 주장

◆ "현재 남한에는 4만여명의 주한미군이 주둔..... 단 한푼의 사용료도 내지 않은 채 1억평에 이르는 땅을 40여년 이상 무상으로 점유하여 사용" 등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지출에 대한 거부감 조장

◆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 10. 1)의 불평등성 부각

"한국에서 무력공격이 있다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인정하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허가없이도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군대를 한국의 어느 곳이든지 주둔시키거나 철수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의 영토주권 포기 선언....."

"한미 행정협정에 의하며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면 어느 곳이나 마음대로 점유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국토를 아무리 파괴하거나 황폐화시킨다 해도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음"

"주한미군은 미군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1차적 관할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범죄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는 근거로 작용했으며, 주한미군에게 이땅은 거의 치외법권 지역임"

◆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인 주한 미군사령관은 60만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장악한 국이 평시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으나 이는 소용없다"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 의해서조차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미국이 남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

※ "주한미국은 「북의 남침위협론」을 내세워 자신들의 존재를 합리화시키고 나아가 자유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있다며, 외세지배(주한미군 주둔)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분단을 종식시킬 것을 주장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 ◆ 현 정부의 국가보안법 유지방침에 대한 극렬한 비방 전개
 “김○○ 대통령 스스로 야당시절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
 “현 정권이 3당 합당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보논리를 앞세운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이 필수불가결”
 “김○○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남용”
 “김○○ 정권 들어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수감된 피해자들만 1천여명…… 과거 군사정권시절보다 더 심하게 국가보안법을 남용하고 있는 증거”
- ◆ 동 법의 폐지 정당성을 인권보호 및 국제여론을 빌어 강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내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애국민주세력들의 활동을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 이외에는 그 무엇도 아님”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국제적 여론도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 ◆ “연대사태”를 계기로 조성된 동법 강화 움직임에 대해 극렬히 비난
 “김○○ 정권은 ‘8월 연세대 항쟁’을 계기로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의 여론을 뒤집고 오히려 이를 유지고수할 뿐 아니라 안기부 등 파쇼기구의 활동 권한을 더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이 법의 권한을 늘리려 함”
 “이같은 움직임은 역사가 말해 주듯 스스로 정권의 기반이 허약함을, 스스로 비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정권임을 드러내는 작태임”

연방제 통일방안 확산 주장

- ◆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북의 주장·빨갱이’라는 고정된 인식이 더 많은 게 사실임. 그러나 상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라면 당연히 펼쳐 버려야 할 선입관이며 잘못된 태도”라며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거부감 불식에 주력
- ◆ “통일은 우리민족 앞에 놓여 있는 지상과업이며 반드시 우리대에 이루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통일지상주의론 전파
- ◆ 연방제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북한이 적화통일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있는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을 답습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한 정부가 합의한 통일원칙에 충실한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임”
 “연방제 통일방안은 김○○ 정권이 주장하는 남북연합처럼 이북 사회를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로 힘에 의해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도 불사하는 힘의 우위에 의한 통일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통일방안임”
- ◆ 자신들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지 않으면 겁쟁이라고 조롱하며 반통일세력이라고 매도
 “연방제 통일방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과 북의 체제와 사회를 다드러 내놓고 살면 북이 우월하기 때문에 남한 사회가 공산화 될 것이라는 우리 사회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거나,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권력이 혹여나 박탈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임”

Ⅲ. 밀입북 대학생 체북활동 실태

한총련 지도부는 지난 8월, 소속학생 2명(도종화, 연대 기계 4 휴학·류세홍, 조선대 치의학 4)을 「범청학련 남측본부」(즉,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시켰다고 발표하고 “북한으로 들어간 이들이 평양에서 범청학련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뒤, 북한학생 2백명과 함께 판문점을 거쳐 서울로 들어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접한 국민들은 어처구니 없는 그들의 계획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을 뿐 아니라, 통일에 대한 열망을 빙자한 소영웅주의적 행태와 국법 유린행위에 대해 비난하면서, 북한과 마음대로 서신을 주고받고 멋대로 국경을 넘나들며 북한의 대남전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한총련의 망동은 사회불안만을 조성하고, 국가의 통일정책을 교란해 북한의 적화통일 망상을 부추킬 뿐이므로 무분별한 이들의 통일소동을 저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당국은 불법적인 한총련의 집회 및 시위를 저지하고, 밀입북 대학생들도 실정법으로 강력히 제재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자 한총련은 대중 선전전을 통해 정부의 제재 움직임을 강력히 비난하고, 각종 투쟁문건과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옹호하기에 급급했으며, 최근에는 「한총련 자료집」을 발간(96.9.)하여 밀입북한 대학생들의 체북 활동을 홍보하는 소위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의 방북활동 일지』라는 내용을 수록, 배포하기도 했다.

한총련은 이 자료집에서 “김○○ 정권은 역사가 기억할 우리들의 정당한 통일투쟁을 ‘북의 사주를 받은 이적행위’ 식으로 매도하고 두 대표에게는 사전 구속영장까지 발부” 했다고 맹렬

히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통일운동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자료에는 밀입북한 한총련 대표들의 북한에서의 활동과 친북적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한총련의 통일운동이 북한의 조종을 받고있는 꼭두각시 놀음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밀입북 대학생들의 체북활동 실태가 자세히 드러나 있는 이른바 「방북일지」를 살펴보면, 이들은 지난 8월 4일 “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앞서 한총련의장님과 조통위원장님을 대신해 2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고 “올해 처음 개최하는 범청학련 1차 총회와 연석회의에 북과 해외에서 오는 청년학생대표를 초대하고 서울까지 안내”하기 위해 서울을 출발했다며, 이후의 구체적 일정을 밝히고 있다.

주요 활동 실태

〈베를린 범청학련 공동사무국 도착〉(96.8.7.)
 〈부모들이 공동사무국으로 찾아와 밀입북 포기 종용, 이를 피해 열차편으로 모스크바로 출발〉(8.8~9.)

※ 두 학생의 부모들과 현지 공관원들이 찾아가 밀입북을 만류하며, 설득하자 이를 완강히 뿌리치고 도망치듯 밀입북을 감행한 사실을 놓고,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당국이 꾸민 “납치·구순공작 음모”라고 매도하고, 이를 취재하던 보도진에 대해서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한총련대표들을 ‘천륜까지 저버린 패륜아’로 매도하고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리려 했다”고 맹렬히 비난

평양도착 및 도착성명 발표, 평양 고려호텔에

서 열린 범청학련 북측 본부 주최 연회 참석)
(8. 10.)

※ 한총련 대표를 위해 마련했다는 연회에는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인 백인준, 범청학련 북측본부 의장 허창조를 비롯 범청학련 해외 본부 대표단 등이 참석, 밀입북자들의 행위를 고무시키고 소위 '통일투쟁'에 대한 연대의식을 고취

도착성명 요지

- ◆ 한 핏줄, 한 형제, 한 민족인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조국과 겨레의 하나됨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이며 소원
- ◆ 조국과 민족의 부름에 담당했던 청년학생들은 더이상 분단된 조국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의로 범청학련의 깃발을 높이 들어 통일의 선봉대로 나서고자 함
- ◆ 통일을 바라는 청년학생들의 염원을 짓밟고 애국적 청년학생들을 잡아 가두는 수단인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나설 것임
- ◆ 지루하게 끌어온 정전협정을 끝장내고 '평화협정 체결'하여 조국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기운을 씻어내는 투쟁에 나설 것임

〈평양 고려호텔에서 개최된 2차 범청학련 중앙위원회 회의 참석 및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대표들의 평양도착과 범청학련 중앙위원회 2차 회의와 관련하 기자회견 실시〉(8. 11.~12.)

※ 「2차 범청학련 중앙위원회」 회의시 이른바 "6차 범청학련 통일 대축전" 세부 계획안을 최종 확정된 후 공동 보도문과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

범청학련 중앙위원회(2차) 결정안 요지

- ◆ 범청학련 1차 총회와 '평화와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 북, 해외 청년학생 연석회의'에서 거론될 안건 논의와 합의
- ◆ 범청학련 운동의 총화와 전망과제, 범청학련 강령 및 규약 심의 의결
- ◆ 정민주, 이해정 대표의 무죄입증을 위한 남, 북, 해외 공동의 증인단과 위문단구성
- ◆ 통일축전 개최지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옮기고 범청학련 남측본부에서의 통일대축전은 평양대회와 결합, 동시진행(남측 위임장을 받은 두 대표가 참석하여 연석회의는 판문점, 총회는 평양에서 개최)

행사직후 한총련 대표 기자회견 요지

- ◆ 김○○의 악랄한 탄압책동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백만청년학생들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갈망하며 연방통일조국을 안아오기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
- ◆ 우리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참가하는 북과 해외 청년학생 대표들을 환영하는 환영단으로 파견되었음
- ◆ 민족대단결은 통일의 원칙이고 통일의 힘이며 통일 그 자체임
- ◆ 역사적인 범청학련 1차 총회와 48년 남북한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의 정신을 계승한 청년학생 연석회의를 8월 13일, 14일, 15일 서울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장소에서 진행하고자 함

〈판문점에서 개최된 「7차 범민족대회」 개막식·판문점 판문각 앞에서 열린 「구속된 통일

애국인사들의 석방을 위한 7차 범민족대회」· 평양소재 청년중앙회관의 「범청학련 1차 총회」 참석)(8. 14.)

※ 「7차 범민족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류세홍은 “김○○ 정권은 반통일세력이자 반민족적 정권이며, 민족을 분열시키는 매국세력”이라고 발언하였고, 도종화는 “민중 기반이 전혀 없으면서 독재자들의 안방에 기생하며 몰염치성과 반통일성으로 일관되어 있는 김○○ 문민 독재정권 타도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요지의 연설문을 낭독하며 현 정권에 대한 비난을 한 후, 이른바 「구속된 통일 애국인사들의 석방을 위한 7차 범민족대회 참가자들의 연대집회」에 참석, 대표 연설(도종화)을 통해 “북녘의 청년학생들이 남과 해외동포 청년학생들과 굳게 손잡고 강력한 공동투쟁으로 파쇼의 울가미에서 정민주, 이해정 대표와 모든 통일애국인사들이 석방되는 그 날까지 굴함없이 싸워 나가자”고 선동한 후, 서울에서 개최되는 「통일대축전」 참가를 빙자, 판문점 돌파를 추진하다 저지당하자 범청학련 각 본부 명의로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선전전 전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6 범민족회의」,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조국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남, 북, 해외 청년학생 판문점 결의대회」,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평화와 민족대단결을 위한 범청학련 통일무대」에 참가)(8. 15.)

※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결의대회시, 밀입북 대학생 류세홍은 대표연설에서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 속에서도 역사적인 범청학련 1차 총회와 평화와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 북, 해외청

년학생 연석회의를 훌륭히 마무리지었다”고 연설하며 “통일의지를 가로막는 반통일세력을 향해 강철같은 우리의 의지를 투쟁으로 보여주자”고 언동하였고, 도종화는 「범청학련 통일무대」에서 “미제와 김○○ 파쇼일당의 반통일책동을 투쟁으로 분쇄하고 통일조국을 반드시 이룩하자”고 호언하며 통일투쟁을 선동

〈판문각, 단식농성)(8. 21. ~27.)

※ 이들은 8월 21일, '사회 각계각층의 4천만 국민에게 드린느 글' 제하의 성명을 발표한 후, 북측 대표들과 함께 판문점 판문각에서 농성을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정부에 대해 구속학생들의 즉각 석방과 피해보상, 대국민 사과, 한총련 와해시도 중지 등을 촉구하는 비난 선전전을 전개

성명서 요지

- ◆ 정부의 사상 유례없는 한총련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의 부당성과 사태를 바라보는 언론의 비이성적인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농성을 시작함
- ◆ 반대 주장을 수용할 줄 모르는 사회는 민주주의라 할 수 없으며, 한총련이 주장하는 내용이 국가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것이 아님
- ◆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지만 이번 일은 정부의 반민주, 반통일성에 기인한 것임
- ◆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을 매도하고 왜곡하는 것은 부당함. 우리 사회의 언론은 더이상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며 문민독재를 위해 협조하는 기관차에 불과함

한편 밀입북 후,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행사 강행을 위해 분주했던 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처럼 판문점을 통한 귀환이 여의치 않자 시위·농성을 통해 비난 선전전을 전개했음을 물론, 약 2개월간의 체북기간 동안 통일운동을 빙자하여 북한체제 선전대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즉, 이들은 입북한 후 북한측의 “8.15 행사”에 전부 동참하였고, ‘개신문-만수대 언덕 시가행진’(8.13.) 참가 후 김일성 동상에 헌화를 한 것을 비롯, 제5차 「청년절」 행사 참가, 애국열사릉·동명왕릉·백두산·묘향산·금강산·김일성 종합대·김형직 사범대 등 북한의 각종 체제 선전시설과 유적지 등을 참관 및 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를 “반민족적 정권”으로 매도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을 적극 지지하는 친북 이적행위를 자행했다.

특히 북한의 선전매체인 중앙방송이 이들의 체북활동을 선전하기 위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김형직 사범대학 방문(9.23.)시 과거 밀입북하여 동 대학을 방문했던 임수경·박성희·성용승·최정남·정민주·이혜정 등의 방문상황을 수록한 녹화물을 살펴보고 난 후, 그곳 학생들과 함께 ‘한총련 진군가’, ‘범청학련가’를 합창하면서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기어이 조국통일 위업을 쟁취하고야 말 굳은 결의”를 다졌다고 보도한 데서도 이들의 친북활동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의 3대 혁명전시관 참관(9.23.)을 비롯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를 마지막으로 북한 체류일정을 마치고, 판문점을 통한 귀환을 추진하다 국보법위반 혐의

로 구속될 것이 확실시 되자, 중국을 거쳐 독일의 베를린에 도착(10.8.)한 후, 귀국치 않고 「범청학련」 공동사무국 상근요원으로 활동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류세홍은 평양에서 자신이 다니던 조선대에 서신을 발송하여, 자신들의 체북기간중 활동과 이른바 한총련의 ‘연대항쟁’(연대사태 지칭)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투쟁의지를 고취하기도 했다.

그리고 범청학련 공동사무국 상근요원으로 활동할 계획을 밝힌 후, 독일 베를린에 체류하던 이들은 최근 “독일정부로부터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 출국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호소문을 「남총련」에 보내, 난민자격을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관련서류 [「한총련」 대표라는 사실·국내 입국시 “구속과 탄압”을 받게 된다는 법적 증거 및 현황에 대한 ‘변호사 공증서’·우리나라에서 국보법으로 소위 “인권이 유린되는” 실태 보고서·자신들의 체북 활동상을 수록한 영자신문 등]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지난 10월 25일 “한국정부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후 독일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였다.

IV. 맺음말-우리의 자세

지금까지 우리는 한총련 사태로 불거졌던 통일운동 소동과정과 밀입북 대학생들의 북한 체류기간중의 행각을 통해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지를 알 수 있었다.

그동안 한총련이 「민간통일운동」이란 이름하에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북한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는 친북투쟁

활동을 벌이며, 통일열기의 확산을 꾀해왔지만, 그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폭력투쟁을 일삼고, 사회혼란만을 부채질해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해왔다.

그럼에도 이들은 해마다 8.15만 되면, 국민을 앞세우고 통일을 부르짖으며 북한의 장단에 따라 통일투쟁과 밀입북 소동을 일으켰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한총련」 대표라는 이름으로 2명의 대학생을 밀입북 시켰다.

북한이 평양방송(8.6.)을 통해 “한총련 1백만 청년학생들은 통일대축전을 기어이 성사시키기 위해 청춘의 열정과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라”고 선동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한총련이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킨다며 소속학생들의 밀입북을 감행하고, 통일소동을 야기한 것은 그들의 주장대로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분열과 적화통일 열기를 민간에 확산시키려는 음모에 불과할 뿐이었다.

통일운동을 빙자하여 밀입북한 한총련대표들이 체북기간중 철저하게 북한의 체제선전에 활용되는 꼭두각시 역할을 한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체북기간중 우리 정부를 “반민족적 정권”으로 매도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 북-미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주장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였고, 북한은 이들을 “통일사절” 등으로 환대하며 이들의 친북적 발언과 한국정부 타도선동 등을 각종 선전매체를 활용, 200여 회 이상 반복 보도함으로써 체제 결속의 수단으로 십분 활용하였다.

우리 당국이 한총련의 불법시위를 진압(8.20.)하고, 좌익세력 척결의지를 천명하는데 대

해 북한이 “반민족·반통일 범죄행위”라고 극렬히 비방하며 대남 모략선전에 안간힘을 쏟은 사실을 통해 보더라도 북한이 친북·좌경세력들에게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단지 2명이 밀입북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친북·좌경집단이 ‘자유’라는 명분을 내걸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공연히 파괴하고 있으며, 공권력에 대항하는 친북·좌경세력의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고, 우리 사회일각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양비론으로 포장되어 옹호되는 경우마저도 비일비재하는 사실이다.

폭력투쟁과 사회혼란만을 일삼는 이들의 행위가 때론 국민들의 지탄과 공분(公憤)을 사기도 하지만, 일상에 바쁜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한때의 공분이 시간이 지나면 ‘공분(空憤)’으로 바뀌는 어리석음이 매년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거나 한듯, 친북·좌경세력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마치 정당한 양 왜곡·전파해 왔고, 시간이 흐르면 이들의 논리가 그대로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시대정신과 사회풍토가 왜곡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운동’을 앞세운 이들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대남적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북한의 책략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방관하거나 잊어서는 안되겠다.

사상전에서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망각임을 명심하자! **중3**

최근 북한의 정세와 변화전망



김 강 녕

정치학박사/조화정치연구원장

I. 문제의 제기

「삼국지연의」는 서두에서 “천하대세(나라)란 나닌지 오래면 다시 합쳐지고, 합쳐져서 오래되면 다시 나닌다.”(天下大勢 分久必合 合久必分)는 일종의 역사발전의 주기율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한반도가 38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된 지 반세기가 지났다. 반세기가 ‘구(久)’에 해당되지 않는 짧은 세월이기에 아직 ‘합(合)’을 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통일에 대한 민족의 의지와 능력이 결여된 때문인지, 아니면 주변 열강의 국제정치의 역학 때문인지, 강산이 다섯 번쯤은 바뀌고도 남을 이 시점의 남북한 관계는 이렇다할 관계개선 및 통일의 밝은 전망보다는 ‘전쟁위기’의 운위(云謂)로 특징지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통일의 실현은 민족통합 차원을 넘어서서

21세기 세계사의 중심국으로도 발돋움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 및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북한주민은 우리와 더불어 통일과정을 논의하고, 통일 이후 한민족의 장래를 가꾸어 나갈 동반자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탈냉전과 개혁·개방이라는 전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개혁·개방을 거부한 채 대남 적화전략 및 대남적대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분명히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이며, 경계의 대상인 것이다.

최근 북한은 경제난이 지속되고 탈북자가 증가하는 등 체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1995~1996년에 대규모 홍수피해로 식량난이 가중되는 등 어려운 국면하에서도, 대남군사정책 및 전략 등에는 아무런 변화없이 김일성의 유훈통치를 지속하고 있다.

화해와 협력의 세계사적 흐름과 북한내부의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통한 군사적 위협은 물론, 특히 최근 북한의 잠수함을 동원한 무장공비 침투사건('96.9.17)과 그후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인 보복위협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되고 불편한 남북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사건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전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등과 관련된 북한의 일반정세와, 최근 군사동향을 살펴본 후 향후 북한의 변화전망을 타진해 보기로 한다.

II. 북한의 일반정세

북한은 최근 세계적인 탈냉전적 조류와 북한내부의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대남적화전략을 집요하게 추진하면서 생존 차원의 체제유지에 부심하고 있다. 이 두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핵 및 군사력 위협카드를 적절히 배합한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대남전략의 유리한 국면조성을 기도하고 있다. 또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도 군사력을 체제유지 및 대남적화의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군사 진지 구축'을 최우선 중점과업으로 추진하고 전의를 고취시키는 등 전력보강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가중되고 있는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당면한 체제위기, 경제난, 국제적 고립 등 3중고 타개를 위해 대미 관계개선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사회주의 체제수호와 대남적화 전략 구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우선 정치면에서 김정일은 30년간에 걸친 당 활동과, 장기간에 걸친 후계체제 구축 및 이상화 작업 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후 2년 이상 김정일이 국가주석 및 당 총비서에 공식 취임하지 않음으로써 공식 권력승계가 지연되고 있지만, 국방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주요 간부들도 대내외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 권력내부 갈등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으나 군의 영향력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내외적인 총체적 위기를 맞아 체제불안 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군부 중심의 과도기적 위기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면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점이 누락되어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1990년대에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은 체제유지의 최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경제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연간 약 2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수재로 인해 1996년도 부족량은 전체수요의 절반 수준인 300여 만톤에 달하



강릉 앞바다로 침투한
무장공비들로부터 노획한
공작용 장비들

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원유 부족량도 연간 200여 만톤이며, 산업가동률은 30%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교면에서 기본적으로는 안보, 경제발전, 및 정통성 확보를,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정책목표로 하여 대외 정책을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체제유지 및 경제회생을 위해 대미 관계개선에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간의 미사일회담, 유해송환협상, 연락사무소 개설협상, 북한 주요인사들의 북한 방미, 미국 관리들과의 빈번한 접촉 등 대미 창구를 다변화하여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또는 해제, 식량원조 요청 등 실리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합의(94.10.21.) 및 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한 콜라롬푸르 합의(95.6.13.)를 계기로 합의 사항의 구체적 협의를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문제, 핵연료봉 보관·처리문제, 경수로 협정체결문제 등과 관련한 일련의 회담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사건(96.9.17.)으로

회담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우리와 국교수립으로 다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남정책 및 전략면에서는 한국을 주적화(主敵化)하여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 및 혁명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 대한 극렬한 비난선전을 강화하면서 남북한 대결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1996년 들어 우리의 방어 훈련인 '호국 96훈련'을 빌미로 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담화(96.3.29.)등을 통해 "전쟁불가피, 시기가 문제", "만반의 전투동원태세 견지" 등의 전쟁위협 발언을 계속하는가 하면, 비무장지대(DMZ) 관리임무포기선언(96.4.4.)을 한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무장병력을 투입(96년 4월)하는 등 정전체제 무력화책동의 강도를 점차 높여 가는 가운데, 한국과의 대화를 기피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주장해 왔다. 그후 북한은 잠수함을 동원한 무장간첩을 동해안에 침주시키더니,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는 커녕 지금까지 무력도발 후 상투적으로 그래왔듯이 "백배, 천배

보복” 협박을 함으로써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에 한치도 후퇴가 없음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으로, 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는지를 잘 시사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최근 군사동향

북한은 '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후 경제건설이 제약을 받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대적으로 군사력을 육성해 왔다. 1990년 이후 북한은 세계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군사력만이 체제수호 및 대남적화전략 추진의 유일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전쟁준비에 일관해 왔으며,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하에서는 경제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사우선정책을 강화하고 전쟁능력과 준비태세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지출을 매년 늘리고 있으며, 매우 위협적인 화생방무기와 미사일 등 전력무기를 개발하는 한편, 기습공격용 무기를 대폭 증강하여 전방에 배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6년째 마이너스 성장에도 아랑곳 없이, 북한의 군사비는 '90년에 49억 6천만 달러였던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1년 51억 3천만 달러, '92년 55억 4천만 달러, '93년 56억 2천만 달러, '94년 56억 6천만 달러로 계속 늘어났다. 군사비는 지난 '95년에도 증가, 57억 8천만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백서 1996~1997」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에 군병력을 1만 5천명을 늘림으로서 105만 5천명이나 되며, 잠수함은 '95년의 26척에서 35척(자체 건조한 소형잠수함 9척을 포함)으로 9척을 늘리고 장갑차, 야포, AN-2기 등 기습공격용 무기를 괄목할 정도로 증가시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국방백서가 예상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은 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 공격으로 초전부터 대혼란화된 기동화부대를 고속으로 중심 깊숙히 돌진시킴으로써 미군의 추가적인 증원이전에 전 남한을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 전략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지난 '94년 3월 “서울 불바다” 위협의 근거가 되는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한 미사일 장사정포를 수년간 대폭 증강해 왔다.

북한이 보유한 야포는 총 1만 1천여문으로 이중 60%가 평양~원산선(線) 이남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 특히 휴전선과 서울에 직접공격이 가능한 장사정포인 1백 70mm 자주포 120문과, 240mm 방사포 140문을 북한은 최근 직접 생산해 배치를 완료했다. 또한 MIG 17기 80여대가 누천리와 구읍리로 전진 배치되어 있어 6분이면 서울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화생방무기 및 장거리 유도무기의 개발(노동 1·2호, 대포동 1·2호), MIG 21/29기의 자체 생산추진 등 공세용 군비증강에 많은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기회라고 판단하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서슴없이 무력도발도 일삼는 등 호전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도발은 그들의 무력적화

핵개발 포기를 통해
대미관계 개선과
경수로 지원이라는 이득을
얻은 바 있는 북한은
새로운 협상무기로
미사일을 손에 쥐고 있다.
사진은 북한 미사일 부대



통일이라는 기본목표와 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가장 큰 위협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전망은 어떠한가?

Ⅳ. 북한의 변화전망

80년대 말부터 진행된 탈냉전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와중에서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조를 통한 사상통제, 자유경제 무역지대 창설 및 신무역체계 도입 등 대외경제협력 추구를 통한 경제난 극복, 핵위기 상황을 빌미로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외교적 고립탈피 등, 90년대 이전의 고립적이고 대결적인 정책기조로부터 획기적 변모를 시도해 왔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후 북한에서는 당총비서 및 국가주석 지위를 공식으로 둔 채 유혼통치(遺訓統治)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권력세습 과정을 밟아 온 김정일이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군최고사령관으로서 정권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군부와 함께 국가

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사회통제 기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김정일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나 세력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향후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정일 유일체제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지연되는 이유는 유혼통치를 통해 확실하게 북한사회 권위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이며, 경제문제 등 제반 문제들의 호전기미가 있을 때 권력에 취임함으로써 권력승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이며, 오는 '97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일성 시대보다 김정일 체제에서는 자유주의 침습방지 등을 의식하여 주민에 대한 정치·사상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면에서 북한은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거의 경제적 파탄상태에 직면해 있는데, 앞으로도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경제전략의 기조로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의 안정을 추구하고 정통성 확보 및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 중공업 편중의 경제구조, 생산력 저하 현상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단기간에 경제회생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이거나 경제개방의 점진적 확대를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인민적 소유제도의 확대와 경제 관리 및 운영체제의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교면에서 향후 북한은 기존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그대로 유지한 채 김정일체제의 최대당면과제인 체제안정, 심각한 경제난 타개 및 외교적 고립탈피를 위해 생존전략 차원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병행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적 중심고리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판단아래 미북제네바 합의 및 팔라룸푸르 합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확보, 연락사무소 개설 등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수교를 이끌어내 그들의 체제유지를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군사력 우위 유지, 북한정권의 정통성 확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군사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난 타개를 위한 실리적인 입장에서 대일수교 및 중·러와의 협력강화 등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대남정책 및 전략면에서 북한은 한국을 주적화(主敵化)하여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 및 혁명여건 조성에 주력하면서, 우리 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대남비방과 통일전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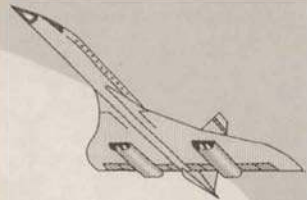
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그동안 그래왔듯이, 공산혁명 전략의 속성상 북한은 기존의 대남적화전전략노선을 고수할 것이며, 다만 상황변화에 따른 전술적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경제난등 체제위기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대남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이 선택하기 쉬운 유효한 카드는 한반도에 지속적인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는 공세적 대남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긴장 분위기의 연속화는 고조된 북한주민의 불만과 갈등을 무마하고 체제결속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남한 및 국제사회를 긴장시켜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대내외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극약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요컨대, 북한은 그들이 처한 체제위기적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김일성 유훈통치에 의존하면서 기존의 대내외 및 대남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밖에 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개방과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세계사의 조류를 계속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며,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도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전망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는 북한의 그 어떠한 공세적 대남전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방위태세로 북한이 저지를지 모를 기습도발과 군사적 위협에 적극 대비해야 하며,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안보의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현실을 직시하여 안보·통일역량을 튼튼히 키우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변국에 대한 평화통일 외교적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등문**

공 / 군 / 논 / 단



- 군 교리 발전에 관한 제언
- 방공포병인 양성을 위해
- 비행단 근거리 전산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군 교리 발전에 관한 제언

구 본 담

대령/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1. 교리의 개념 및 역할

인류역사가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수많은 전쟁속에는 항상 전쟁의 지침역할을 하는 “교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발전에 소홀히 해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렇게 된 원인중의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교리”라는 의미가 종교적, 정치적, 철학적 측면에서도 사용되는 용어로서 너무 어렵고, 가깝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접근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도 한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선 교리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겠다. 군에 있어서의 교리는 군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개념, 원리, 그리고 신념의 근원과 기초가 되고 있는 이론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군이 군을 지도하고 통할하기 위하여 자체가 정립한 개념과, 원리와 원칙의 총

체를 군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군사교리란, 군이 각급 제대별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지침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리의 역할은 전략적 수준의 교리, 작전적 수준의 교리, 전술적 수준의 교리 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든다면, 전 구성원에게 개념을 통일시키는 역할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개관해 본 교리의 개념과 역할을 통해볼 때, 교리는 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므로, 교리에 대한 군의 현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교리의 현실태

가. 교리인식 측면

먼저 교리의 인식측면을 보면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참모 및 부서장, 또는 일선부대에 근무하는 작전요원, 그리고 각 제대 지휘관들도 전력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군에서 실시한 교리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장교들이 교리에 관해서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많은 장교들이 교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무관심이 교리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 교리발전체계 측면

또한, 교리발전체계 측면에서 각군의 교리체계를 비교해 보면, 합참의 교리체계는 공군의 교리체계와 유사하고, 육군은 기본교리에 해당하는 작전요무령을 중심으로 전장기능에 따라 전장기능별·제대별 교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군은 기본교리를 중심으로 성분작전별 전술교리와 전투지원을 위한 기술교리, 교육과 관련된 일반교리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군별로 자군 특성에 맞는 교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만, 합동작전 또는 연합작전을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일관성을 가지는 교리 발전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 교리전문인력 양성측면

한편, 인력양성 측면을 보면 교리에 관련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교리발전의 제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군에서도 교리연구 발전업무에 적합한 전문인력은 충분히 양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각 군간의 전문인력 확보율이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 군 전체 차원에서 볼 때 균형적인 교리연구 추진이 원만치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3. 교리발전 방향

이상에서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군 교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리에 대한 인식도를 확산시켜야 하겠다.

교리는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성숙해져야 하므로 생명력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교리는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칙들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군의 구성원들이 누구나 교리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입대시의 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보수교육을 통해, 현재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지침이 교리이며, 전투원 각자각자가 전력을 운용하고 적과 싸우는데 필요한 지식이 바로 교리라는 것을 주지시킴으로, 교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급 전투부대는 지휘관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제대에 맞는 교리를 숙지시켜야 하며, 교리발전을 위해 솔선수범 해야 할 것이다. 최고의



지휘관으로부터 사병들과 군무원들까지 자기 임무의 출발점이 교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군의 전투력은 자동적으로 증진될 것이며 아울러 교리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관된 군 교리발전 체계가 정립되어야 하겠다.

군의 전력증강과 미래전력의 창출은 교리와 무기체계의 발전을 통해 병행될 수 있다. 이 중에서 교리에 의한 것은 미래전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운용개념에 기초를 두고, 기능별로 임무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전기를 개발하는 것과, 새로운 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장비·획득·훈련 등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리의 개발·발전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침을 주는 일원화된 통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 지도기구와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즉각 군별로 독립된 교리발전 부서를 두어 계획, 연구,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책임 행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각 군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리 전문인력 양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교리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은 간부들이 하게 된다. 이들 중에서도 우수한 장기복무 장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리의 질은 전쟁이론, 국가의지, 사회 및 정치적 신념, 재정적 요소, 과학기술, 지리적 영향, 적의 능력 등의 여러 요소가 종합되어 신중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이러한 연구는 간부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리의 질은 전쟁에서의 승패나 군발전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므로, 교리를 개발하는 간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교리 전문인력의 양성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문인력 양성 지침하에, 필요한 양성소요를 판단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향후 다양한 위기 및 분쟁에 대응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교리로의 발전이 필요

하다.

장차전에서 형성될 전장의 특성은 깊게 보고(deep see), 깊게 통제하며(deep control), 깊게 타격(deep strike)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비선형·비접적 전투가 지배적이게 될 것이다.

또한 전장감시와 통제 능력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어,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 배치된 상태에서도 군사력을 순식간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주전쟁과 미사일전쟁 수단이 고도로 발전됨에 따라 원거리 전투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고 있다. 따라서 군의 교리는 우리의 위협과 능력을 고려하여 현대전 및 장차전 양상, 전장의 지정학적 특성, 지형, 기상 등 작전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하며, 어떤 위협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교리를 발전시켜야 하겠다.

이와 같이 교리를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각 군 간에 기존의 편중되고 고착된 교리에 대한 의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모두가 한가지 목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교리는 역사적인 동시에 미래적이어야 한다. 어떻게 교리가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가를 일단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미래에 대처하고, 기술면에서 우위를 고수하기 위해 구조상에 어떤 변혁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현구조의 각부문에 변혁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한미 연합방위의 틀과 개

념속에서 국방체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미국의 군사제도, 전략개념, 군사교리, 조직편성 등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교리발전을 추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한반도의 전략구도가 본질적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고, 국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군 교리도 그에 맞추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과 한국의 국력 한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스스로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유지시킬 수 있는 자주적 군 교리의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군 구성원에게 본연의 임무를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교리에 대한 교육은 강화되어야 하고 전문군사교육 교과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 즉 교리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인 개념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군사력이 운용될 때 일체의 전력이 하나의 지침과 개념을 가지고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군 교리발전 체계가 정립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교리는 모든 관련 요원들의 관심속에 발전하고, 기억되고, 실행되어질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리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군 교리는 당면한 위협 뿐만 아니라, 향후 직면하게 될 다양한 위기 및 분쟁 해결이 가능한 지침과 안내자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교리로 가일층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방공포병인 양성을 위해

권 오 극

중령/방공포병학교 학생대대



1. 머리말

방공포병이 공군으로 전군(轉軍)한지도 어느덧 6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다. 육·공군의 서로 다른 문화가 혼재된 상황속에서 공군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방공포병은 나름대로의 위상 확립과 공군의 발전, 그리고 과학전·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전투력 구비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통합 방공전투력 발휘라고 하는 본래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방공 무기체계 도입을 통한 대적 우위의 방공 전력 보유에도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제반 복지와 근무여건이 상당 수준 향상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에 입대하는 대다수의 장병들은 방공포병 특기를 지원함에 있어 아직도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방공포병이 아직도 기존의 공군문화와 제도를 수용함에 있어 다소 미흡하고, 방공포병 특

기에 대한 일부 왜곡된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인한 막연한 거부감이 장병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공포병의 특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방공포병학교에서는 가장 먼저 방공포병 생활을 접하게 되는 교육생들에게 방공포병 특기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투철한 군인정신과 완벽한 임무수행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중에서도 교육생들의 훈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대대에서는 방공포병의 '혼(魂)'과 '기(氣)'를 불러 넣을 수 있는 독특한 훈육체계를 마련, 이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정예 방공포병 장병 육성을 통한 공군 전투력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해 왔고, 일부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고 있다. 방공포병이 지니고 있는 제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조국과 민족, 공군 그리고 방공포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장병을 육성하기 위해 당 대대가 그동안 기울여 온 방공포병 훈육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2. 훈육지도

가. 신세대 장병 의식

소위 말하는 신세대는 70년대 이후 물질문명의 발달과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80년대의 민주화 추세에 편승하여 자기 자신의 개성 위주로 자라온 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하여 타인의 눈치를 보지않고 행동하며, 조직과 단체보다는 자기만의 공간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성장 환경속에서 자라난 이들은 대체적으로 물질문화에 많이 접하므로써 물질만능주의적 사고와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기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과 과잉보호로 정신적·체력적으로 나약하며, 집단속에서 연대의식과 협동심이 부족하고, 기존의 정치와 사회(특히 군사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팽배해 있다. 또한 무질서, 무규범 등 속박과 규제의 틀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분명한 자기 의사표현과 개방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합리성을 추구하며, 특정 업무에 대하여 동기가 부여될 경우 도전적인 잠재역량을 발휘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식성향에 대한 기성세대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있어야 하겠으며,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과 비판보다는 포용력으로 수용하고 지도해 주므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참된 시민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우리군도 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리더쉽을 적용하므로써,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함은 물론, 국가와 민족이 요

구하는 건강한 시민 육성에도 일조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타 특기에 비하여 선호도가 저조한 방공포병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과 심리를 잘 파악하여, 방공포병의 임무와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과 훈육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방공포병뿐만 아니라, 공군 전체의 임무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나. 방공포병 입과장병의 의식성향

공군으로 전군되어 방공포병으로 지원한 입과장병들의 의식성향은, 과거 육군에서 의무적으로 징집된 요원들에 비하여 입대동기나 방공포병 특기의 인식도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근무여건이 좋은 비행단에서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전공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지원 동기가 있었으나, 여타 공군기지에 비하여 복무환경이 열악한 방공포병 부대에 배속된 것에 대하여 열등의식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방공포병 특기 입과 장병들의 의식성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과 연령을 조사해 본 결과, 공군으로 전군이후 고학력 소지자가 증가했으며, 평균연령도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 간부들과 맞먹는 고학력자들의 입대는 자기주관이 뚜렷하고 합리적이며, 군에 대한 다소의 비판적 사고를 가진 장병들의 대거 유입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의 유입은 과거에 비하여 체력이 약하고 육체적인 일에는 서투르나, 반면에 정신적인 노동에는 장점을 갖는 자원이 충원됨을 의미한다 하겠다.(질문1 참조)

둘째, '방공포병 특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과반수에 불과한 인원이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나, 방공포병의 긍정적인 요소

(질문1) 당신의 학력 및 연령은?

구분	장교	하사관	병
학력 (%)	대학원졸(재)	14	
	대졸(재)	86	1
	전문대졸(재)		29
	고졸		70
연령(만)	24.8	21.7	20.2

를 제외한 나머지 부정적인 면 위주로 방공포병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육군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특기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근무지가 Site라는 고정관념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힘든 부대로 알고 있었다. 이는 방공포병이 가지는 임무의 중요성과 전투요원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끈끈한 전우애와 리더십을 배양하는 등 방공포병의 긍정적인 면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 혹은 동료들로부터 듣는 외형적인 소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분석되고 있다.(질문2 참조)

(질문2) 방공포병으로 분류되기 이전에 방공특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구분	힘들다	site생활	선배, 동료 만류	연고지	기타
인식도(%)	40	10	7	3	40

셋째, '방공포병으로 분류되었을 때 본인들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많은 걱정과 갈등을 했다는 반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앞으로 잘 해 보겠다'는 다짐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질문3 참조)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사 양성교육과정의 신병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방공포병학교 특기교육 입과 후에도 정성을 다하는 훈육관리로 인하여 이러한 부정적 반응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넷째, '방공포병의 특기 만족도'에서 장교와 하사관은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감소되면서 '근

(질문3) 방공포병 특기로 분류되었을 때 본인의 심정은?

주요 반응	비율(%)
○ 많은 갈등과 걱정을 했다.	45
○ 별 느낌도 없었다	25
○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했다	22
○ 공군 지원을 후회한다	8

무해 불 만한 특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특기병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질문4 참조) 이는 공군으로 전군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방공포병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방공포병 특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입대 장병들 사이에 많이 남아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방공포병 특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되며, 방공포병의 문화와 제도를 공군의 그것과 근접되도록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다섯째, '방공포병 특기와 타 특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전공을 살릴 수 없고 업무가 힘들며, 복지 및 제반시설 등 Site 근무의 열악한 조건, 외출·외박의 제한 등의 순으로

(질문4) 방공포병 특기로 분류된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구분	장교	하사관	병
특기만족도(%)	35	40	15

답변하고 있으며, 방공임무의 중요성으로 인한 심적 부담이 크다는 반응도 소수의 인원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방공포병이 기존 공군에 비하여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대라는 다소 편향된 인식이 상존해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질문5 참조)

이상으로 방공포병 입과장병들의 특기에 대한 인식도를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방공포병 특

(질문5) 방공포병 특기와 타 특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변 내 용	비율(%)
○ 전공관련 기술습득이 곤란하다	44
○ 열악한 근무지로 개인시간이 부족하다	24
○ 제반 시설 및 복지가 열악하다	22
○ 외출, 외박이 적다	8
○ 임무수행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크다	2

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방공포병으로 선택된 것에 대하여 많은 실망과 피해의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 수준은 과거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복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부족하며 긍정적인 사고와 자발적 행동을 위한 동기가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철저한 자기 희생과 상명하복,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군 생활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장병들의 이러한 의식구조는 분명,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못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방공포병학교에서는 교육사의 훈련장병을 대상으로 매 기수마다 방공 특기에 대한 홍보교육을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리고 방공포병학교에서 특기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이들에게 방공포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위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 훈육방향 설정

신세대 장병의 의식성향과 방공포병 입과 장병들의 특기에 대한 인식도를 통하여 나타난 결론은, 무엇보다도 방공포병의 임무와 특성에 부합된 교육훈련 및 훈육관리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여, 방공특기에 대한

자긍심과 의욕이 부족한 입대장병들을 정예 방공전투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방공포병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의 하나인 야전성과 전문성, 그리고 방공포병의 기질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훈련 및 훈육 모델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세대 장병, 특히 그중에서도 방공포병 특기를 부여받아 입과하는 교육생들이 가지는 개인주의적 성향과 나약한 체력 및 정신력, 그리고 방공포병에 대한 피해의식과 두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참된 군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생 위주의 편의주의적 훈육관리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된 육체적 훈련과 도전하는 불굴의 정신력을 통하여, 이들에게 성취 동기를 심어주고 어떠한 고난과 훈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방공포병 특기로서 높은 자긍심을 심어줄 때, 비로소 국가와 우리군이 요구하는 강병은 만들어지는 것이며 성공적인 영공방위 임무수행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당 대대에서는 방공포병의 훈육관리 방향을 다음의 4가지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첫째, 방공포병의 '혼(魂)' 과 '기(氣)' 를 심어줄 수 있는 훈육관리 모델의 개발이다. 전국 각지의 Site에서 촌각을 다투며 방공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공포병 특기에 있어, 투철한 국가관과 완벽한 작전임무 수행능력, 그리고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은 영공방위 임무수행의 선결요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실무부대 배속에 앞서 방공포병 생활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방공포병학교에서부터 길러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신세대 장병들에게 확고하게 심어주고, 보다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진 나약한 체력과 정신력, 개인주의적 사고, 그리고 방공특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적

요소를 그대로 묻어 둔체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가진 부정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고과 투혼을 길러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해병대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 아래, 현역은 물론 예비역이 되어서도 뜨거운 전우애와 자긍심으로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방공포병 역시 '한 번 방공포병은 영원한 방공포병'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단결력을 심어줄 수 있는 방공포병 특유의 교육훈련 및 훈육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방공포병의 '훈'과 '기'를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훈육관리 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앞으로 방공포병을 바라보는 입대장병들의 인식은 달라질 것이며, 특기의 위상확립과 더욱 완벽한 방공 임무수행도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열악한 복무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사기 및 복지증진 대책의 수립이다. 물론 이것은 대대급 단위 부대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방공학교와 모든 방공인이 노력한다면 해결 가능한 문제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방공포병 부대의 낙후된 복지시설을 개선하고, 진급 및 진출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선 비행단과 다름없는 복지와 근무여건을 제공해 준다면 방공포병 특기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도 높아질 것이며, 우수 자원들이 장기복무를 희망하여 공군에서 몸담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공포병의 역사적 전투사례 연구와 병과위상 확립을 위한 노력이다. 우리나라와 해외 방공전투 사례를 연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방공포병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방공포병의 역사와 전통을 세우는

일로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방공포병학교내 교육지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다양한 전투사례와 역사자료를 확보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근 지역에 대한 부대소개 및 초청견학의 기회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대민 유대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으며, 부대 지휘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 내부에서도 내실있고 알찬 부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역후 사회적 활동을 위한 기반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역 장병에 대한 취업알선으로 전 요원이 마음놓고 군 복무에 임하게 하고, 전역후에도 선·후배 장병들이 따뜻한 정과 유대를 가지는 것은 방공포병의 전통과 단결심을 고양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소 소원했던 현역-예비역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각종 친목 및 봉사활동을 통하여 방공포병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는, 방공포병에 몸담았던 모든 장병들이 방공포병 부대와 방공포병 특기, 그리고 방공포병 전우를 아끼고 사랑하며, 끝까지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노력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인위적인 모임과 친목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한 순간의 구호에 머물 수 밖에 없다. 방공포병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장병 상호간에 고운말 쓰기, 예절지키기, 명량한 업무분위기 조성, 계급간 신분간 유대강화 등, 병영생활 명량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방공포병의 전통을 세우는 일과 일맥상통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고, 현역-예비

역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라. 방공포병식 훈육체계 정립

앞서 방공포병의 훈육방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4가지 요소를 언급하였지만, 여기에서는 비교적 단 시간내에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또한 당 대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첫번째 항목인 방공포병의 '훈'과 '기'를 심어주는 방공포병식 훈육체계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방공포병의 '훈'과 '기'를 심어주는 훈육관리는, 신세대 장병들이 가지는 개인주의 성향과 나약한 체력 및 정신력, 그리고 방공포병 입과장병으로서 가지는 피해의식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해병대처럼 뜨거운 전우애와 단결력을 심

어주고, 투철한 군인정신과 높은 책임의식, 그리고 한 차원 더 높은 방공임무 수행능력을 키워주기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당 대대에서는 이를 위하여 '방공포병의 훈과 기가 살아있는 방공포병인을 만들겠다'는 훈육목표 아래, 강한 육체적 훈련을 이기고 응집력과근성을 길러줄 수 있는 인내심, 연대의식을 길러주는 단결력, 특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길러주는 자긍심 고취 등의 3요소에 훈육의 중점을 두었다.(표1 참조)

그리고 이를 위해 매 기수별 훈육목표를 3단계로 구분 운영하였다. 1단계는 가입교부터 첫외박까지의 기간으로, 강한 응집력과 방공훈 주입에 중점을 두었고, 2단계는 첫 외박부터 둘째 외박까지 연대의식과 협동심 부여에, 3단계는 둘째 외박이후부터 수료까지의 기간으로 자율적인 병영생활 및 실무능력 부여에 중점을 두고

(표1) 방공포병 훈육체계도

목 표	방공포병의 '훈'과 '기'가 주입된 방공포병인 육성		
중 점	인 내 심	단 결 심	자 긍 심 고 취
방 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한 응집력과 근성으로 공군 최고의 전투원을 키운다 ○ '우리는 하나, 영원한 방공포병'이라는 연대의식을 키운다 ○ '방공포병은 만들어진다'는 신념을 주입시킨다 		
시 기 별 훈 육 목 표	가입교~첫외박 강한 응집력과 방공훈 주입	첫외박~둘째외박 연대의식과 협동정신 부여	둘째외박~수료 자율적인 병영생활 및 실무능력 부여
지 도 중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이 갖든 입과환영 행사 ○ 병영생활 조기 적응 능력 배양 ○ 군 기본자세 확립/체력단련 ○ 응집력과 근성 ○ 방공훈과 기질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결심, 협동정신 배양 ○ 군대예절 교육 ○ 정신교육 강화 ○ 술선수범 자세 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공포병 자긍심 고취/전통계승 ○ 소속감 고취/전례, 사례 소개 ○ 자율적인 병영생활 능력부여 ○ 실무부대 소개 및 체험교육

관리하였다.

마. 세부 훈육활동

앞서 언급한 방공포병의 '혼'과 '기'를 심어 줄 수 있는 훈육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 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부 훈육활동은, 강한 응집력과 방공혼 주입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 내무교육, 방공포병 상징표어 및 구호제창, 완전군장 산악행군, 분열훈련 등이 있으며, 자율적인 병영생활과 실무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무부대 소개 및 견습교육, 지휘통솔 훈련, 자습 분위기 조성, 점호 프로그램 개선 등의 다양한 훈육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당 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된 훈육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강한 응집력과 방공혼 주입

① 특별 내무교육 실시

교육사의 양성훈련 과정을 마치고 특기교육 과정에 입과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기본군사훈련, 집단축구, 기마전 등의 강도높은 집단훈련을

(표2) 특별 내무교육 실시 현황

요일	훈련종목	훈 련 목 적	주 요 내 용
월	단체축구	• 체력을 통한 단결력 배양 • 단체의식, 동료애, 전우애 함양	• 1개 기수 합동시합(20명당 축구공 1개 투입) • 전·후반 각 20분 적용
화	줄다리기	• 단체의식 및 정신력 집중 • 방공포병 근성배양	• 전 기수2개 세대 편성(각 50~60명씩) • 3판 2승제
수	기마전	• 군기유지와 전술적 사고 능력 배양 • 방공포병 기질 배양	• 전 기수 2개 세대 편성 • 신호에 의한 통일된 행동
목	깃봉 쓰러 뜨리기	• 진지방어 능력 • 생존능력 배양	• 전 기수 2개 세대 편성 • 방어, 공격조 구분 행동
금	기본군사훈련	• 군 기본자세 확립 • 기본 군사훈련 능력 배양	• 제식훈련(각개, 집총) • 사격술 예비훈련 • 기타
토	완전무장구보	• 강인한 체력 연마 • 불굴의 투지와 인내력 배양	• 완전무장 구보 • 거리 : 10km

* 훈련시간 : 일과후 17:00~19:00(입과 1주차에 한정), 토요일 14:00~16:00
* 승패 결과에 대한 명백한 책임부여로 승부근성 배양

실시하므로써 군 기본 자세를 확립하고 방공인으로서 근성을 기르는 훈련이다.

이 교육은 특기교육 입과 1주차에 걸쳐 일과 후의 시간을 활용, 자유시간을 엄격히 제한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다.(표2 참조)

② 완전군장 산악행군

완전군장 산악행군을 통하여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극기, 동료애, 그리고 자신감을 배양토록 관심을 기울였다. 방공포병은 대다수의 부대가 산악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이 훈련은 Site 근무에 대한 간접경험의 기회도 함께 부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산악행군은 매 기수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군시 군가제창, 함성, 방공포병 구호제창 등을 통하여 방공포병의 혼이 지속적으로 내면화 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념사진을 촬영, 전원에게 배포하여 차후 방공포병 출신 장병으로서 추억을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③ 분열연습 및 검열 강화

군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단체정신과 Team-work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일 일과후 자율적으로 분열 연습을 하도록 하였고, 2주 1회에 걸쳐 분열 검열을 실시하였다. 분열 검열시에는 전 교육생들이 집합한 가운데 대대장이 직접 검열을 실시하며, 복장 및 용모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수준이 저조한 제대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훈련 목적 및 의의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교육에 대한 불만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그 결과 방공포병학교에서 월 1회 실시하는 국기게양식 분열에서, 총 12개 제대중 당 대대 교육생이 3회에 걸쳐 우수제대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④ 방공포병 상징표어 부착 및 구호제창

방공포병을 상징할 수 있고, 장병들에게 자긍심과 일체감을 심어줄 수 있는 구호를 선정하여 연병장, 막시주변, 학과장 등 장병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각종 집합, 점호, 학과 출장시마다 반복하여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교육으로 방공인이라는 생각과 방공포병 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대에서 제정 사용하고 있는 주요 구호는 다음과 같다.

- 우리는 공군 유일의 전투병이다!
- 우리는 하나 영원한 공군 방공포병!
-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똘똘 뭉친다!
- 적기는 내손안에 무적의 방공포병!

⑤ 입과 기수문제 제정립

장병 상호간 상경하에의 정신과 방공포병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해당연도 뒤에 기수를 부여하는 차수(次數) 방식에서 일괄적으로 기수(基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예를들면 94-4차

병이라 부르던 것을 방공 98기로 통합하므로써, 기존의 사관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처럼 역사와 전통, 전우애를 배양하도록 노력하였다.

⑥ 체력증목의 변경시행

전투체육을 비롯한 각종 체력단련 시간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한편, 이들 시간에는 개인운동을 지양하며 집단축구, 줄다리기, 기마전, 깃봉쓰러뜨리기 등 단체의식과 동료애를 주입하고, 방공포병의 근성과 기질을 심어주도록 하였다. 특히 운동시에는 강도 높은 팀워크와 가급적 체력소모가 많이 요구되는 증목을 선택하므로써, 군인으로서 유사시 생존능력과 인내력 배양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2) 자율적인 병영생활 및 실무능력 부여

① 실무부대 소개 및 체험교육

장차 실무부대 Site에서 전투요원으로 임무를 수행할 교육생들에게 실무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 장병들을 부대로 초청하여, 실무부대 생활에 대하여 소개하고 군 생활 체험담을 들려주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실무부대에 배치되기 이전에 방공포병의 중요성과 군 생활의 보람에 대하여 사전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방공포병 특기 분류 직후에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방공포병사령부 예하 포대를 대상으로 실무부대 견습교육을 1주 동안에 걸쳐 실시하므로써, 직접 체험에 의한 교육 성과를 제고토록 배려하고 있다.

② 지휘통솔 능력 부여

장교로서 품위에 걸맞는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결코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자신의 노력과 함께 주변에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당 대대에서

는 전 과정의 교육생들에게 순번제로 당직사관 임무를 부여하여 동료들을 대상으로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게되면 수료시까지의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1회 이상 연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수료 직전에는 초급장교들에게 병사들을 대상으로 화생방, 제식훈련, 사격술 등의 기본 군사훈련을 지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 실무부대에서의 장병 통솔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③ 자습분위기 및 교육 여건 조성

아무리 방공혼이 잘 주입되고 체력적으로 강한 장병이라 할지라도, 방공포병 특기로서 이에 걸맞는 전투임무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당 대대에서는 성적이 저조한 교육생들에게 만회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한 교육생들에게는 보다 나은 자기관리 및 임무수행 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연등실을 지정·운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교관으로 하여금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 성적이 저조한 과목에 대해서는 보충교육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④ 금연활동 강화 및 복지시설 이용 통제

인내력과 신체적 건강, 쾌적한 내무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간동안 금연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특별 내무교육이 실시되는 입과 후 1주동안은 일체 흡연을 허용치 않고 있다. 또한 금연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흡연과 건강의 관계를 다룬 VTR 테이프를 시청하고 금연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특별 내무교육 기간동안 전화, BX, 우체국 등 제반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을 전면 통제하므로써, 인내와 절제력 배양에도 관심을 기

울였다. 이러한 통제는 비록 초기에는 다소간의 불편함이 없지않으나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대다수의 교육생들로부터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⑤ 점호 프로그램 개선 시행

비교적 짝 짜여진 훈육일정에 다소나마 부드러운 분위기를 제공하고, 건전한 윤리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점호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였다. 주된 특징은 첫 외박 또는 면회시 부모, 형제, 친구, 애인, 교관으로부터 교육생에게 전하는 바램의 메시지를 받아, 이를 녹음 테이프로 제작하여 취침 직전에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선된 프로그램은 과거의 일반적인 점호 프로그램보다 교육생들의 정서함양과 올바른 복무 자세 확립,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표3 참조)

(표3) 개선된 점호 프로그램

시 간	주 요 내 용
21:00~21:30	9시 뉴스 시청 및 내무반 청소
21:30~21:50	건전가요 제창(군가 포함)
21:50~22:00	취침준비,바램의 메시지 전달 (부모,형제,애인,친구,교관 등)
22:00~22:15	국방부 제작 명상방송 및 신세대 가요 방송

바. 훈육성과

방공포병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서 방공포병학교에 입과한 교육생들이 짧게는 4주, 길게는 14주 동안의 특기교육을 거치면서 모두가 하나같이 느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처음 가졌던 방공 특기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너나 할 것없이 방공포병인으로서의 공감대를 느끼고 수료한다는 점이다. 즉, 처음 입과할 때 느꼈던 참담한 현실과 Site 근무에 대한 두려움, 육군 문

화속에서의 공포감 등과는 달리 임무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열심히 해 보겠다'는 당찬 각오로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생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훈육에 땀흘린 보람을 찾음이고, 또한 방공훈(防空魂) 주입 교육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당 대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훈육 프로그램중 비교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 내무교육 및 산악행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보면, 먼저 특별 내무교육에 대해서는 '인내력과 자신감 그리고 단결심을 배양하고, 방공포병으로서 새출발의 계기가 되었으며, 자신이 군인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내용 등 84.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기본군사훈련의 연장에 불과, 방공포병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다음날 수업에 지장 초래' 등의 부정적 반응이 15%를 차지했다.

완전군장 산악행군에 대해서는 '방공포병은 하나라는 인식과 공군내 전투병과라는 자부심, 인내력, 자신감, 참 군인의 모습을 발견' 등 95.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4.5%의 장병이 '위험하고 힘들다, 행군시간 부족, 환자 조치요망'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행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방공포병 특기를 장병들이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특기가 아닌, 가장 선호하는 특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3. 맺음말

도전적이고 창조적이면서 분명한 자기표현과, 이기적이며 인내력과 체력이 약한 신세대 장병들을 국가와 군이 요구하는 정예 방공포병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성세대의 긍정적 수용자세와 함께 고정관념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의식적인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새로운 교육훈련 및 훈육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도공이 그의 땀과 혼을 다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이, 그리고 대장장이가 쓸모없는 고철을 고열로 녹이고 담금질하여 유용한 연장을 만드는 것과 같이, 강인한 훈련과 거기에 숨어있는 땀과 눈물, 그리고 모진 고통과 시련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강인한 방공포병', '방공포병의 혼과 기가 살아있는 방공전투원 육성'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방공포병의 혼과 기가 살아있는 도자기, 그러한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공포병인 모두에게 도공과 대장장이의 정신이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훈련과 정성이 담긴 훈육활동, 가정과 같은 내무반, 그리고 방공포병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고 집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노력은 학생대대만의 몫이라는 차원을 넘어, 방공포병학교와 방공포병사령부, 그리고 공군 가족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어야 한다.

이와같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하나로 모여질 때 국가와 민족, 그리고 공군이 요구하는 임전필승의 정예 강군은 길러질 수 있으며, 방공포병 또한 여기에 일조하는 특기로서 그 명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등관**

비행단 근거리 전산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정 상 수

소령/제16전투비행단 전산과



I. 머리말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초고속 국가 통신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2015년까지 4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통한 선진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mmunication 및 Network 분야의 Infra-structure 구축은 국가간, 지역간 모든 경제·사회·문화의 교류와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실현할 것이다.

C&C(Computer & Communication) 즉,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사회 각 부분의 생활양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영상 회의, 영상 진단, 전자 우편, 홈쇼핑, 홈뱅킹, 원격 교육, 전자신문, VOD(Video On Demand) 등 각종 미래 생활수단이 광역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기반 위에서 가능하게 되는 정보화의 사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서는 전투력 평가요소 중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군의 정보 체계 기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 C³I 및 국방 종합 정보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공군에서도 비행단 통합 정보체계 구축의 선행 단계로 비행단 근거리 전산망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6비행단은 비행단 시범부대로서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기지 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근거리 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비행단 통합 정보관리 체계 구축 및 C³I, 전투 정보 지원, 통합 군수 등 다양한 정보처리 체계를 수용하기 위한 기반 체계 구축으로, 비행단 LAN활성화를 위해 제16전투비행단이 그 동안 실시해 온 모든 활동들을 본지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차후 비행단 LAN 구축 및 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Ⅱ. 비행단 근거리 전산망 구성

1. Switching LAN

Switching은 공동의 매체를 나누어 쓰는 개념인 다중 매체 접속과는 다르게, 두 통신 당사자들에게 독립적인 통신 매체의 사용을 보장하는 방법이며 Packet switching이나 circuit switching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기법이 가능하게 된 것은 HUB의 등장인데 HUB는 분산된 형태의 케이블링 방법을 유지와 운영, 보수 등의 편의를 위해 중심점이 있는 케이블링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HUB의 등장은 Switching LAN의 등장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종전의 LAN은 대량의 파일 전송이나 멀티미디어 통신 때 발생하는 traffic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세그먼트의 세분, 브리지의 사용으로 packet의 확산을 막아주는 기법을 사용했지만 더이상의 성능 향상은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반면 Switching LAN은 Bridge/Router의 수를 감소시켜 성능향상과 Network관리를 쉽게 해줄 수 있게 한다.

(1) Ethernet Switching

Ethernet에서 성능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은 Ethernet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체 접근 제어 protocol인 CSMA/CD(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detection)가 packet 방송 방식에 의존하므로 동시에 packet의 충돌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Ethernet switching에서는 HUB나 switch가 packet의 주소를 보고 그 packet의 수신자의 port에만 packet을 보내는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station들은 쓸데없이 남의

packet을 수신하지 않게 되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즉 Ethernet switching에서는 송신 part와 수신 port사이에 가상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마치 전화에서나 같이 두사람 사이에서만 통신이 이루어 지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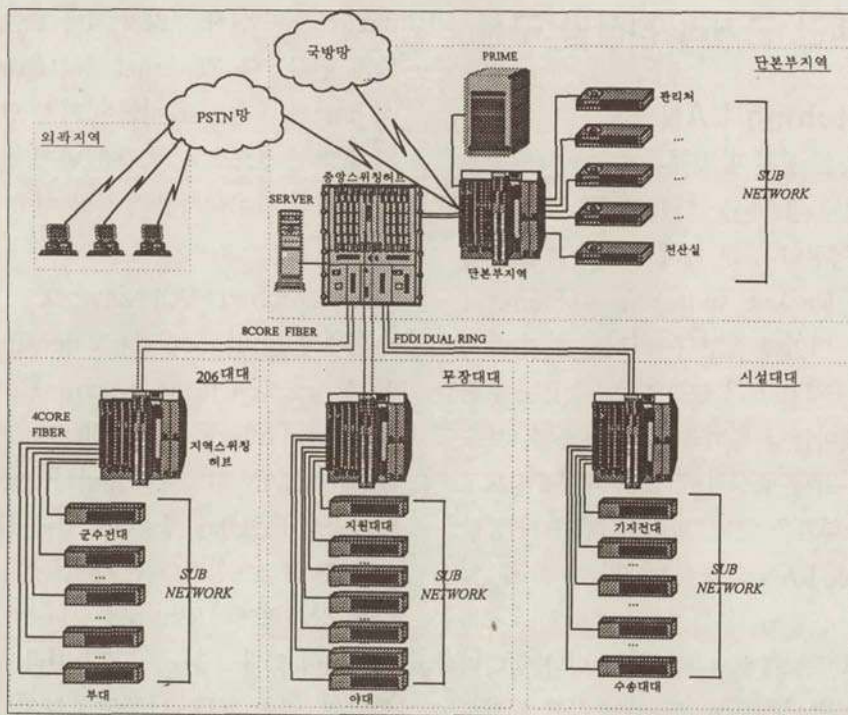
(2) Switched FDDI Network

현재의 Multimedia나 Video/Imaging과 같은 고성능의 Client/Server Computing과 Network Intensive Application들은, 기존의 Shared LAN 기술력이 제공하여 왔던 성능이나 나아가서 FDDI가 제공하여 왔던 성능보다도 더욱 빠른 응답시간과 넓은 대역폭을 요구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Shared-access 100Mbps는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6전투비행단의 백본 FDDI는 고성능의 Switching Technology를 적용한 것으로서, 100Mbps의 단일 Ring이 아닌 Switched FDDI Network을 구성하고 있다.

2. LAN 구성도

당비행단 근거리 전산망은 1개의 중앙스위칭 장비와 4개의 지역스위칭 장비에 의해 FDDI LAN Switching이 이루어지며, 각각의 지역스위칭 장비를 중심으로 한 Subnetworking이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중앙스위칭 장비와 지역스위칭 장비간의 FDDI Backbone상의 불필요한 traffic의 증가를 방지하고 100Mbps의 선로를 보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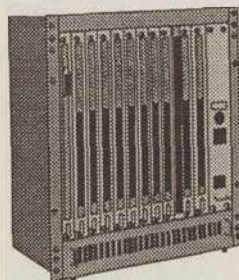
컴퓨터의 보급 및 Network 구성의 확대로 인해 하나의 컴퓨터가 모든 처리를 담당하던 시대에서 중요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서버에 저장하여, Network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 LAN 구성도

Client들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Client-Server 컴퓨팅 추세로 이어짐에 따라 중앙스위칭 장비에 인사, 작전, 군수 및 사무자동화용 서버들을 연결 운용함으로써 각각의 스위칭 장비에서 로그인하여 들어오는 사용자들에게 고속선로를 보장하여 병목현상을 없앨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중앙 스위칭 장비에서 각 지역 스위칭 장비간에서 8core 광케이블에 의한 FDDI Dual Ring을 구성함으로써, 회선 장애 발생시 여유 core(4core)를 Backup Line으로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써 fault tolerance를 향상시켰다.



- 장비명 : GIGAswitch/ FDDI
- Module : 2-DAS FDDI CARD * 3
 : 4-SAS FDDI CARD * 1
- Crossbar switch throughput : 3.6 GBPS
- 6.25 million/pps
- virtual LAN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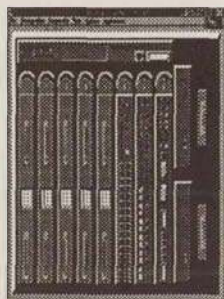
3. LAN 구성장비

(1) 중앙 스위칭 허브

중앙 스위칭 장비는 FDDI 스위칭 장비로서 최대 초당 6.25 million connection의 성능을 제공하며, 3.6 Gbps switching의 성능으로 향

후 확장이나 ATM Migration시에 충분한 성능을 발휘한다.

(2) 지역 스위칭 허브



- DEC 900 Multi Switching HUB
- Module:DEC 900 EF : 1DAS FDDI : 6 ETHERNET
- DEC 900 FP : 12 10BASE-F
- DEC 900 TS : 32 10BASE-T : 1 10BASE-5
- backplane bandwidth : 3.0Gbps
- 400 Mbps flexible Channel
- virtual LAN 지원

지역스위칭 장비구성은 위와 같으며 중앙스위칭 장비와 백본으로 연결 가능하게 하는 DEC900EF 1개 모듈과, 각대대 사무실 허브장치(90TS)와 접속시켜 주는 DEC900FP 1개 모듈 및 지역스위칭 장비내에서 Ethernet을 지원해 줄 수 있는 DEC900TS 1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3) 지능형 허브

DEC repeart 90TS



- ThinWire Coaxial port : 1
- Twisted pair port : 8

DEC repeart 90TS 는 각 대대 사무실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10BASE-T 호환의 repeater로서 PC, Workstation 또는 어떠한 10BASE-T 장비들을 LAN에 연결할 수 있다.

(4) 원격 LAN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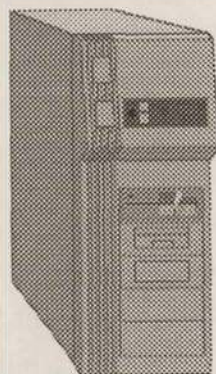
DEC server 90M



- PORT:8MJ8/RJ-45-style : 1 UTP Backbone
- 1 Thin Wire

DEC server 90M은 NetRider S/W를 통해 IPX, TCP/IP Protocol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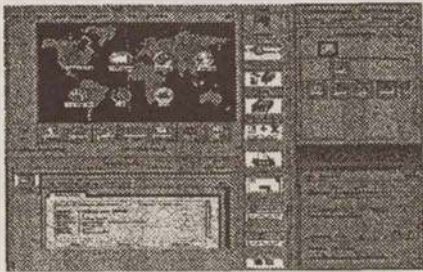
(5) FILE SERVER



- 장비명 : PRIORIS HX SERVER
- PENTIUM 90MHZ
- MEMORY : 64M
- OPTICAL DISK : 1GB
- HDD : 4GB (SCSI)
- CD-ROM DRIVE
- DAT DRIVE
- 14" COLOR MONITOR
- NOS:NOVELL NETWARE V4.1(250 USER)

현재 당비행단에서 설치되어 있는 파일서버는 사무자동화 시스템 서버로서 1GB 광디스크 1대와 최대 30GB까지 확장할 수 있는 HDD드라이버, 2GB의 카트리지 테이프디바이스인 DAT DRIVER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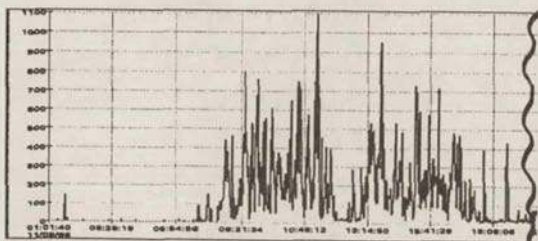
(6)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장비명 : DIGITAL ALPHA 200
 MEMORY : 96 MBYTE
 DISK : 2 GBYTE
 MONITOR : 21"

NMS의 Polycenter Netview, Hubwatch 등을 통해 Network 구성관리와 최 하위 노드까지 Network 장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애 관리, 일정기간 동안의 Traffic량의 분석을 통하여 Traffic을 분산 가능하게 하는 성능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위 그림은 NMS의 주화면이며 아래 그림은 하루동안 발생한 Packet Traffic량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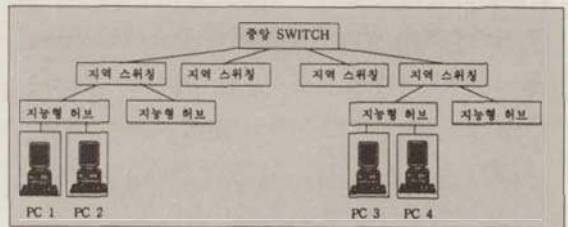


4. 가상 LAN 구현

가상 LAN (Virtual LAN)이란 Host(예 : 파일 서버)나 Network Device(예 : DEC 90TS)들이 자신의 물리적 위치 (Physical Location)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방송영역 (Broadcast Domain)을 갖도록 하나로 묶은 집합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장비들이 서로 Packet 교환시 중앙 라우터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Connection Setup Time이 감소되며 데이터 전송속도가 빨라져 네트워크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가상 LAN 구현방법에는 업무별 가상 LAN 구성, 지역별 가상 LAN 구성, 그리고 두개를 종합한 가상 LAN 구성이 있다.

가. 업무별 LAN 구성

각 업무에 따라 하나의 Segment로 구성하여 Traffic량 조절



PC1과 PC3는 같은 업무를 하는 PC이므로 하나의 가상 LAN (VLAN 1)에 묶고, PC2와 PC4는 묶는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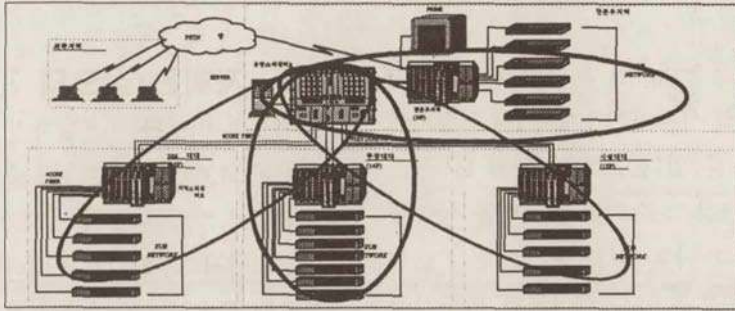
나. 지역별 가상 LAN 구성

각 지역별로 가상 LAN을 구성하여 Traffic량 조절

VLAN 1 → PC1과 PC2

VLAN 2 → PC3과 PC4

※ 상기 사항을 둘 다 지원하며, 혼용하여 다음의 구성으로 가상 LAN 구성



Ⅲ. 근거리 전산망 구축시 사전 고려 사항

1. 광케이블 매설

토목공사는 LAN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비행단 지역 스위칭 장비간의 백본(backbone) 구성을 위한 케이블 매설 작업과, 각 지역 스위칭 장비에서 각 사무실간의 광케이블 매설을 위한 터파기 작업이 어려웠다. 다행히 토목공사는 16비 통신망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으나, 통신 케이블 매설 공사가 동절기로 인한 작업 연기로 1개월 가량 지연되었으며, '96년 2월 26일 근거리 전산망 사업 설명회 및 현장 사무실을 개설하여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애로 사항이 발생했다.

(1) LAN 배관 미반영

단본부 청사 맨홀에서 단본부 앞 사거리까지 76미터 구간 LAN배관이 반영되지 않아, 3월25일 터파기 작업을 실시하여 6PVC(100m) 증설 완료하였다.

(2) 맨홀내 관로 미반영

단본부에서 시설대대와 무장대대 지역에 설치될 지역 스위칭 장비 설치 구간까지 관로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96년 3월 26일 통신대대와 통신관로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한다음, 이 지역까지 통신선로를 위한 100mm PVC중

36mm 배관을 사용하여 작업을 완료하였다.

(3) 통신케이블 공사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한 LAN 케이블 매설 애로

지역 스위칭 장비에서 각 대대 건물까지는 광케이블로 연결되었으나 각 대대건물에서 떨어져 있는 산재 건물(예 : 202 행정계, 헌병행정계)은 UTP cable을 매설해야 했으며, 이곳은 통신케이블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대 건물 HUB에서 100M 이내 구간은 인력에 의한 터파기로 Flexible 및 스틸 배관을 사용하여 매설 완료하였다.

2. 사무실내 UTP 케이블 포설 작업

사무실에서의 LAN케이블은 스틸 배관으로 보호해야만 UTP케이블의 절단 또는 도청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구형 건물일 경우 천장에 Tex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보안 관계상 스틸 배관으로 사무실 간 연결하였으며, 또한 각 사무실 벽면에 LAN 접속을 위해 outlet Box를 설치할 경우 port수를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하여야만 향후 PC보급이 확대될 때 LAN접속이 용이 할 것이다.

3. 사용자 증가에 따른 충분한 HUB의 확보

HUB란 광케이블이 지역 스위칭 장비에서 대대 건물까지 연결되어 그곳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LAN을 접속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로서, 1개

의 HUB장비는 통상 8port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최대 8명의 사용자가 1개의 HUB장비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HUB소요량 산출시 port를 기준으로 소요량을 산출했을 경우, LAN구축 이후 HUB를 설치하다 보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반드시 1개의 사무실에 8명씩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립된 건물 내에 1~2명의 사용자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요를 산출해야 할 것이다.

4. 행정 종합 시스템 운영 절차 확립

비행단 근거리 전산망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지휘부를 중심으로 최 말단 행정부서까지 LAN 케이블이 설치되어 문서의 송수신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공군본부에서 사용하던 행정종합 OA 시스템을 비행단에서도 적용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초 운영 주관부서의 운영미숙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정상운영이전 사용자교육과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였다는 점과 짧은 시일내에 정상적 운영을 위해 지휘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시험운영 기간동안 단장은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각종 지시사항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보고토록 함으로써 LAN 운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월간 지휘관 참모회의시 회의실 대형 화면에 행정종합 OA 시스템을 띄워놓고 무작위로 지휘관·참모들에게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과 1개월 안에 정상적인 수준까지 LAN 이용률을 높였다.

IV. LAN 활성화 방안

1. 지휘관/참모의 관심

정보화 비행단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휘관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주무부서에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예하 지휘관 및 참모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정보화의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당 비행단에서는 단장의 각별한 관심과 강력한 실천 의지로 인해 전 비행단 지휘관/참모가 현재 컴퓨터 교육에 열심이며, 특히 행정 종합 시스템의 설치로 인해 모든 지시사항을 전자우편을 통해 지시하며 주간, 월간 지휘관 참모 회의시 대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행정 종합 시스템 화면을 띄워 놓고 제비뽑기를 통해 선정된 지휘관/참모는 직접 모니터 앞에 앉아 행정 종합 시스템 내의 전자우편 작성 요령과 문서 결재 및 각종 정보검색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불과 2개월만에 전 비행단 요원이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을 기억해 보면 정보화의 최우선 조건은 지휘관의 강력한 실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2. 컴퓨터 동호회 구성

LAN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비행단 전 장병 및 군무원의 컴퓨터 마인더의 확산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비행단 구성원 개개인이 컴퓨터에 대해 문외한(컴맹)이라면 비행단의 정보화는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 비행단에서는 비행단 전 장병 및 군무원에 대한 컴퓨터 마인더 확산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전산 교육이라 판단하고 지속적인 전산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96년 2월 26일 LAN사업 설명회를 가진 이후, LAN 기본 및 행정 종합 시스템 운용법에 대한 행정 실무자 1차 교육과 TCP/IP(Transmissoi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및 문서 작성에 관한 행정 실무자 2차교육, 그리고 비행단 컴퓨터 경연 대회를 위한 사전 교육으로 아래 한글, 파워 포인트, 한글 엑셀에 대해 부대별 전산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산 교육을 위해 상설 전산교육장을 확대 운영 할 계획이며 실습 장비 및 교육 기자재의 확보로 장병 및 군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전산 교육은 물론, 부대 인근 지역에 컴퓨터 학원의 부재로 인한 군 자녀 전산 교육 및 군 가족에 대해 컴퓨터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기지 중심의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산 교관 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당 비행단에서는 판단하였고, 그 결과 전산 교관요원 확보 및 비행단 정보화 요원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단장은 컴퓨터 동호회 구성을 지시하여, LAN을 통해 동호인 구성을 완료하였다. 현재까지 컴퓨터 관련학과를 졸업한 장·사병 및 전산에 관심이 있는 하사관 및 군무원을 포함 총 23명이 향후 동호회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차적인 모임을 가졌다. 컴퓨터 동호회의 또다른 역할은 비행단 정보화를 이끌 핵심 요원이라는 점과, 이들을 통해 사무 자동화 및 LAN운업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비행단 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3. 기지 전산실 인력 보강

비행단 전산실은 '96년 10월 장교 3, 하사관 3, 병 5명의 운영체제에서 Prime 주장비 도입되어 운영되다가 '95년이후 장교 2, 하사관 2(단기 하사 1명 포함), 병 5명으로 작전, 인사, 보급 등 총 11개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당 비행단은

현재 기지 근거리 전산망 시범 부대로 선전되어 LAN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 외에 공본에서 운영하던 행정 종합 시스템의 운영과 LAN상에서 packet량의 증가에 따른 성능관리 및 장애관리를 할 수 있는 Network 관리 장비인 NMS(Network Management System)관리와 LAN port의 이전 및 추가 소요에 대한 관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 향후 비행단 통합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2000년에는 전산실 운영 인원 부족이 예상되는 바, 비행단 근거리 전산망 구축과 연계하여 전산 운영 요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된다.

V. 결 론

이상과 같이 비행단 근거리 전산망 구축 시범 비행단으로서 그 동안 전산망 구축시 사전 고려 사항들과 LAN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비행단 전지역에 대한 LAN의 구축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만약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LAN 활성화에 무관심하다면 이는 크나큰 예산 낭비이며 문명의 이기(利器)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LAN의 활성화에 최우선은 지휘관의 강력한 실천 의지이며 또한 정보화를 이룩할 수 있는 제반 전산 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비행단 전산실 운영에 의한 정보화는 이전 한계에 도달했으며, LAN의 구축과 함께 사무용 PC의 추가 확보와 LAN운영 요원에 대한 추가 확보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공군**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하여

박 종 원

대위/공군본부 의무감실



저녁에 식사를 하다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심장수술을 받았다는 뉴스를 듣고는 러시아 대통령쯤 되니까 굳이 싫다는데, 미국과 독일의 심장전문의가 다국적으로 참가하여 수술을 받았지 내가 그런 경우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이 이것 저것 챙겨주는 아내가 있어서 조금의 위안이 되지만, 그나마 혼자인 사람은 생명보험에 들어둔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몸을 가꿀 수밖에 없다. 몸을 가꾼다는 의미는 아놀드 슈왈츠체네거처럼 되어 못여자들의 시선을 끌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이없게 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선 자기 몸에 맞는 의학지식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추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대중매체에서 건강에 관련된 세미나나 인터뷰를 제공하지만, 얼마나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지나 않는지 걱정이 된다.

예전에 재미난 외국기사가 신문의 토픽란에 실렸었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어떤 사람이 단돈 만원에 건강한 몸을 만들어 주는 물건이 있다는 광고를 그럴듯하게 내고는 수천명의 사람들로 부터 돈을 챙겼다. 잔뜩 기대한 물건은 싸구려 줄 넘기였고 분통이 터진 구매자들이 그 사람을 법원에 고소한 사건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물건을 판 사람이 무죄로 풀려났다는 것이다. 법적용이 맞는지 틀린지는 우선 접어두고 소비자들의 허망한 심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남의 일같지 않다. 가장 돈 안들고 쉬운 방법을 놔두고 잘못된 상식에 건강을 맡기는 것같아 안타깝다. 우선 단번에 건강해져야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추운날 씨라도 밖에 나가서 움직이고 볼 일이다.

겨울이라고 해서 운동을 못할 것도 없고 주눅 들 필요도 없다. 다만 춘하추동이 분명한 우리나라에서 겨울과 여름에 걸리는 질병의 종류도 차이가 나고, 신체가 상이한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도 다르므로 얼마간의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

다. 그 중에서 겨울철 문제가 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과 추운 환경과의 관계, 야외활동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저체온증과 겨울철 건강관리에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감기와 독감 등 몇 가지를 살펴보자.

흔히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 뇌졸중이나 고혈압, 심근경색증 등은 단독으로도 생겨나지만 한 질환이 다른 질환의 발생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다. 심장을 수도펌프로 생각하고 몸속에 퍼져있는 혈관을 수도관에다 비유해 보자.(물론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지만……) 수도관의 노화가 일어나고 흐르는 물의 질도 좋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펌프나 수도관에 이상이 생긴다. 이물질이 수도관에 달라붙은 경우를 의학적으로는 동맥경화증이라고 하고, 수도관의 압력이 높아진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한다. 이때는 심장이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수도관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부하가 많이 걸린상태이다. 수도관을 청소하거나 교체해주지 못한 경우, 평상시 강한 펌프를 준비해두지 못한 경우엔 수도관이나 펌프 중 하나가 고장날 수 밖에 없다. 심장이 계속 높은 혈압을 유지해야 할 경우는 협심증을 유발하게 되고, 정도가 심해지면 심장마비(심근경색증)도 생길 수 있다. 계속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중요한 장기가 높은 압력에 견디지 못해 망가지게 되는데, 흔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예에 속한다.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삼대요인으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고혈압을 들 수 있다. 백해무익한 흡연이라고 하지만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흡연을 할 때 혈압이 상승하는 기전은 물론 말초혈관의 수축으로 인한 것이다. 이때 기존의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상당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추운 날씨에 노출된 경우는 수축된 말초혈관이 더욱 혈압을 증가시키는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흡연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정신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동안 신체는 그 멍에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신체를 조금씩 죽여가면서 대신 반대급부로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너무 직설적인 소리라 할 수도 있지만, 흡연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안주거리임을 기억해야겠다.

언젠가 어렸을 적에 TV에서 방송한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재치있고 감동적이었다고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 밖에서 얼어 죽어가던 나그네를 혼자서 살던 과부가 발견하고 집에 데리고 들어와 맨몸으로 체온을 높여주어 회생시킨다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한 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에 내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또 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저체온증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27.5℃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보통 우리 몸은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고 활동을 하면 몸에서 발열이 되므로 웬만해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지만, 술에 취해서 노숙을 한 다든지 집이 없는 행려병자들한테서는 저체온증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항상 겨울철에만 저체온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의식이 자의든 타의든 저하된 상태에서는 10℃ 정도의 온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 야외활동을 하다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단독으로 등산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걸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조난을 당한

경우에 저체온증에 빠져 사망할 수가 있다. 동계 등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산꼭대기의 온도가 평지보다 훨씬 더 낮고, 심한 바람과 젖은 내의로 인해 체온의 급속한 손실이 일어나므로 방한복과 여벌의 옷과 에너지원으로 쓸 비상식량을 휴대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만일에 등산을 갔다가 또는 외지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흔들어 보니 의식이 혼미하고 몸이 차가웠다. 이때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자. 대개 체온이 떨어지면 의식 역시 희미해져 자극을 가하여도 반응이 느려지게 된다. 만일에 의식이 어느 정도 있고 몸을 계속 떨고 있다면, 체내 발열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하면 된다. 먼저 젖어있는 옷을 모두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 입힌 후, 알루미늄 깔개나 담요를 몸아래에 넣어서 지면과의 접촉으로 인한 체온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음식이나 데운 물을 자주 먹이는 게 좋다. 위의 조치를 취하면서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심부의 온도를 빨리 올리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호흡기능과 심장박동이 있다면 큰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목주변 좌우, 낭심부 좌우, 겨드랑이 좌우)에 따뜻한 물주머니나 따근한 돌, 물통을 갖다대어 체온을 올려주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급하다고 아주 뜨거운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의식이 없는 경우엔 음식이나 물을 먹여서도 안되는 데 잘못하면 기도로 들어가 생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체온이 떨어지면 대사기능도 저하되어 신체가 필요한 산소가 적어져서, 아주 느린 호흡과 심장박동만으로도 생존할 수가 있으므로 희망을 버려서는 안된다. 신체를 마사지하면 얼어있던 조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느리게 뛰고 있

는 심장은 외부자극에 아주 민감해져 있어, 멧모르고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면 부정맥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바깥 체온만 올리게 되면 수축된 말초혈관에 있던 산성 피가 이완된 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왜 저체온증이 심한 경우 맨몸으로 체온을 올리는 일이 최선이 아닌지 설명이 되는 것이다. 심부온도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바깥 체온을 올려도 소용이 없다. 저체온증에 우선 빠지지 않도록 신체를 잘 관리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술자리를 같이한 사람이 고주망태로 집에 가겠다고 우기면,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친구를 위하고 주도를 따르는 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처럼 혼자서 살 수 없다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모여산다는 게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나 독감 이외에도 사람으로부터 직접 옮겨오는 병이 기승을 부린다.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경우는 감기나 독감에 걸린 사람의 체액이 묻은 물건을 만지거나, 아니면 공기중에 떠도는 바이러스 입자 자체를 직접 흡입하여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 감기나 독감에 걸린 경우는 의례껏 약으로 대응하려는 심리가 강한 것 같다. 감기의 주원인은 바이러스이고, 그 종류만해도 200여 가지가 넘는다. 이외에도 바이러스는 소아마비나 바이러스성 폐렴, 독감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약은 몇 가지 없으며, 특정질환을 제외하고는 흔히 사용되지 않는다. 감기나 독감에 걸린 사람이 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바이러스 퇴치용이 아니라, 증상을 덜어주고 감기나 독감으로 인한 이차적인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뚜렷한 이유없이 항생제를 복용해서는 안되고, 복용을 하게되면

신체내의 세균총 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우리 몸에는 유익한 세균이 나쁜 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데, 항생제를 장기 복용할 경우 두 세균총 간의 균형이 무너져 유해한 세균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세균에 대한 내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감기나 독감에 의한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감기가 걸렸을 때 일치감치 침대로 가서 쉬어야 하는 지는 우리 몸이 결정할 문제다. 우선 에너지 소모에 맞게 피로하다면 쉬는 게 당연하다. 다음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21 정도의 양인데 2시간마다 주스 한 잔씩 마시는 양이 된다. 근육통이나 두통, 열이 있는 경우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도움이 되는데, 19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치명적인 부작용(라이 증후군)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목이 아플 경우 가슴기를 틀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어른일 경우는 담배를 피지 않는 게 좋다. 전에 사다둔 항생제가 굴러 다닌다고 아까와 먹어버리는 일은 없어야겠다.

감기나 독감을 자력으로 이기려면 아픈 증상이 나타날 때, 몸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기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사용하는 행위는 현명하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전문가쯤되면 감기단계에서 독감으로 가기 전에 진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증상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 증상은 상당히 애매하고 독감과 감기를 구분하는 데는 임의적인

요소가 많다. 원인이 뭐든 간에 동일하게 접근하는 게 좋다. 근육통이 있고 열이 나는 것 같으면 체내세포에서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인터페론을 생산하고 있다는 뜻이며, 바이러스에 휩쓸리지 않게 신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감염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어 근육통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약을 먹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열거하였는데, 음식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일찍 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콧물, 인후통, 전신근육통 등의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나면 감기증상으로 고생하는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 신체를 보호하는 게 좋다. 피곤하다고 느끼면 일찍 자리에 누워 책을 읽는 게 좋다.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여야 하는데, 이때는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활발히 전파시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 동안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하면, 감기로 고생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용량이 지나치더라도 잉여량은 곧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해하지는 않다. 평소에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경우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감기라고 우습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자기 몸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든 노인이나 소아는 감기나 독감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다른 병이 잘 생기므로 주의를 요한다. 독감 예방주사는 독감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불완전하게, 또는 완전하게 면역을 획득할 수 있지만 새로 유행하는 것이라면 도움이 안된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하는 신체부위로서는 추운 환경에 노출되어 손상받기 쉬운 손,

발이나 코, 귀를 들 수 있다. 조직이 얼어서 손상을 받는 게 동상인데, 요즘은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지 동상을 거의 볼 수 없지만 군대에서 가끔 볼 수 있다. 특히 경계근무를 서는 경우라든지 물에 젖은 상태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흔하게 생긴다. 동상은 조직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표피만 손상된 경우는 천재성 동상으로 부르고, 심부조직까지 손상을 받은 경우는 심재성 동상이라고 한다. 우선 조직이 얼게 되면 피부가 흰 빛을 띄고 감각이 없어진다. 심재성 동상인 경우엔 근육과 뼈까지 손상받으며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부만 언 경우는 치료자의 가슴이나 배, 겨드랑이에 갖다대어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심부까지 언 경우엔 특별한 가온요법이 필요하며 우선 동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저체온증과 함께 동상이 있는 경우는 우선순위를 저체온증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조직이 언 경우 손이나 타올로 마사지를 하면 얼음결정에 의해 조직손상이 더 크게 일어나므로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재성 동상의 치료법은 우선 40℃정도의 온수에 담구어 조직의 손상을 막는 것인데, 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심부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조직이 다시 얼게 되어 손상이 커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아주 추운 날씨엔 맨손으로 금속물체를 잡으면 안되는데, 손에 있는 습기가 얼게되어 표피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 반드시 장갑을 끼고 만져야 한다. 또 증발성이 강한 액화 가스 역시, 피부에 닿으면 증발하면서 순식간에 온도를 끌어내려 동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조직이 얼어야 손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얼지 않아도 손상받을 수 있는데, 추운 환

경에서 발을 젖은 상태로 오래두면 생기는 참호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젖은 상태에서는 열전도가 마른 경우보다 25배정도 크므로 단시간내에 체온의 손실이 일어나며,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 서있는 경우는 혈류공급도 원활하지 못해서 더욱 상황을 나쁘게 한다. 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과정은 혈관이 수축되면서 조직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런 상태가 6시간 이상 경과되면 영구적인 조직손상을 일으킨다. 우선 참호족에 걸린 경우 발을 조심스럽게 씻고 따뜻하게 한 후, 발의 위치를 자기 몸보다 조금 높게 한다. 참호족은 동상과 달라 걸으면 더욱 손상을 받으므로 걸지않도록 한다.

요즘은 안경을 써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지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안경을 끼면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아니면 TV만 열심히 본 농땡이로 보곤했다. 이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서, 해수욕장이나 스키장에서는 의례 썬그라스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몇까지 부린다. 여름철 해수욕장보다는 겨울철 스키장에서 썬그라스를 끼는 게 좋은 이유는, 내린 눈이 상당한 양의 햇빛을 반사하고 그 중에서 각막을 상하게 하는 자외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안경을 쓰는 게 불편하다고 맨눈으로 장시간 스키를 타는 경우에 각막염으로 상당한 고생을 하게 된다. 비록 촌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을 지언정 구식의 안경이라도 끼고 볼 일이다.

겨울철에 관심을 쏟아야 할 몇 가지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한 마음을 갖지않고 차근차근 몸을 단련시키는 일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고급의 진리를 떠올려야겠다. **중근**

겨울철 안전운전 및 차량관리 요령



유 희 철
원사/본부사령실 수송대대

겨울철 운전에는 베테랑이 없다. 아무리 스노우 타이어와 체인을 장착했다 하더라도 얼어붙은 빙판길에는 속수무책이다. 처음 겨울을 맞는 초보자에게는 더욱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다. 시동에서 주차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러나, 차분한 마음 가짐으로 절대 과속하지 않고 조심만 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겨울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운전자들이 무사히 겨울을 나기 위한 안전운전 기법 및 차량관리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자.

I. 겨울철 안전운전 기법

1. 신중한 마음가짐

급한 조작은 절대 피하라.

- ① 눈길과 빙판길에서는 절대 급출발을 피하라. (경우에 따라 2단 출발을 한다.)
- ② 급 브레이크를 삼가고, 브레이크는 조금씩 펌

- 핑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라.
- ③ 주행중 급한 핸들 조작을 피하라.
- ④ 체인지 레버를 급하게 조작하지 마라.
- ⑤ 차간 거리를 절대 유지하라.
(평소의 2배 이상)

2. 시동 및 출발요령

시동은 두 번에 나누어 하라.

- ① 시동키를 On 상태에서 Engin check 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린다.
- ② 엑셀레이터를 3~4회 밟아 준다.
- ③ 처음에는 시동키를 3초 정도 돌렸다가 일단 키를 끄고, 잠시후 클러치 페달을 밟고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키를 돌린다.
- ④ 시동이 걸리면 아이들 상태에서 오일순환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거나 출발을 삼가한다. (약 5분 이상)
- ⑤ 출발 전에는 온도메타 및 각종 계기를 확인한 후 오일 순환이 충분히 됐을 때 서서히 가속

하고 출발한다.

3. 언덕길 조작 요령

낮은 기어와 브레이크를 사용하라.

- ① 언덕길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라.
- ②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낮은 기어로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엑셀레이터를 밟아 준다.
- ③ 급가속을 하거나 기어변속은 금물이다.
- ④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은 무척 어렵으니 브레이크 사용은 최대한 삼가하라.
- ⑤ 내리막길은 풋브레이크를 최대한 지양하고 올라갈 때와 같은 기어로 엔진 브레이크로 조심하여 내려 간다.
- ⑥ 내리막길에서도 역시 기어변속은 금물이다.

4. 고속도로 및 곧은길 운전요령

의외의 함정에 유의하라.

- ① 고속도로나 직선 도로에서는 주행시 속도감각을 잊기 쉬우므로, 갑작스런 장애물과 그늘진 곳을 주의하라.
- ② 상대 차량에서의 얼음덩어리가 떨어지거나 얼음조각이 도로상에 굴러다니는 것을 주의하라.
- ③ 눈이 녹았다가 얼어버린 구간은 검게 색깔이 변해 얼른 식별이 되지않아, 속력을 내서 달리던 차가 이러한 상황에 갑자기 부딪혀 반사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꺾게 되면 차량이 돌게 된다.
- ④ 물론 곧게 뻗은 길보다 커브가 많은 길에서 운전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지만, 노면이 부분적으로 얼어있는 겨울철 운전은 의외로 곧은길에 함정이 있다.
- ⑤ 곧게 뻗은 길에선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갖다가

사고를 내게 되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5. 코너링 요령

코너안에서 기어변속은 절대 금물이다.

- ① 군데군데 미처 녹지않은 눈과 얼음이 남아있는 코너에서 기어를 변속해 가속하는 것은 금물이다.
- ② 대부분 운전자들은 슬로인으로 감속한 직후에 기어를 변속하여 가속을 시도하려 한다. 바로 이때 차는 옆 미끄러짐과 제자리를 맴도는 스핀현상이 일어나서 코너밖 또는 안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 ③ 겨울철 가장 안전한 코너링 요령은 슬로우 인 및 슬로우 아웃이다.

6. A/T 차량 운전요령

구동력을 너무 믿지마라.

- ① A/T 차량이 눈길에서 매뉴얼차보다 운전하기 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동력을 믿고 급출발이나 급가속을 하면 바퀴가 헛돌아 차가 돌아 간다.
- ② A/T 차량은 토크 컨버터가 더디게 작동하므로 거기에 맞춰 엑셀 페달을 조절해야 한다.
- ③ 빙판길 D 레인지에 선택한 상태에서 주행 중에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려면 2단이나 L에 선택하여야 하나, 고속에서 단번에 L에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니 2단에서 L순서로 점차 감속한다.

7. 눈길, 빙판길 운전요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 ① 눈길 출발은 눈의 저항으로 굴림바퀴가 헛돌기 때문에 쉽지 않다. 새로 내려 쌓인 눈길은

특히 저항이 크므로 핸들을 꺾지 말고 천천히 출발한다.

- ② 다져져 미끄러운 눈길에서의 출발은 강한 구동력을 피해 2단 기어로 부드럽게 출발한다.
- ③ 출발 때 낮은 기어 1단을 쓰면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바퀴가 헛도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1단에서 출발한 뒤 보통 때보다 훨씬 빨리 2단 기어로 올리면서 엑셀을 천천히 밟으면 차는 2단의 작은 힘으로 부드럽게 가속된다.(때로는 1단 대신 2단 기어로 출발해도 된다.)
- ④ 기어를 넣고 바퀴는 계속도는데 차가 출발할 수 없는 경우 계속 엑셀을 밟다가는 차가 180도 회전한다. 이럴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절반쯤 당겨둔 상태로 기어를 2단에 넣은 다음, 반 클러치를 부드럽게 써가면서 엑셀페달을 약하게 밟으면 된다.

8. 다리, 터널, 산모퉁이 운전요령

뜻밖의 복병을 조심하라.

- ① 왜 눈도 내리지 않은 터널 안에 빙판이 있는가? 산을 깎아 만든 터널 입구는 날이 따스하면 눈이 녹아 물기가 흐르고, 날이 추우면 꿈뽕 얼어붙으므로 조심하라.
- ② 터널속에는 눈이 내리지 않으므로 달리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눈을 문혀 들어온 차들이 떨군 눈이 군데군데 얼어 있으므로 고속으로 달리다가는 뜻밖의 사고를 내게 된다.
- ③ 터널속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더 주고 차선변경이나 추월은 절대 해선 안된다.
- ④ 통풍이 잘 되고 지열을 받지 못하는 다리위는 다른 길에 비해 결빙이 심하다. 특히 서행 및 주의 해야 한다.

- ⑤ 산모퉁이는 그늘진 지역이기 때문에 평지보다 눈이 더디게 녹고 결빙상태도 일정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느닷없이 나타나는 상황에 조심하라. 잠깐의 방심이 위기를 자초한다.

9. 주차요령

출발을 생각하라.

- ① 겨울철에는 눈이 쌓인 길이나 빙판길을 자주 달리게 되므로 차 밑바닥에 자연히 눈이나 물이 튀어 오르게 된다. 이것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붙어 사이드브레이크의 케이블에도 얼음이 달라 붙는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겨울에는 사이드브레이크 작동을 삼가하고 기어를 1단에 넣고 차륜지를 고이는 것도 바람직하다.
- ② 젖은 땅을 피해 건조한 곳에 차를 세울 수 있다면 무엇보다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눈이 갓 내린 곳보다 눈이 다져진 곳이 오히려 낫다.
- ③ 평평한 곳 보다는 조금 경사진 곳에 주차해 놓으면 나중에 출발할 때 도움이 된다.
- ④ 특히 차량 머리를 햇살이 비치도록 세워 놓으면 엔진룸의 냉기를 다소나마 없앨 수 있어 시동을 걸 때 수월하다. 차의 방향을 출발할 때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앞을 향하게 하는 것이 겨울철의 센스있는 주차요령이다.

10. 장거리 여행

사전 정보를 입수하라.

- ① 겨울철 나들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떠나기 전 사전정보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도중에 얼마든지 기상변화를 겪을 수 있다. 또한, 목

적지에서 폭설이라도 만나면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발이 묶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 ② 눈쌓인 낮선 길을 달릴 때는 앞서간 차가 남긴 꼴을 따라 가는 것이 안전하다.
- ③ 높은 언덕길은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이 훨씬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조금 귀찮더라도 반드시 스노우 체인을 감고 천천히 내려가야 한다.
- ④ 체인을 감고 달리게 되면 전·후진에서는 뛰어난 성능이 있지만, 옆 방향으로는 약하다. 그러므로, 코너를 돌거나 추월하기 위해 급가속을 하게되면 옆으로 미끄러져 위험함으로 절대로 과신해서는 안된다.
- ⑤ 체인은 달릴 때 구동바퀴에만 다는 것이 원칙이다. 소나타, 프라이드와 같은 F.F 방식차량은 앞바퀴에, 로얄 시리즈와 같은 뒷바퀴 구동차량은 뒷바퀴에 체인을 다는 것이 정석이다.

II. 겨울철 차량관리 요령 10가지

1. 조심운전

조심 또 조심하라.

- ① 겨울길은 눈이 쌓이고 빙판을 이뤄 미끄럽다. 이같은 길을 달리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급하게 출발하거나 언덕길을 잠시섰다가 출발하려면 바퀴가 헛돌기 마련이다.
- ② 내리막길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심하게 움직이면 차가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버려 뜻밖의 사고를 내기도 한다. 뻔히 알면서도 길 한복판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다른 사

람의 차를 들이받기도 한다. 그래서 겨울철 운전이 힘이 든다.

2. 운전자세

높은 자세로 멀리 보라.

- ①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움추려 든다. 운전대를 잡는 자세도 마찬가지다. 핸들을 잡은 자세가 움추려 들어 심한 경우에는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안전운전이 어렵다.
- ② 별안간 얼음판이 나타나거나 미끄러운 길도 통이에서 어떠한 물체가 튀어나오는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 ③ 따라서 아무리 차안이 춥다 하더라도 움추려든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운전하는 사람은 사각을 최소한으로 좁히기 위해, 본네트의 양쪽 모서리가 충분히 보일 정도로 자세를 갖추어 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위험물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3. 냉각수

부동액부터 갈아 넣어라.

- ① 수은주가 곤두박질하면 냉각수가 얼어부터 라디에이터와 엔진이 터지게 된다. 그래서 얼지않는 물, 부동액은 꼭 필요하다.
- ② 보통 부동액은 물과 부동액의 비율을 50:50으로 한다. 지역의 기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하 2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그리 많지않아 큰 문제가 없다.
- ③ 부동액을 넣을 때에는 라디에이터에 들어있는 냉각수를모두 뺀다음 수돗물로 녹이나 물을 씻어낸 후, 4l 짜리 용기의 부동액을 라

디에이터나 보조탱크에 부은 다음 나머지는 물로 보충한다.

- ④ 냉각 계통에 새는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호스가 낡았으면 갈아 주어야 한다.

4. 엔진오일

겨울용으로 갈아줘라.

- ① 엔진오일은 특히 낮은 기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기온이 낮을 때 높은 점도의 여름용 오일을 사용하면 시동성능이 떨어지고 연료 소모도 많아 엔진에 무리를 준다.(4계절용 엔진오일은 무방하다.)
- ② 엔진오일은 보통 3000~5000km에 교환하게 되는데, 교환시기가 가까워 졌으면 추위가 오기전에 교환한다.
- ③ 엔진오일 점검은 아침 시동걸기 전이나 엔진을 멈춘지 시간이 흐른후 평평한 곳에 차를 수평으로 세우고 점검한다. 이때 점검레벨게이지에서 L~F 사이 중간이상이면 정상이다.

5. 와이퍼 워셔액

수돗물 대신 워셔액을 써라.

- ① 겨울 운전중에는 눈이 녹아 물이 튀어올라 앞유리를 지저분하게 한다. 심한 경우에는 시야를 전혀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 ② 따라서 겨울철 점검 가운데 와이퍼와 윈도우 모터 점검은 필연적이다. 워셔액이 나오는 노즐 부분이 막힌 것이 없는지 또한 점검해야 한다.
- ③ 윈도우 워셔액은 겨울철에 얼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 ④ 아침 출근길에 와이퍼가 얼어 붙은 것을 막기 위해 주차할 때 와이퍼 암을 세워 놓기도 한

다.

6. 타이어와 체인

스노우타이어와 체인은 필수품이다.

- ① 오너들은 스노우타이어, 스노우 스파크타이어, 스티드리스타이어, 타이어체인 중 도대체 어떤 것을 써야 좋을지 고민 하지만 눈길과 빙판길에서는 완벽한 것은 없다. 하지만 필히 준비해야 한다.
- ② 빙판이나 눈길에서는 정도가 심하다면 필히 타이어 체인을 감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③ 타이어 체인을 감은 상태에서는 직진성능은 뛰어나지만 비탈길이나 커브에서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에는 약하니 주의한다.
- ④ 겨울철 운전에서는 왕도가 따로 없다. 무조건 서행 및 조심할 수 밖에 없다.

7. 밧데리, 제네레이터

밧데리액 및 제네레이터를 점검하라.

- ① 밧데리의 수명은 약 2년이지만 불필요하게 램프류를 오래 켜두었거나, 시동을 걸지 않은 채로 밧데리를 완전 방전시켰다면 밧데리의 수명은 훨씬 단축된다.
- ② 밧데리의 점검은 밧데리액의 양과 비중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차에 달려있는 밧데리가 MF 밧데리면 밧데리액 보충은 필요없다.)
- ③ 밧데리 터미널 부분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녹이 슬었다면 부드러운 솔과 샌드페이퍼로 녹을 없애고, 밧데리 본선과 어스션 이완상태를 점검하여 그리스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
- ④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밧데리는 60% 정도의 성능밖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단자의 썸 상태가 나쁘거나 완전충전 상태가 아니면 시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8. 히터 및 썸머스텝

따뜻한 겨울을 위한 히터점검

- ① 히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원인중 가장 흔한 것이 히터 호스 파손이다. 호스의 이음새 부분에 구멍난 곳은 없는지 살피고 느슨한 곳은 조여준다.
- ② 히터 관계의 호스외에도 자동차에는 여러 부분에 고무가 사용되고 있다. 고무는 겨울이 되면 딱딱해져 깨지거나 부러져서 제 구실을 못하게 된다. 겨울이 오기전에 점검 및 교환하도록 한다.
- ③ 썸머스텝은 자동으로 냉각수의 흐름과 온도를 알맞게 유지시켜 준다. 만일 썸머스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버히트 되거나 엔진의 온도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 ④ 썸머스텝은 70~90도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때 열리지 않으면 오버히트가 일어나고, 이 온도가 되기전에 열리면 히터에서 찬바람이 나온다.

9. 쌓인 눈 제거

차에 쌓인 눈을 억지로 제거하지 마라.

- ① 겨울철에 차를 밖에 세울 때에는 필히 보디커버를 씌우는 것이 차량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② 보디커버를 씌우지 않으려면 앞유리창에 윈도우 가리개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③ 자동차 앞유리창에 눈이 쌓여 얼었거나 성애가 끼었을 때는 시동을 걸어 히터의 바람이 유리창쪽으로 향하게 한다음, 약간 녹으면 프

라스틱 성애 제거기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 ④ 차 지붕에 쌓인 눈은 애써 치울 필요가 없다. 차가 상할 정도로 빗자루로 쓸거나 하는 것은 삼가한다.

10. 세차

눈길 운전 뒤에는 꼭 세차를…….

- ① 눈이 내리면 용결제를 뿌리게 된다. 용결제인 염화칼슘은 강한 산성이어서 차체 부식을 촉진시키므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 ② 춥고 귀찮다고 세차를 게을리 하게되면 그것이 곧 차의 수명을 단축하는 일이다.

Ⅲ. 훌륭한 운전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태도

- ① 남의 길목을 가로 막지 않는다.
- ② 양보해야 할 때를 알아라.
- ③ 절제하는 버릇을 기르자.
- ④ 의도적인 교통위반을 삼가라.
- ⑤ 화를 참을 줄 알아라.
- ⑥ 뒤차를 바짝 쫓아가지 말아라.
- ⑦ 쟁길 것을 쟁기자.
- ⑧ 적극적인 태도를 갖어라.
- ⑨ 다른 사람의 교통 안전도 챙겨주자.
- ⑩ 다른 사람의 애로사항을 도와주자.

중단

창단 30주년을 맞은 제5전술공수비행단

전·평시 공군력 운용의
중추를 담당하는 공군
유일의 전술공수비행단



전·평시 병력 및 공전투하 임무를 전담하며 공군력 운용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제5전술공수비행단은 공군 유일의 전술공수비행단이다.

유일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부대원들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원동력이 되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 공군 전술공수 비행능력을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이기에 실제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는 팽팽한 긴장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부대는 '완벽한 전비태세 완비'라는 지휘방침 아래 최고의 임무 수행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실전적 교육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CN-235M 취역비행



▲ 공수화물 적재



▲ 전술 공수 작전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은 제5전술 공수비행단은 C-130 항공기와, '94년 도입된 CN-235 항공기를 주전력으로 하여, 병력·물자 공수, 공정작전, 특수작전 지원, 탐색구조 등의 임무완수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부대는 그간 부여된 전술공수 작전, 대간첩 작전과 같은 본연의 임무는 물론, 해상 조난선박 탐색구조, 응급환자 공수 등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서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왔다.

특히 창설초기인 1966년, 지금은 퇴역한 C-46, C-54 항공기로 은마부대를 편성, 건국이래 최초의 해외파병인 월남전에 투입되어 이국하늘에 태극마크를 빛낸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1991년 걸프전시 다국적군 수송 및 병참업무를 지원하고 1993년에는 소말리아 공수임무를 맡아 참전하는 등, 국내외의 높은 관심속에서 성공적으로 해외공수임무를 수행하여 한국 공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왔다.

그 중 걸프전에서는 총 323회의 비행을 통해 1,400명의 인원과 713톤의 화물을 성공적으로 공수함으로써 대한민국과 공군의 위상을 제고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1991년 공군 최초로 세종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담한 후방침투로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1983년 부산 다대포 간첩선 침투사건을 비롯, 대간첩 작전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유의 기동성과 수송능력을 이용하여 인명구조, 응급환자 공수, 조난선박 탐색구조, 대민지원 등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의 군대로 앞장서고 있다.

부대는 현재 ○○지역 일원을 중심으로 가상적 위협요소와 Drop zone을 설정,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거듭하

고 있으며, 조종사는 물론 CCT요원, 화물적재사 등 동승근무자들은 언제, 어느 곳이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비상 대기와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매년 보라매 공중투하경연 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어떠한 기상조건 하에서도 정확한 인원·물자의 투하와 완벽한 비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량을 축적하고 있다. 이는 유사시 적후방을 강타하는 공중침투능력 향상은 물론, 구조, 제반 합동 및 연합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실전훈련의 장이며 신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세계일류 정예공군 건설을 위해서는 해외작전 능력 신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연중 이어지는 정기·부정기 공수 작전외에 동남아 지역을 포함, 최근 5년간 12회의 해외항법훈련 및 해외공수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94년부터는 RODEO대회에 참가하 전세계 공군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술공수 기량을 겨루며 세계로 미래로, 도약을 기도하고 있다.

부대는 지난 30년간 C-54, C-123, HH-47 등 수많은 기종을 운영·퇴역시키고 기종전환, 임무전문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 선진 공군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해 왔다. 또한 그 전통속에서 월남전과 걸프전, PKO파병을 통해 보여준 선배 보라매들의 투혼과 영공방위의 신념은 오늘 전 부대 장병들에게 계승되어 '세계로 미래로, 큰 뜻 큰 날개'라는 구호속에 녹아들고 있다.

끊임없는 전술전기 개발과 변화를 위한 노력, 장병들의 복지와 병영생활 만족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는 5전비를 언제나 젊은 공군으로서 다가오는 또다른 30년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 걸프전 참전용사 귀국 환영식



▲ 부대내에 있는 걸프전 참전비



▲ C-46 부대 역사관 견학

■ 제24대 공군 참모총장 취임식 거행 (3.9.)

제23대 참모총장 이임식 및 제24대 참모총장 취임식이 육·해군 참모총장등 군고위 장성과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렸다.



■ 공군사관학교 여성생도 선발

3군 사관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생도의 입교를 허용한 공군사관학교가 '97년도 여성생도를 모집하였다. 모집 인원은 정원의 10%인 20명으로, 오는 200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군용조종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그기 귀순(5.23.) 및 대비태세 유공자 시상 (6.1.)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54분경 북한의 미그-19 전투기 한 대가 서해 영공을 통해 귀순하였다. 귀순한 미그-19 전투기의 조종사는 이철수 대위로, 그는 북에서 “더이상 살 수 없어서 귀순했다.”며 북한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에 대한 동경을 나타냈다.

이날 우리 공군의 대응(작전명 “물오리”)은 너무나 완벽하였다. 작전 개시에서 종료까지 단 26분 1초가 걸린 다급한 상황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판단과 귀순기에 대한 엄호·유도로 세계적 수준의 방공태세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한편 미그기 귀순유도 작전등 군 대비태세 유공장병들에 대한 시상식이 군 수뇌부가 참가한 가운데 수원기지에서 거행되었다.



◀ 수원기지에 착륙한 이철수 대위의 모습



◀ 대비태세 유공자 시상식 장면

■ 자랑스런 유공기관 단체 및 자랑스런 한국인상 표창 (7.17.)

지난 미그기 귀순시 완벽한 유도 작전 수행으로 철벽 영공방위 태세를 과시한 공군과 박춘택 작전사령관이, 신뢰받는 군인상 정립에 기여한 공로로 「제2회 자랑스런 유공기관 단체」 및 「제5회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공군 군악대 정기 연주회 (11.26.)

공군 군악대는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배양일 참모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 참모와 대전시민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96 공군 군악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여 공군 군악의 진수를 선보였다.



■ 제11회 공군 참모총장배 행글라이딩 대회 개최 (11.2.~3.)

창공을 가르며 짜릿한 속도감과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제11회 공군 참모총장배 행글라이딩 대회가 11월 2일과 3일에 걸쳐, 지리산 점령치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국민들의 항공사상을 양양하고 항공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 그리고 민·군 화합을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 대학 및 일반 클럽에서 선발된 1백여명의 선수들이 참가, 2개 부문 3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열전을 펼쳤다.



◀ 개막식 이후 축하비행 장면



◀ 열전을 펼친 경기 모습

■ 제20전투비행단 창설 (12.2.)

공군은 충남 서산기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창설하였다. 이번에 창설된 제20전투비행단에는 공군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계획(KFP)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서 조립·생산되고 있는 최신에 KF-16 전투기 ○○대가 연차적으로 배치·운용된다.

제20전투비행단의 창설로 유사시 우리 공군은 수도권과 서북부지역에서 신속하게 항공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최대 안보취약 지역인 서해 5도의 영공수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창설 및 단장 취임식



◀ 제막식 장면

서울 하늘의 화려한 곡예비행

현 수 철

소위/교육사령부 인사처



1996년 10월 22일 오전 8시30분.

공군에 몸담은 한사람으로서 전투기 구경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complex(?)를 달랠 겸 신청했던 에어 쇼 관람을 위해 수송대대에 도착했다. 멋적은 정복차림에 몸놀림이 다소 뻣뻣했지만, 그래도 하루를 일상에서 벗어난데다 좋은 구경까지 한다니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 밖에…….

귀청을 고문하는 C-130을 타고 한시간 남짓 하늘을 날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한산할 줄 알았던 행사장은 예상외로 입구에 밀린 사람들로 북적였다.

엄청나게 넓은 행사장을 보니, 급한 김에 어설픈 프게 약속했던 애인과의 상봉작전(?)이 '서울가서 김서방 찾는 격'이 되어 걱정됐지만, 운 좋게도 별 어려움 없이 만날 수 있었다. 다행이었다. 하늘까지 맑으니 즐거운 하루가 될 것이 분명했다. 그녀와 손을 맞잡고 에어 쇼의 장도에 올랐다.

군이 성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는 기계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건가? 별로 관심도 없는 듯한 그녀의 손을 이끌고, Rafale, F-14, F-15, F-16, F-18 등 전투기와 Supercobra를 비롯한 헬기, AWACS와 B-1, A-340 등 첨단 대형 관제기, 폭격기, 민항기, 그리고 팬시리 반가운 C-130 등이 전시되어 있는 각종 비행기 하나하나 앞에 그녀를 붙들어 세우고, 주위들은 항공기 지식으로 한바탕 '공군 소위'임을 과시해야 했다.

신나게 떠들었더니 다리도 피곤하고 시장기도 들었다. 공군의 한사람으로 열심히 군 홍보에 몰두한 당연한 결과였다. 전시장 한켠에 마련된 임시매점에서 간소한 맛을 가진 화려한 가격의 점심을 먹고, 1시 반부터 있을 예정인 에어 쇼의 "시범 및 곡예비행"을 기다렸다.

어처구니 없는 큰 깃발에 '96 서울 에어 쇼를 경축하는 문구를 새긴 채, 한 호주인 그의 아들이 함께 고품낙하를 시작하는 것으로 첨단 전투

기들의 '경연대회'가 시작되었다.

고풍스런 복엽 프로펠러기를 가지고 펼친 미국의 Sierra Aces팀과 A-37로 펼친 우리나라의 Black Eagle팀의 곡예비행에 화려한 맛에서는 미치지 못했지만, 현대 공군력의 최첨단을 보여주는 F-16, F-18, Rafale, Su-37의 시험비행이 나에게서는 더욱 흥미로웠다. 말 그대로 "지축을 울리는" 엄청난 엔진소리를 과시하며 공중 선회와 저속비행, 수직상승을 반복하는 첨단 전투기들. 그 우아하고 힘찬 모습이 예술적 아름다움을 주는 것은 웬 아이러니인지…….

먼저 F-16. 그 명성대로 강렬한 수직상승 능력과 기동성을 선보였다. 우리의 주력기라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공중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인 기동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F-16에 이어서 F-18이 날아 올랐다. 안정된 비행능력을 과시하면서도 F-16에 못지 않은 기동성을 선보였다. 전투기들의 속도감이 눈을 상쾌하게 자극했다.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Delta익의 모습이 이국적(?) 멋을 준 때문인지 공중에 비상하는 모습으로는 Rafale이 가장 멋졌다. 짧은 착륙거리를 강조하려는 듯 급제동의 덜컹거림을 감수한 마지막 착륙모습이 약간의 불안정감을 주었지만……. (조종사가 실수한 것인지 어떤지는 비전문가인 필자로서는 알 수 없었다)

다음은 Su-37. 아직은 분명 '적국'인 러시아의 전투기란 점과 현재 1대밖에 생산되지 않은, 즉 실험성이 강한 기종이란 점, 게다가 매스컴의 찬사 등으로 인해 비행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우선 보고 난 후의 감상을 요약하면 저 전투기가 유사시 적국의 편에 설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희한한 기동을 할 수

있는건지……. 열심히 상승하는 듯 보이는데 어느덧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공중에 멈추는 기술 (이런 것을 자동차 운전에서도 시도해 볼 수는 있다. 언덕을 오를 때 Accelerator를 조심스레 밟으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정지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비행기로 그걸 해 내다니…….)과 "Cobra 기동"인지 하는(공중에서 브레이크를 건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야말로 쇼를 했다.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이기에 실전 적용가능성이 의문시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과학기술에 대한 약간의 경외감마저 생기게 했다. 더불어 저런 급변하는 비행상황을 버티는 조종사들에게 존경심과 더불어 묘한 연민이 느껴졌다.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을 했을까! 저렇게 비행하면 얼마나 어지러울까!

어쨌든 아군의 주력기인 F-16, F-18 등 사진이나 매스컴을 통해 이미 친숙해진 기종보다 역시 새로운 전투기들에 관심이 간 건 사실이다. 더구나 Rafale, Su-37 등이 모두 차세대 전투기라는 점에서 미래의 전투기 기능의 발전을 미리 맛본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로웠다.

시험비행의 막바지에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격렬한 몸놀림을 펼치는 전투기들을 보며 실전에서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여러 전투기들의 광폭한 엔진소리와 다양한 몸놀림, 그리고 화염과 불꽃……. 멋진 것이다. 인간의 눈은 언제나 자극적인 것을 원하니까. 그러나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그리고 일어나기를 바라서도 안되는 일이다.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사용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등3**

창공의 향연

홍 성 일

소위/제19전투비행단 수송대대



하늘을 난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엔진 소리가 커지면서 몸이 비행기 꼬리 쪽으로 쏠리더니 시속 약 150km쯤 되었을 때, 40여명을 태운 거대한 프로펠러 수송기의 기수가 올라가면서 비행기 바퀴는 지면을 밀어 내었다. 물리학 시간에 술하게 배운 베르누이의 정리는 정리고, 나는 내가 탄 공룡과 같은 기계가 거짓말같이 구름을 빗삼아 공중을 떠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다. 전에도 비행기는 타 보았지만 구름 위 펼쳐진 새로운 세계를 볼 때마다 나의 가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에 젖게 된다.

멀어져가는 소속 비행단의 활주로를, 널따란 창공에 비해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쩌그마한 비행기 창을 통해 내려다보면서 공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저렇게 큰 대지 위에 수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전투기를 띄우는 이유가 뭘까? 창아래로 보이는 깨알같은 사람들과 미니카 같은 자동차들은 모두 어디론가 가기 위해, 무엇인가 하기 위해 레일이 깔린 듯 도로

를 따라 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웅기종기 모여 있는 주택들, 여기저기 퍼져 있는 마을들, 높이서 보니 전부 다 가만히 멈춰진 듯, 매우 평화스럽게, 보인다.

우리들은 제각기 자기 인생과 오늘 살것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손해 의식에 사로잡히고 어떤 때는 자기만 뒤흔치는 것 같은 위기 의식에 갖히기도 한다. 그러나 몇 백미터 상공에서 바라본 이 세상은, 사실 사람들이 미처 의식에 두지 못하는 국가의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귀가 몇 번 멍해졌다가 풀어졌다가 하면서 이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날씨가 너무 좋아 에어쇼 오기 딱 좋은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까지 비즈니스 데이. 사람들은 적당히 있어서 더 좋았다.

에어쇼라 해서 최신에 비행기를 보고 끝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커다란 비행기 격납고 같이 생긴 건물을 6개나 설치해 놓은 것을 알고 오기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 보니 하고

알찬 내용의 전시장이 세트되어 있었다.

국내 대기업들과 항공기 관련 회사들의 부스로 가득찬 행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입구로부터 둘러보았다. 각 회사들이 제각기 자랑하는 비행기들을 실물 크기 혹은 실물로 전시해 놓았다. 전에 뉴스에서 얼핏 듣기로 우리 나라 KFP사업에 F-16이 선정되어 몇 십대는 완제품, 몇 십대는 조립품, 몇 십대는 기술협력에 의해 만들어서 항공산업의 발전을 꾀한다고만 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자체 기술로만 만든 경비행기, 앞으로 만들 멋있는 헬리콥터, F-16을 개조해서 만든 초음속 첨단 훈련기, 기타 빼놓을 수 없는 부품 제작업체들의 항공기 구성품 등이 너무 많아 사뭇 놀라움을 느꼈다. KF-16이 지금도 우리의 영공을 경계하며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 그렇게 큰 진진이 있는 줄은 몰랐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배우고 신속히 만들어 내는 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지는 홀에서는 외국업체들의 전시가 있었다. Lockheel Martin이나 Eurospace등의 말로만 듣던 생쟁한 이름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설마 수많은 일반 관람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 비행기들 중 하나라도 구입 할까 마는, 그들은 홍보 작전에 심혈을 기울여 직접 관계자들이 나와 비즈니스 상담을 함을 물론, 일반인들의 흥미를 끌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모의 비행 시뮬레이터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KFP사업에 이어 차세대 전투기의 선정이 거론되던 때에

펼쳐진 에어쇼에는 역시 세계 최강의, 최신예의 전투기들이 선을 보였다.

마지막 홀에서는 중소기업체들이 자신들의 발명품들을 전시하며 팔고 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홍보가 어려운 현실에 있는 이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대단히 그들에게 힘이 되리라 생각했다. 이어서 펼쳐지는 널따란 평원 위에서의 비행쇼는 비행기들의 소개라기 보다는 예술처럼 보였다. 맨 먼저 어떤 하연 여객기가 그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자유롭게 고도를 변경시켜 가며 비행 능력을 과시했는데, 사실 난 그냥 떨어져서 부서질 것 같다고 느껴질 뿐이었다. 이어서 전투기들과 곡예비행팀들의 시범이 있었다. 전투기들은 쌍발엔진을 달고 초저속비행, 회전비행, 각도변경비행 등을 보여주었는데, 몸집은 작으면서도 엄청난 평음을 울려 마치 무슨 울부짖음을 듣는 것 같았는데, 나는 그것을 "평화를 위한 함성"이라 명명했다. 공기를 찢는 엔진터빈 블레이드의 아픔이야말로 창공을 누리는 대가가 아니겠는가! 이어지는 공중 곡예비행팀의 모습은 재미있고 아슬아슬하여, 기묘한 탄성을 자아냈다.

행사장에는 특히 어른들 손에 같이 온 어린 꼬마들이 많았는데, 공군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어렵פות하게라도 알게 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 같다.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펼쳐진 구름 위의 노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흐뭇한 가슴을 안고 공군 속의 나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END**

미래를 향한 도전

박 중 상

상병/제15혼성비행단 무장대대



“어, 우리 기지에서 이런 걸 하네. 설마 했는데, 잘하면 나도 이걸 볼 수 있겠다. 가만 있어 봐. 시간이 언제라고 10월 21일부터…….”

우리 기지에서 에어 쇼가 한다는 걸 떠도는 소문으로만 여겼는데 신문에서 그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약간의 들뜬 마음과 함께 그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 기억도 잠시, 한참이 지나 동편 활주로 건너편으로 전시동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고 조용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굉음이 들리면서, 못보던 항공기들이 자주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서야 ‘아, 이제 에어 쇼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속속 F-4, F-5, F-16과 같은 우리나라 주력기들이 기지에 도착했고, 프랑스의 최신예기 ‘라팔’과 러시아의 ‘SU-30, 37’, 그리고 미국의 ‘F-14’, ‘F-15’, ‘F/A-18’, ‘B-1’ 등의 다양한 기종의 현존 최고의 항공기들이 그 당당한 위용을 드러내었고, 성대한 개막식과 함께 그렇

게 기다리던 ‘96 서울 국제 에어 쇼가 개막되었다. 그와 함께 나의 ‘갈 수 있을까’ 하던 바람은 ‘언제야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바뀌어 갔다.

에어 쇼의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곡예비행과 최신예기들의 성능을 마음껏 뽐내는 시범 비행일 것이다.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은 이유도 지상 전시장 보다는 그것을 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블랙 이글’ 팀과 미국의 ‘시에라 에이스’ 팀의 곡예비행은, 연습 때부터 계속 보아 왔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재미 있었다. 하지만 곡예 비행보다 더 내 기억에 남아 있는 건 ‘라팔’이나 ‘SU-37’의 시험기능 비행이었다. 기수를 60° 정도 들어 올린 채 저속으로 날아가는 모습이라던가 수호이기 밖에 할 수 없다는 코브라 기동, 그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묘기들은 저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였다. 여태까지 전투기라고 하면 마하 정도의 초고속으로 날아가서 속전속결로 공대공, 공대지 공격을

한다고만 생각해 오던 내게 그런 시범 비행은 전투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묘기에 가까운 비행기들의 시범 비행을 보다 보니, 도대체 어떤 장치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기에 그런 항공기가 저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더 커졌다. 게다가 내가 지그다루고 있는 항공전자 분야에는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옥내 전시장을 찾아가 보았다.

6개의 대형 옥내 전시장에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다른 항공 선진국들의 여러 업체들이 독특한 자기들만의 실내 장식과 항공기 모형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의 눈을 바쁘게 만들었다. 너무나 넓고 화려하게 잘 꾸며 놓아서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아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우왕자왕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관심있는 것만 유심히 보기로 마음먹자, 그냥 멋있고 신기하게만 보이던 것들이 차츰차츰 눈에 들어왔다.

전시회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곳에 전신하고 있는 외국 업체 관계자들의 친절함이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짧은 영어 실력으로 용기를 내어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폭넓게 설명해 주고, 잘 몰라서 다시 물어봐도 짜증내지도 않고 오히려 궁금하게 있으면 더 물어보라고 까지 했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인형 같은 나레이터 모델들을 데려다 놓고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물어보면 외국기업에게서 볼 수 있었던 친절함이나 성실한 답변을



찾기 힘들었다.

또한 세계와 우리나라의 기술의 차이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줄은 몰랐는데, 이 전시회를 통해 나의 시야가 많이 넓어진 느낌이다.

'F-17' 이나 'B-2' 같은 항공기의 미전시, 항공기 주변의 펜스 설치, 우천에 대한 조직 위원회의 미비한 대응, 성숙되지 못한 시민의식의 발현 등 여러 문제점과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나에게 많은 지식의 습득 및 공군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등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었다. 또 낙후된 항공 산업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새로운 항공 수요의 창출 및 청소년들에게 큰 꿈을 심어 주는 등 우리나라로서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에어 쇼가 끝난 지금 우리 내무반에는 벌써부터 내후년 에어 쇼를 준비하는 새로운 행사가 생겼다. 밤마다 'ENGLISH TIME' 을 가지며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98년의 에어 쇼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좀 더 자세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벌써부터 내후년 에어 쇼가 기대된다. **중문**

호국문예 작품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호국문예 백일장은 1984년 최초 대회를 가진 이래, 해를 거듭하면서 연륜과 내실을 다져 오고 있다. 호국문예 백일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하늘에 대한 동경과 우리 공군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금년 행사도 전국 11개 지역에서 4천 8백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풍성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정성스럽게 쓴 학생들의 몇 작품을 소개하겠다.

되었다! 통일!

김 성 주

광주 백운초등학교 5학년



되었다! 통일!
무엇이?
산맥이.

그렇다!
우리 나라 산맥은
한 줄기다. 한 줄기!

되었다! 통일!
무엇이?
강물이.

그렇다!
두만강과 낙동강이
동해에서 만난다.

되었다! 통일!
무엇이?
꽃들이.

그렇다!
봄만되면 진달래가
활짝 핀다. 일제히!

되었다! 통일!
무엇이?
새들이.

그렇다!
팔도강산 모두
날아다닌다. 마음대로!

통일이!
통일이!
우리만 남았다.
사람만 남았다.

할아버지의 꿈

장 예 지
안양서초등학교 5학년



6·25 때

다리 하나를 잃으신
평촌 할아버지

오늘도

베란다 흔들의자에
기대어 낮잠을 주무신다.

'새가 되는 꿈을 꾸었다'

힘없이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눈썹에
매달린 이슬 하나

꿈 속에서 새는

한반도의 허리를 풀어 물고
높이 날아 올랐을까?

새가 되는
평촌 할아버지의 꿈은
이젠 푸른 하늘
은빛 비행기로 떠다니고

그 날개 아래
할아버지의
고단한 꿈도
실 수 있을까?

은빛 비행기, 새처럼
소중한 자유를 품고
백두산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 날이 오면

할아버지의 웃음소리
푸른 하늘에
환한 오색풍선으로
떠 다닐 것이다.

북한의 친구들에게

백 인 주

예천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아, 안녕?

초가을의 햇살이 어느 곳에든 누구하나 제외하지 않고 골고루 비춰주고 있어. 이 편지를 받게 될 친구들이 서있는 그 곳에도 초가을의 따스한 햇살은 마찬가지로겠지?

나, 그리고 너희들이나 모든 이들이 파아란 하늘과 꽃구름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우리 모두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을 쓰고 있으니 이 편지는 읽을 수 있겠지? 우리 만의 언어와 글을 가졌다는게 얼마나 자랑스럽니? 그러나 어쩐지 언어가 다르고 피부도 다른 민족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아 마냥 마음이 서글퍼져. 허긴 우표를 한 장 붙이면 사방팔방 전달되지 않는 데 없지만 이 편지는 편지봉투에 아무리 우표를 붙인다고 해도 휴전선을 넘을 수는 없겠지? 또 우리네 친구들은 세계의 청소년 친구들과 펜팔이라는 이름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맺

고 있는데, 한 나라속에서 너희들과 나는 우정을 왜 맺지 못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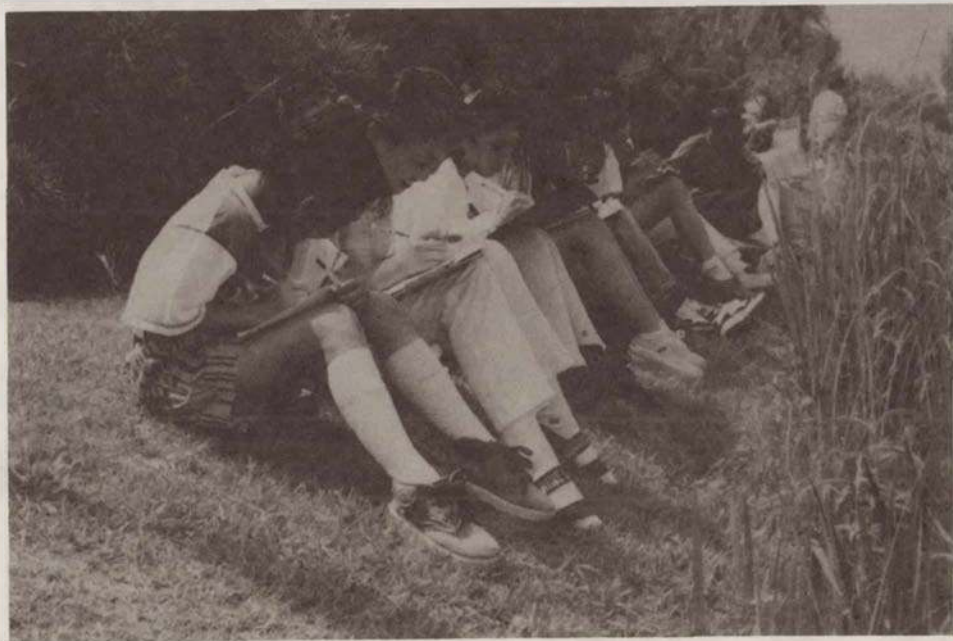
그러나 더욱 더 서글프고 안타까운 것은 휴전선이라는 불가사의한 선을 경계로 진정 같은 민족과는 편지 한 장조차 교환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니?

반만년 역사를 흘러 온 민족정기가 나와 나의 맥박에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네 정신이 될 수 없다는 공산주의 사상이란 것이 나와 나의 대화에 철벽을 이루고 있어.

도대체 우리네 정신에 조금이라도 공산주의라는 것이 있거나 했을까? 그러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46년간의 세월이 이렇게 철저히 너희들과 나의 감정을 이질적으로 만들어 버렸어.

너희 쪽인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 세상을 위해 많은 피를 흘려도 된다고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자들은 각 개인에게 부여된 인권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경제가 날고 성장해 나감에 따라 6·25란 자취는 사라져가고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지?

그러나 아직 가슴을 아파하는 이산가족들이 많이 있잖나?

얼마전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탈출해 온 사람들을 TV에서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단다.

우리와 같은 피부색과 언어를 쓰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해 주었거든.

그런데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이 매우 궁급해. 마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탈을 쓰고 있는 외국인 같이 보이기도 했어.

나는 하루 바빠 너와 손잡고 뛰어 놀 그 날만을 생각하고 있어. 또 이 편지도 전해줄겸…….

하지만 편지 한 장이라도 띄우고 싶은 사천만

의 염원을, 그 쪽 사람들은 땅속 깊이깊이 묻고 말았어.

‘설마 같은 민족끼리는 그럴 수 없겠지.’ 하고 기대했던 날들이 나에겐 큰 실움을 안겨주었어.

너희가 있는 곳도 하늘은 역시 파랗고, 수목이 자라며 파랑새들도 날아다니겠지.

나는 너희들과 내가 어깨를 마주대며 세계 제일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21세기를 한껏 피게 하는 자유를 만끽 할 수 있는 통일…….

그날이 오길 우리 모두 염원하면서 꿈을 키우는 어린이가 되기로 약속하자.

너희들과 나의 꿈이 만나는 날, 통일의 그날, 우리 함께 백두산 꼭대기에 태극기를 올리자.

세계를 향해 펼쳐지는 태극기를 바라볼 그날은 꼭 오고 말거야.

10월 12일

예천에서 인주가

어머니의 지구본

어머니의 외삼촌

김 병 윤

안양 덕현초등학교 6학년



“어머니, 이 분은 누구세요?”

“어디 보자.”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보여 드리는 사진을 들여다 보셨다. 그런데 환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금세 그늘진 빛으로 바뀌어 지는 것을 느꼈다.

“이분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외삼촌이란다.”

“그런데 어머니 보다도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그건 젊으셨을 때 찍었기 때문이란다.”

얼마 전에 사진첩을 정리하려고 앨범이 있는 책장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그날 따라 빨간 표지의 색바랜 어머니의 앨범이 눈에 띄었다. 중간쯤 넘겨 보았을 때 흑백 사진 속에 멋진 공군 아저씨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머플러로 목을 두르고, 한쪽 손에는 헬멧을

들고 계셨다. 커다란 비행기 옆에 서 계신 모습이 정말 늙름해 보였다.

그 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외삼촌이었다. 지금쯤 살아계셨더라면 아마 쉰 다섯살은 되셨을 거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다. 공군사관학교를 나와 공군에 입대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애국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다.

첫 휴가 때 어머니의 집에 놀러 오셨는데, 그때 주셨던 선물인 세계 여러나라가 들어있는 동그란 지구본을 어머니는 가장 좋아하셨다고 하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머니의 화장대 위에 놓여져 있는 아주 작고 낡은 지구본이 생각났다. 그래도 지구는 선명히 그려져 있어서 사회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 지구본이 어머니께서 학교 다닐 때 썼던 것인줄로만 알았다.

어머니께서 왜 그 낡은 지구본을 아끼셨는지 나는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지구의 끝까지 날고



싶으셨던 외삼촌 아저씨의 꿈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크시면 비행기를 태워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다는 외삼촌 아저씨.

나의 꿈이 아주 훌륭한 공군 조종사가 되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계실까? 아마 의사나 과학자가 되고 싶은 줄 아실 것이다. 나는 사실 오래 전부터 하늘을 마음껏 나는 공군 조종사가 되고 싶었다. 방학 때마다 경북 예천에서 사시는 할머니를 찾아볼 때마다, 예천 공군 비행장에서 떠올라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자주 보았다. 아주 멀리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나도 크면 저 비행기를 타고 마음껏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아버지는 항상 이 다음에 커서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그것이 곧 애국의 길이 된다고 하셨다. 음악이나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빛낼 수도 있지만, 나는 하늘을 지키는 멋지고 용감한 공군 조종사가 되어 우리 나라의 하늘

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외삼촌 아저씨께서 못 이루신 하늘을 향한 자유의 꿈과 희망을 나는 꼭 이루고 말겠다.

지금도 북한 공산당은 평화 통일은 커녕, 무력 통일의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하늘에 계신 외삼촌 아저씨께서도 조국의 평화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이다.

외삼촌 아저씨!

하늘에서 항상 저를 지켜 봐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튼튼하게 자라서, 하늘의 멋진 용사가 되어 백두산 꼭대기에 우리의 태극기를 꽂겠어요. 이 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공군 조종사가 되어 조국을 통일하고, 외삼촌 아저씨의 꿈이 들어 있던 지구본 안에 있는 전 세계의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지키지 못한 약속, 비행기를 태워 주시겠다고 그러시던 그 약속을 제가 꼭 지켜 드릴게요.

인터넷을 배우자!

박 성 혁

하사/제85정밀표준정비창 1시험소



우리는 인터넷(Internet)이라는 말을 방송 매체를 통하여 많이 들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들은 화상통화, 화상회의, 통신판매, 정보검색, 어떤 회사의 신상품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인터넷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인터넷은 미국정부가 냉전 시기였던 1970년대 초에 컴퓨터 시스템을 한곳에 집중시키면, 핵폭탄등의 폭격으로 국방기능이 마비될 것을 우려하고 피해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연구, 설치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유래된다. 물론 처음에는 군사 기술 연구가 주목적이었지만, 네트워크가 가지는 장점을 알게 된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요구에 의해 미국과학재단(NSF)이 대부분의 투자를 하여 더욱 확대되고 발전된 모습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은 대학이

나 연구소와 같은 학술기관보다 민간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다. 특히 미국의 앨 고어 부통령이 국가정보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으로서, 정보 초고속도로(Information Super Highway)의 개념을 제창하면서 현재 인터넷은 급속도로 확대 및 사업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인터넷이란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전세계적인 컴퓨터 Network을 말하는 단어이다.

인터넷이란 단어자체는 "Networks로 이루어진 Network"를 의미한다. 인터넷은 전 지구에 흩어져 있는 수천개의 작은 지역적 망들로 구성 되어 있다.

인터넷은 하루에 50개 이상의 나라들의 200,000,000여 이용자들을 연결한다.

이처럼 이용자가 많은 이유는 World-Wide-Web(WWW)의 등장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은 WWW을 사용한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다.

World-Wide-Web(WWW)이란 무엇인가?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어떤 이용자라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다른 여러 정보들과 쉽게 연결되는 세계 공용의 정보 database 개념이다.

사실 얼마 전만해도 인터넷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구였다. 왜냐하면 대부분 문자 위주의 유닉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므로, 각종 기본적인 유닉스 명령어를 익혀야 하고 각각의 프로그램 사용방법이나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소수의 연구자들이나 컴퓨터 매니아들의 사용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월드와이드웹은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혁명적인 도구이다. 웹은 "멀티미디어+하이퍼텍스트+인터넷"로 간단히 성격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연결된 전세계의 모든 문서를 동일한 포맷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른 정보검색 도구보다 월드와이드웹이 천하통일이 이루어진 이유중 하나는 멀티미디어의 지원이다. 멀리 떨어져있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출발한 인터넷을 그림, 음성, 동화상 등 거의 모든 미디어 정보를 통합하는 멀티미디어 형태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월드와이드웹의 등장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온라인 쇼핑 서비스이다. 기존의 인터넷은 문자위주의 정보를 주로 다루었고 사용방법이 복잡하였기 때문에, 물품 구매와 같은 직관적인 서비스를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월드와이드웹은 마우스를 이용한 간단한 인터페이스, 사진자료 등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점 등

의 이유로 온라인 쇼핑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보안문제가 불안한 요소로 남아있어 책, 음반, 컴퓨터소프트웨어, 소모품, 꽃 등의 소액물품 위주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온라인상의 대금결제를 위한 디지캐시(Digicash) 등의 가상 돈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별도의 인터넷 쇼핑몰이 개설되는 경우외에도, 일반적인 기업은 자신들의 상품을 자사의 홍보용 웹을 통해 온라인 판매하기도 한다. 보안문제, 대금 결제 문제 등 몇가지 점만 보안된다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은 현재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이 기업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만드는가?

인터넷을 사용하므로써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점은 물리적 제약을 초월해 버렸다는 점이다. 전세계의 어떠한 정보라도 인터넷을 통하면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즉, 물리적인 공간에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통한 하나의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북극에서 일을 하든지 미국의 뉴욕에서 일을 하든지 인터넷의 세계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점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 관념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하루 24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서 낮에 어떤 서류를 정리하여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의 뉴욕의 한 지사로 보내면, 다음날 아침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차를 이용하여 24시간을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3차원의 특징인 공간과 시간 등을

극복한 인터넷의 세계를 3.5차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3.5차원의 특징을 가진 인터넷을 이용하면 인력, 시간, 사무실 비용 등의 자원을 수십 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은 무한대의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국경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국내의 어떤 기업이 미국 헐리우드에서 인터넷을 통해 최신 영화를 '수입'하여 '복제', '판매' 하였다고 생각해 보자. 물론 대금은 신용카드를 이용 지불되었다. 사실은 무역이 이루어졌지만 통관 통계에서 어떠한 기록도 실리지 않는다.

이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간의 장벽을 인터넷은 손쉽게 허물어 버렸다. 전세계를 상대로 한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어떤 매체가 168개국 이상의 약 4천만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동시에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무료로 가까운 비용으로 말이다. 이처럼 인터넷은 가상공간을 실제공간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터넷에서는 누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가, 더 손쉬운 접근방법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 서비스 또는 기업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정보를 창출해내는 능력과 인터페이스 디자인등 정보 가공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 굳이 엘빈토플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세상의 힘은 정보를 가진자에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웹 브라우저(검색 소프트웨어)의 간단한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웹 브라우저로는 네스케이프(Netscape)와 모자이크(Mosaic), 그리고 익스플로워(Explorer)가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네스케이프의 간단한 사용에 대해 알아보자.

웹 브라우저(Netscape)의 사용방법

- 웹 브라우저(Netscape)의 기본 용어 정리
 - URL(Uniform resource Locators)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자원의 위치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웹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가리키는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프로토콜://서버 주소/정보의 경로

예) http://home.netscape.com/home_welcome.html

<http://www.joongang.co.kr/>

(중앙일보 웹 사이트)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컴퓨터를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신규약이며, Netscape에서는 http://라는 형식으로 사용한다.

서버 주소에서 일반기업(co), 교육기관(ac), 연구기관(re), 정부기관(go), 망관리기관(nm), 기타기관(or)의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kr), 일본의 경우(jp), 캐나다의 경우(ca) 등을 사용한다.(단, 미국은 예외)

- 홈페이지(home page)

홈페이지라는 말은 엄격히 구분하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단순히 웹을 사용할 때, 즉 웹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킬 때 처음 접속되는 웹 사이트를 가리킨다. Netscape를 사용할 때 집모양의 버튼을 눌러 접속되는 사이트를 말한다.

두번째는 URL로 표시되는 실제 웹서버를 의미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

의 내용이 있는 곳을 말한다.

- 웹 브라우저의 사용(Netscape의 사용)



〈Netscape 실행화면〉

- 툴바(tool bar)의 사용

네스케이프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들을 여행하는 것은, 하나의 잡지책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다. 네스케이프의 화면 상단에는 페이지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모여있다.

왼쪽에서부터 하나씩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Back/Forward 이 버튼을 이용하면 이전의 페이지 또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Home 홈 버튼을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자신이 자주가는 사이트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일일이 손으로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이 버튼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Reload 재수신(Reload) 버튼은 현재 접속중인 웹사이트의 자료가 중간에 깨져서 전송되지

나 할 경우 다시 불러들이는 기능이다.

Images 사실 웹사이트에 나오는 이미지(그림)들은 텍스트(문자)만큼 빠르고 적절하게 전송되어야 하지만, 텍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이트 크기가 크므로 전송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네스케이프는 자동으로 이미지를 불러들이도록 세팅되어 있어 이미지(Images)버튼은 초기에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어, 메뉴의 선택사항(Options)의 자동이미지로드(Auto Load Images)를 해제하면 이미지 버튼이 활성화된다. 이 상태에서는 이미지들은 자동으로 전송되지 않고, 작은 아이콘이 각각의 이미지를 대체한다. 만일 나중에 이미지를 보고 싶다면 활성화된 이미지 버튼을 누르면 된다. 결국, 이미지를 제외한 텍스트만을 수신함으로써 전송속도를 향상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Open 열기버튼은 새로운 사이트로 접속하기 위해 URL(인터넷 주소)을 입력하게 해준다. 버튼을 누르면 작은 창이 하나 열리며, 그곳에 접속하고자 하는 URL을 입력하면 된다.

Print 화면에 멋있게 나온 웹페이지를 그냥 화면으로만 보기에는 아까운 경우가 있다. 물론 좋은 정보를 담고 있을 때에도 출력을 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경우 인쇄버튼을 누르면 된다. 네스케이프는 현재의 화면을 자동으로 정리하여 깔끔하게 출력해 준다.

Find 웹에서 한 페이지는 일정하지 않다. 무한히 길어질 수도 있고, 몇 줄되지 않을 수도 있다. 화면에 나온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특정한 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영어로 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찾기버튼을 이용하면 현재 페이지에서 원하는 단어를 찾아 반전(inverse)

시켜 준다. 찾는 방향은 순/역방향 두가지가 가능하다.

Stop 데이터의 전송을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 사용한다. 전송중일 때는 버튼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된다.

- 디렉토리 버튼의 사용

처음 웹을 사용할 때는 무엇을 해야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매우 난감할 것이다. 디렉토리 버튼은 초보자들이 웹의 세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특히 담고 있는 내용은 온라인 상태에서 접속, 갱신되어 항상 새로운 내용을 담게 되므로 가끔은 한 번씩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What's New! 네스케이프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웹 사이트 정보를 담고 있다. 새로운 웹 사이트를 탐험하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된다.

What's Cool! 네스케이프에서 선정, 추천하는 가볼만한 웹 사이트 목록이다.

Upgrades 네스케이프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의 최신 업그레이드 소식을 볼 수 있다.

Net Search 인터넷에서 특정한 사이트나 문서를 찾거나 어떤 주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검색을 도와주는 기능을 검색엔진(Search Engine)이라고 부른다. 특히 인터넷에는 웹 형태로 구축된 수많은 검색엔진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몇 가지 중요한 검색엔진의 목록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Info Seek을 이용한 직접 검색이 마련되어 있다.

Net Directory 전화번호를 모를 때는 전화번호부를 찾아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주소를 모를 때는 웹 디렉토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웹 디렉토리 서비스란 수만 개 이상의

웹 사이트를 주제별로 분류해 놓아, 마우스 클릭만으로 원하는 곳으로 편리하게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Newsgroups 네스케이프는 유즈넷 뉴스그룹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뉴스그룹을 검색하기 위해서 입력할 URL 형식은 다른 것과 약간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Handbook 네스케이프를 잘 사용하기 위한 각종 온라인 문서들을 담고 있다. 여기 있는 내용만 읽어도 네스케이프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Hypertext & hyperlinks 기능

웹으로 제공되는 대부분의 문서들은 모두 하이퍼링크를 담고 있는 하이퍼텍스트 문서이다. 사실 하이퍼텍스트는 우리가 보는 책과 웹의 문서를 차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문서나 단순한 글자들의 나열이 아니라 같은 정보에 대한 다양한 검색 경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백과사전에서 한 단어를 마우스로 누르면,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하이퍼텍스트로 되어 있는 글자들의 색깔이 바뀌어 있거나, 밑줄, 깜박거림 등의 방법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특정 내용과 다른 정보를 이어주는 것을 하이퍼 링크라고 한다. 최근들어 텍스트만이 아닌 그래픽, 영상, 이미지 등도 통합되고 있어 하이퍼텍스트가 아닌 하이퍼미디어로 발전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기능으로도 우리는 손쉽게 네스케이프를 사용하고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

인터넷은 정보자원의 광대한 바다다. 전세계에 걸친 수많은 네트워크들의 모임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공개소프트웨어, 게임, 문화 및 연예

정보, 학술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위성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화상통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인터넷을 잘 이용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

〈부록〉 가볼만한 웹사이트 주소들

〈국내〉

http://www.joongang.co.kr	중앙일보
http://news.hani.co.kr	한겨레 신문
http://www.chosun.co.kr	조선일보
http://www.hnc.co.kr	한글과 컴퓨터
http://www.nbc.co.kr	MBC 방송국
http://www.kbs.co.kr	KBS 방송국
http://www.samsung.co.kr	삼성

〈국외〉

http://www.microsoft.com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사
http://www.apple.com	애플 컴퓨터사
http://www.hp.com	hp사
http://www.hollywood.com	할리우드
http://www.yale.edu	예일대학교
http://www.stanford.edu	스탠포드대학교

아마추어 무선이란?

정 주 범

병장/제19전투비행단 현병대대



오늘날 우리는 무수한 뉴스와 정보속에 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첨단경쟁을 벌이며 지금도 지구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속에서 여유와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만의 취미가 아닌 모두가 동감할 수 있는 취미를 소개할까 한다.

아마추어 무선(HAM),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도 않고 공익을 위해 아마추어 무선사가 되어 여러사람 아니 전세계인과 만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것도 자기 방에서 무전기를 통해 말이다. 이를 통해 세계각국의 문화, 역사, 지식을 배울 수 있고 나 자신이 세계인이 될 수 있다.

아마추어 무선의 역사는 세계 2차대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쟁속에 무전기를 통해 작전과 지시를 주고 받았던 것이다. 처음에는 전쟁용으로 쓰였으나, 전쟁이 끝나고 이 무전기들은 민간인들의 손에 들어와 이것저것 하다가 무전기의 이점과 단점을 알게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상업용으로 쓰였으나 점점 발달해 오늘날

의 아마추어 무선이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발전해 온 HAM은 전세계로 퍼져 나가 세계의 무선사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아졌다. 일본이 경제대국이란 말과 같이 무선사들의 수도 100만을 넘고 있다. 미국은 이에 60%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우리나라도 빨리 HAM의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교신을 하는가 대해 알아보자. 세계 아마추어 무선연맹이 미국에 있다. 여기서 아마추어를 위해 주파수를 지정해 주었다. 우리는 그 주파수 안에서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등 세계의 사람과 교신을 한다. 무전기를 켜게 되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가 CQ(Come quickly)라는 말이 들리게 된다. 이 말은 "내가 아무하고 교신을 원하고 있으니 빨리 응답해 주세요"라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상대국을 부르기 위해서는 호출부호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곧 성명과 같은 것이다. 이 호출부호는 세계 각국마다 할당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은 HL에서 DS까지 할

당되어 있다. 본인의 호출부호로 예를 들면 HL1SAU이다. HL은 한국을 뜻하고 1은 서울 지역을 뜻한다. 경기도는 2, 충청도는 3, 경상도 4,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SAU라는 것은 부호이다. 이것을 합쳐 얘기하면 한국의 서울에 사는 SAU라는 사람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JA~JZ까지 되어있어서, 무전기에서 호출부호만 얘기하면 어느나라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교신을 하려면 무전기가 있어야 한다. 가격은 약간 비싼편이지만, 다른 취미생활을 장기적으로 할 때 드는 비용이 한꺼번에 들 뿐이다. 특히, 아마추어무선 취미는 처음에 비용이 들 뿐 사용료라든가 전파료 같은 것은 전혀 없다.

그 다음은 안테나이다. 안테나도 G·P(Ground Plane) 긴 장대처럼 긴 것을 지붕에 설치만 하면 된다. 혹은 다이폴 안테나 일명 빨래줄 안테나라고 부른다. 긴 줄에 가운데서 선을 연결해 무전기에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무선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 기본만으로도 충분히 일본, 중국, 대만, 호주 등 여러나라와 교신 할 수 있다.

전파란 참 무한한 것이다. 또 어떤 이는 HAM을 통해 어학의 도사가 된 사람도 있다. 햄의 세계에서는 영어가 공통어이다. 일어, 불어, 독어도 사용한다. 이렇게 어학도 배울 수 있고 얼마나 좋은가? 옛날의 경우에는 CW라는 모스 부호를 많이 사용하였다. 지금도 사용은 하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 지금은 voice급 말로 많이 하기 때문에 모스 부호를 몰라도 자유롭게 교신을 즐길 수가 있다.

또 전세계 우리나라 교포가 많이 해외에서 살고 있다. 이들도 이 HAM을 통해 한국의 사정

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주고 받는다. 이것을 아리랑 넷트 라고 한다.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가 되면 미국의 LA, 워싱턴, 하와이, 캐나다, 브라질,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 교포들이 마이크를 잡고 나온다. 얼마나 좋고 재미있는 일인가?

그러면 한국내에서 보겠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중간에 울릉도에서 나도 끼워주세요 하고 나온다. 지방에 내려갈 경우는, 내가 원하는 곳의 사람을 불러 그곳의 날씨, 도로사정, 교통안내 등을 받을 수 있고 고속도로나 외진 곳에서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이때 한 몫을 발휘한다. 즉시 비상신호를 내 보내면 여기저기서 듣고 있던 무선사들이 나와 병원과 경찰서로 연락을 해줘 인명을 구할 때도 있다. 지금까지 HAM의 유용성과 실예로 몇가지를 얘기했다. 어떻게 흥미가 가는가?

그러면 HAM의 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무선사가 되려면 자격증 없이는 아무나 만질 수가 없다. 만약 허가나 자격증 없이 마이크를 잡는다면 그 안의 규칙이나 내용이 엉망이 되고 만다.

시험은 이론시험 뿐이다. 전파관리법, 무선기기 취급법, 통신보안, 이렇게 3과목을 보고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시험은 쉬운 편이다. 국민학생들도 몇칠만 공부하면 쉽게 합격한다. 한국의 아마추어 무선연맹에서는 이 시험을 위해 교육도 시켜주고 있다.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가장 어려운 무선기기 취급법 과목을 면제시켜 준다. 또 시중에 이에 대한 시험과목서가 나와 있어 혼자 독학으로 시험을 볼 수도 있다.

그 다음 이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보안교육이라는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정상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신시의 주의할 점



이나 말해서는 안될 말등 이런 교육을 받고나면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이후 무선국 신청서를 제출하고 앞에서 말한 호출부호가 부여되고, 그리고 나서 며칠후면 여러분의 손에 허가증이 오는 순간 당신의 말이 세계로 전파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한 무선국의 국장이 된 것이다. 그래서 무선사들은 서로 국장님이라 호칭하고 얘기한다. 아마추어 무선에서는 사람의 직업, 성별, 나이,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다.

아마추어 무선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 한 예로서 1984년 여름이었다. 장마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는 홍수가 나고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집이 침수가 되고 말았다. 이때 바로 다리가 된 이들이 아마추어 무선사들이었다. 통신시설등이 물에 침수되어 불통이 되었을 때, 무선연락으로 이재민을 구하고 많은 인

명과 재산을 구했다. 이때 HAM의 위력을 알고 한국 적십자에서는 전국 각 지점에 무선국을 설치하였다. 비상시에는 어떠한 것보다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전시에는 거의 모든 통신들은 마비가 된다. 이때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다.

외국의 예로 몇년전 걸프전이 있었다. 이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마추어 무선사가 무전기를 통해 전세계로 알려왔다. 이렇게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평시에는 취미생활 그대로 즐거운 교신을 나누지만, 전시나 비상시는 국가를 위해 나선다. 이렇게 무선사들의 자랑스러운 일들은 수 없이 많다.

잠시 한국의 아마추어 무선의 역사에 대해 말해보겠다. 우리의 HAM 역사는 얼마되지 않았다. 6·25전쟁 직후 미군들이 남기고 간 통신기기들을 주서 모아 BCL 생활을 하다가 상업용으로 쓰이던 것이, 몇몇 사람이 모여 어려운 시절

에도 불구하고 무선연맹을 탄생시켰다. 이때부터 정식적으로 아마추어 무선역사가 시작 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가 시작이다. 미군들은 HAM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군기지에는 미군 햄클럽이 있다. 그들은 한국에서 햄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진국일수록 HAM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체국이 많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단체국이란 회사, 학교, 관공서 등에서 몇 명의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곳에도 무선국을 설치할 수 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의 대학생들이 지방대학생들과 많은 교류와 좋은 내용을 주고 받는다.

아무추어무선을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FOX 탐지대회라는 것인데, 이것은 산속에 전파를 발생시키는 물체를 차례대로 숨겨놓고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경기이다. 이때 손에는 안테나와 같이 생긴 탐지대를 들고 누가 빨리 찾아 돌아오느냐에 승부가 나는 것이다. 또 하나는 QSL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신을 마친 후에 교신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내가 만약 아르헨티나의 작은 섬에 있는 사람과 교신을 했는데, 이것을 남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QSL카드라는 것이다. 우편엽서와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특징적인 사진이나 그림 등을 새겨 놓는다. 뒷면에는 교신시간, 날짜,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봉

투에 넣어 상대방에게 보내주는 것이다.

이 QSL카드를 가지고 주는 상이 있다. AWARD라고 하는데 모든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 QSL카드에는 각지역 번호가 있어 서울같은 경우 구와 동이 있다. 이 서울지역과 교신을 다했다는 증거로 서울의 QSL카드를 다 모아서 무선연맹에 제출을 하게 되면 주는 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 이것을 전국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세계를 상대로 할 수도 있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일본에서 실시하는 AWARD에 참가해, 일본의 모든 현에 있는 무선국과 교신을 했다는 증명으로 모두 모아 제출을 하였는데 여기서 수상을 하게 되었다. 그 카드의 수는 30만장 이었는데 일본에서도 놀랄만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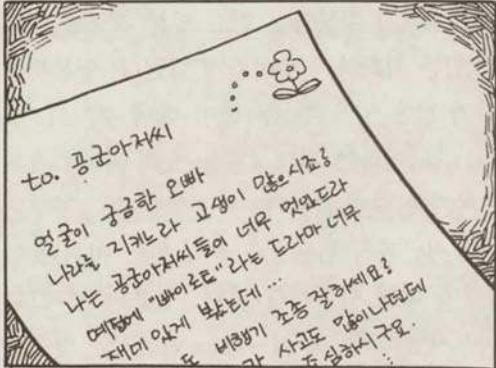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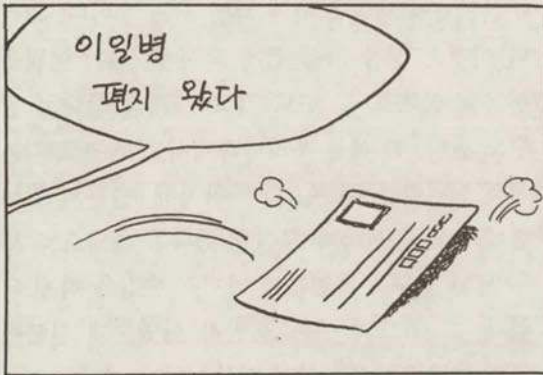
그 대회에서 수상금을 받고 일본 전국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받게 되었다. 일본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한국사람이 해낸 것이다. 이렇게 HAM이라는 취미생활을 통해 자기만족도 하고 국가를 빛낸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햄생활을 통해 얻는 이점과 여러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일본이 세계1위 이라고 자랑하지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우리의 무선기기 산업도 발달할 것이고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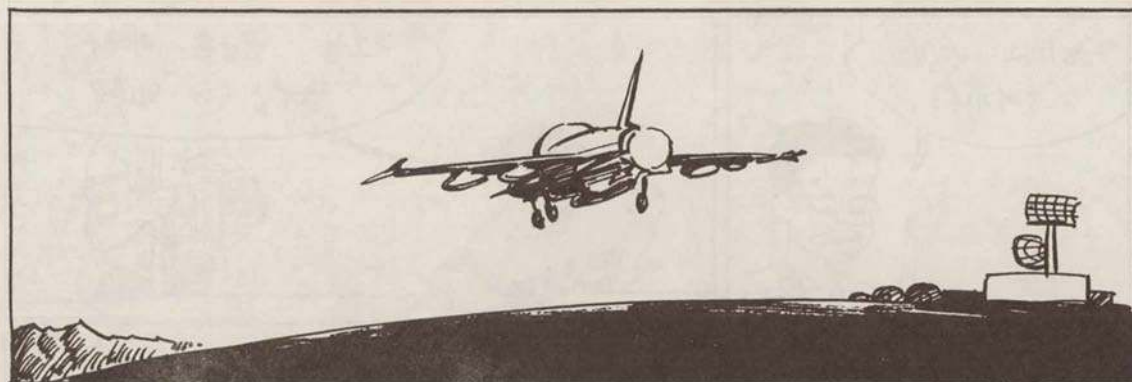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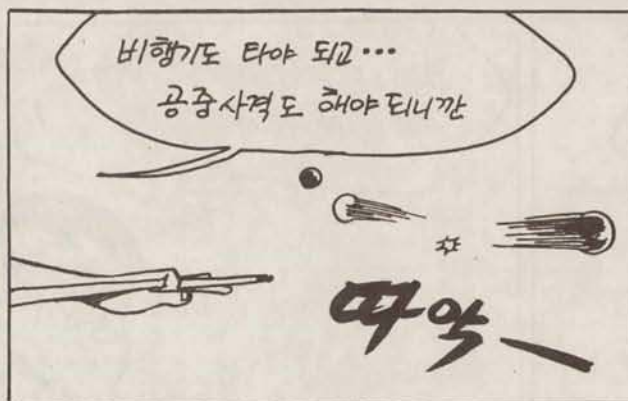
아마추어무선은 취미의 왕이다. 여러분도 햄이라는 것에 입문하게 되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공군부대에 HAM 무선국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등근**

1996년의 기억들

글.그림 고석현







1996년 5월 23일

애 애 애 애 경

타 타 타 타

무슨 일입니까?

북괴기 함대가
휴전선을 넘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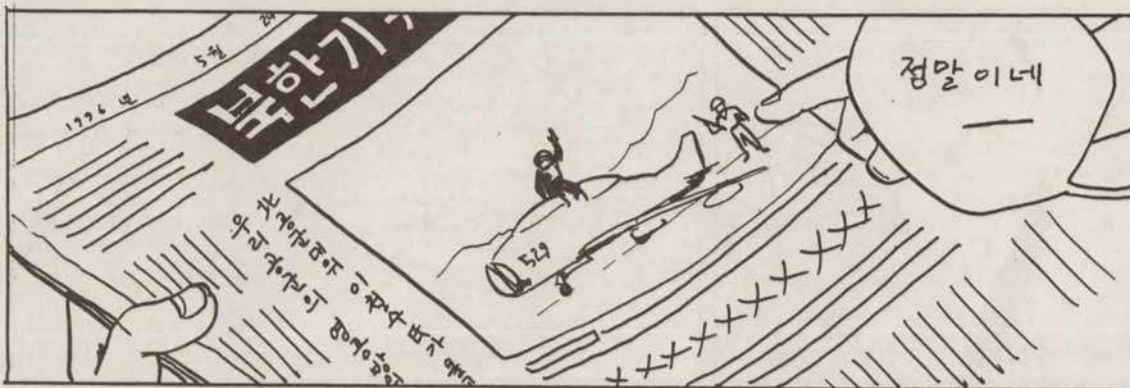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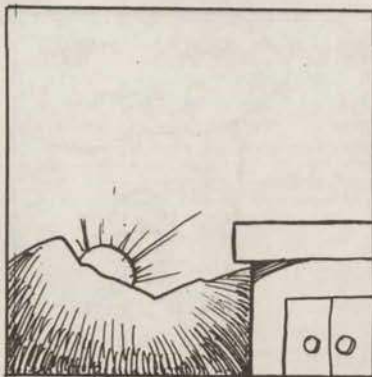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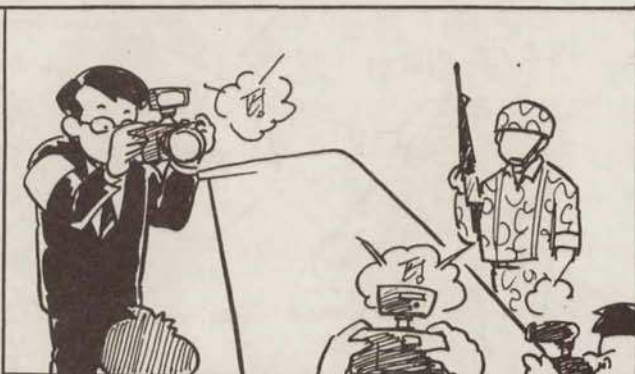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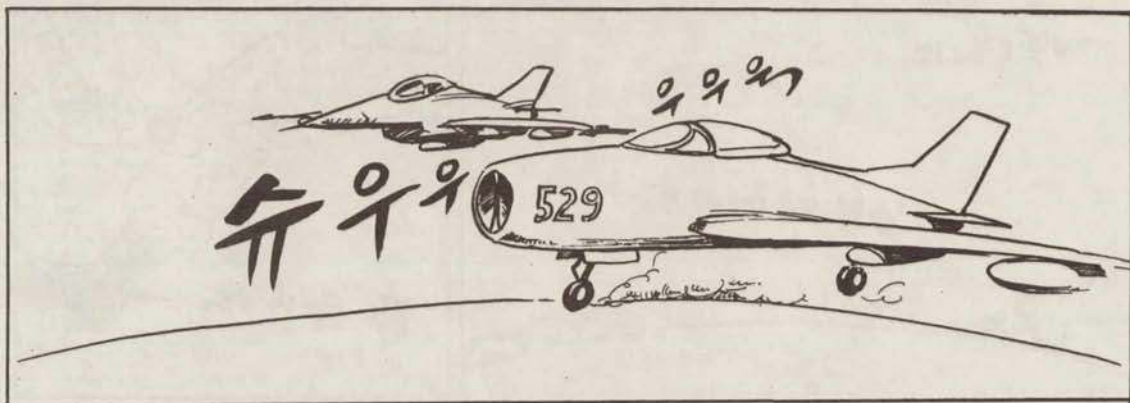
전 장병
전투대기
위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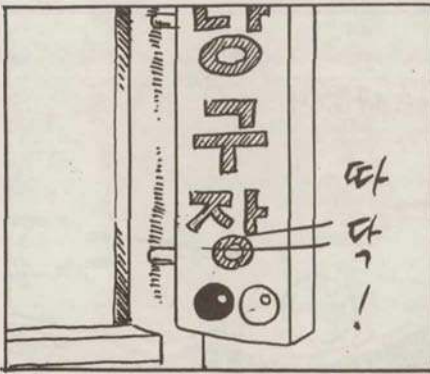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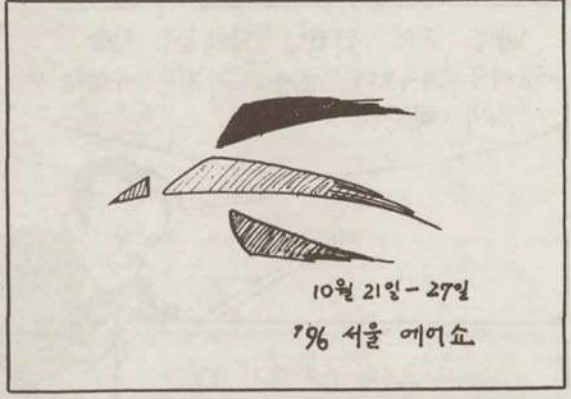
북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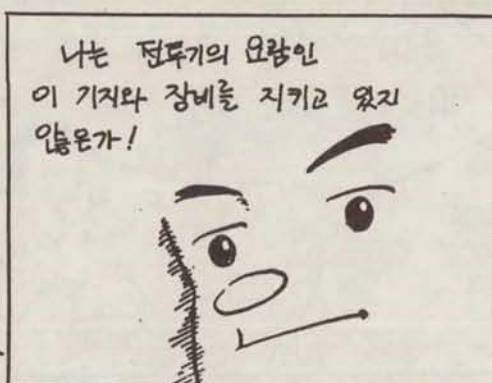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

귀순기가
도착한다!







우리 공군은 어느 한곳의
우수함을 통해 작전 성공이 이루어
지는데 아니라



된 부서의 인사분량한
팀원 체제가 타군 보다 큰 역할로
살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멍?
눈이 잦아?



내일 아침엔
제설작업으로 바쁘게 구만



**겁없는 밤의 용사들이여!
뜨거운 내 조국에도 조국의 자유와 평화는 보장되리니
밤을 잊어버리고 새날이 밝을 때까지
젊음과 청춘을 불태워보자!!**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를 읽고서

김 광 희

중령/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참모부



대방동에서 국방부로 출근하는 버스에서 후배 000 소령과 이 가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30여분간은 교통체증의 짜증스러움을 잊게 하여준다. “선배님 유봉식씨 아십니까? 참 대단한 분입니다. 15세에 훌훌단신 현해탄을 건너가서 오늘날 세계 각국의 언론으로부터 서비스 세계 제일의 기업이라는 찬사를 받고있는 MK택시회사를 경영하고, 88년에는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에서도 제2의 MK택시회사(택시 500대 무상제공 조건) 설립 권유까지 받았을 정도니 말입니다.” “그래 나도 언젠가 모 방송국의 TV특집 프로그램에서 시청한 적이 있었던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내일 유봉식씨의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라는 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수송장교분께서 읽으시면 더더욱 공감이 가시는 부분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1960년 10대의 택시로 사업을 시작한 후 현재 660여대의 차량을 보유, 연간 매출액 3백만

엔을 상회하는 MK택시를 비롯 MK석유, MK산업 등 10여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그룹으로 성장시킨 신화와 기적의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진 유봉식씨!

그는 MK라는 작은 택시회사가 이루어낸 기적(?)에 대해 박수를 보내기 보다는 그 기적을 흠뻑가는 “알리바바”가 대한민국에서 속출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하나는 유봉식이란 인간에 대해서도 자수성가한 재일교포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평범한 한 인간의 고난에 찬 역경으로 평가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한다.

이미 고인이 된 선우 휘씨의 1985년 1월 6일자 조선일보 칼럼에 실린 “위대한 보통 사람”이라는 내용을 인용하면,

외국인에게 짜다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인 교포로서 그만큼 될 때까지의 창의력 발휘나 의지적인 행동으로 보아 유봉식 씨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TV 화면에 소개되는 이 사람을 2시간 동안이나 지켜보면서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유씨가 몇 대의 택시를 가지고 택시업을 시작하여 660대를 보유하는 MK택시회사로 키울 때까지, 내가 보기에 유씨가 나타내 보인 남다른 기발한 재간은 한 가지도 없는 것이다.

택시업은 손님에 대해 서비스 하는 것이니까 서비스를 잘 해야겠다. 그러니 손님이 기분 좋도록 친절히 해야겠다. 언동이 부드러워야 하며, 청결하고……. 또 운전기사들이 제시간에 나와 잡념없이 일하려면 집안걱정이 없어야겠다.

집안 걱정 가운데서 제일 큰 것은 주택문제니 그것을 해결해 줘야겠다. 사장이라고 초심을 잃으면 안 되니 때로는 자신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는 것이 좋겠다. 사람이란 긴장이 이완되기 쉬우니 때때로 자기 수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정신수양과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등등.

그러니까 유씨는 사업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을 끝이끝대로 그저 충실히 했을 뿐인 것이다. 정직한 보통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유씨가 성공한 것은 오직 보통 사람의 생각을 보통 사람으로서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씨는 보통 의미의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보통 사람, 즉 위대한 보통 사람이 된 것이다.

선우 휘씨의 칼럼 내용에 동감하면서 나의 견

해를 부연해 보면, 유사장은 상식대로 끊임없이 생각하며 일하였고 좋은 생각이 들면 망설이지 않고 시도하여 온 데서 그 신화의 원동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35년간 추구해 온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이다.

MK에게 수익과 2천여 가족의 생계비와 사회적 공헌까지도 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교토시민에게 한시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둘째, 철저한 서비스 정신 발휘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손님은 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MK에서의 손님은 왕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 모시고 싶을 정도로 고귀한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MK의 영원한 케치플레이즈는 "손님을 신으로 모신다."이다. 수입의 원천인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 무엇이든 한다. MK에는 공항 귀빈실과 흡사한 택시 대합실이 곳곳에 위치하여 비가오나 눈이오나 안락한 환경속에서 손님들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으며, 전 차량에 비상약과 구급약 일체를 소지함은 물론, 전 운전자가 공식 구급원 자격까지도 취득하여 위급한 손님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최신 컴퓨터를 활용한 AVM(자동차 빈차표시 장치) 시스템은 콜택시보다 월등히 빠른 시간대에 고객에게 달려 갈 수 있으며, 신체 장애자에 대한 우선 탑승배려 및 요금 10% 할인 등, MK 서비스 정신은 매일 아침 정각 7시에 유사장이 MK 무선국을 통해 방송되는 운전자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로써 발휘되고 있다.

셋째, 사원 교육이다.

운전자 유니폼 디자인을 위하여 세계적 디자

이녀인 모리씨에게 4년간이나 매달려 1천만엔이라는 거금을 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자부심을 갖게하는 교육효과를 불러 일으킨 것이 사원교육의 대표적인 예이다. 고객 서비스를 기술개발의 대상으로 삼아, 한낱 지방의 택시회사인 MK에서 1년 매출액의 10%이상(한국돈으로 약 3백억원)을 투자하는 것만 보아도 유사장의 철저한 서비스 정신과 사원교육은 과연 "MK맨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다.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항공대학, 마도로스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대학에 진학하는데 택시운전자는 단지 운전 면허증만 소지하는 점이 오늘날 운전자의 지위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며, 손님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대학을 설립하여 전문인 택시기사 및 관리자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구상중이라고 한다.

MK의 First Hireman(소위 1급 임금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휴일에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남다른 노력이 요구된다. 유창한 영어회화 실력, 일본의 문화, 역사 공부, 각종 승급시험 등의 자격시험이 있는데 이들이(현재 약 20명) 그간 모신 VIP만 해도 카터 미대통령,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 메르세데스 벤츠 사장, IOC 위원장 등 거두로 부터 브룩셀즈, 레너드 번스타인 등 유명 스타도 교토에 오면 MK 택시를 탄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그저 부럽기만 할 따름이다. '94년도 일본의 전국 대학생 앙케이트 조사결과 일본의 세계적인 그룹 미쯔비시 상사, 니혼전기, 혼다 등과 함께 취업하고 싶은 기업 4위로 꼽힌 것은 운전사의 임금을 일반기업체 부장급과 같은 고임금을 보장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세상의 어떤 경영자도 쉽게 가져보지 못한 아주 귀한 것이다. 그것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나의 자산 1호는 바로 2천명에 이르는 MK직원들이다."라고 밝힌, 유봉식 사장의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히 여겨줄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두레정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MK의 ○○○입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 까지 MK의 ○○○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으신 물건은 없으십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사말이다. 그러나 MK에서 이를 진정한 마음과 행동으로 옮기는 데만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상식으로 보이는 것을 실천하고 노력하면 사람들은 소위 기적이니 신화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등문**

“삼국지”를 읽어 보셨나요?

김 기 표

상병/제18전투비행단 야전정비대대



삼국지는 동안 말, 위·촉·오 삼국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시대 배경으로 하여 그 당시 특출하고 복잡한 정치·군사적 사건들을 드넓은 하나의 화폭에 담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는 듯하다. 이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책을 아직껏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대충이나마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개한다.

삼국지에 묘사된 사백여 명의 인물 가운데 주요 인물들은 모두 그 성격이 뚜렷하고 생동하는 예술적 전형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인물들은 곧 작자의 사상적 경향이 구체화되어 표현된 것으로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1. 맹덕 조조

조조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의 성격들 가운데 매우 성공적으로 구성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상 조조란 인물이 걸출한 정치가요, 군사사이면서 한편 잔혹한 압제자였던 사

실과 부합되게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에서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닌 양면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는 황제의 측근인 환관에게도 차별없이 벌을 내릴 정도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엄격한 면도 있었으며, 동탁을 토벌하려고 동맹을 맺은 군벌들이 자신들의 세력과 영토를 확장하기에만 급급하자, ‘오늘날 서로 의심만 하고 진군치 않으면 크게 천하의 희망을 잃는 것이니,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여 질책하는 기질도 있었다.

조조는 사람을 쓰는 데 그 출신의 귀천이나 직위의 고하를 따지지 않았다.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내리는데 귀천은 따져서 무엇하겠는가’라는 생각은, 그의 휘하에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고, 마침내는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중원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병법에도 뛰어나 항상 소수로써 다수를 이기고, 약세로써 강세를 극복해 왔다. 여포에게

거의 잡히게 된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적의 계략을 역이용하여, 마침내는 여포를 대패시켰다.

한편 조조의 부정적 성격도 여실히 묘사되어 있다. 여백사의 전가죽을 몰살한 뒤, '내가 남을 저버릴 지언정, 남은 나를 배반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 부친의 복수를 위해 서주를 점령하고 '성안의 백성들을 모두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잔혹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은 특히 유비와 대비될 때 더욱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백성에 대한 조조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봉건통치자들의 일반적인 태도이기도 하며,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그들은 그들 사이의 투쟁에 있어서 영웅이며 인재이기는 하나, 백성들에게는 모두 잔혹하거나 허위적인 일면들을 지닌 압제자였던 것은 사실이다.

2. 현덕 유비

삼국지중의 유비는 어질고 너그러운 명군이다. 그에게 부여된 작자의 사상은 봉건 시대의 백성이 폭군을 반대하고 명군을 염원했던 정치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유비는 왕도를 주장하고 인정을 베풀어 조조와 뚜렷한 대비가 된다. 작자는 그에 대한 찬양과 미화를 아끼지 않아 그는 백성들로부터 무한한 신임과 경앙을 받는다.

그는 인재를 알아볼 줄 알았고, 또 한번 신임하면 그것이 변치 않았다. '삼고초려' 하여 제갈양을 출산(出山)시키고 대임을 맡긴 뒤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를 믿었으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의 신뢰는 변하지 않아 제갈양에게 그의 아들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성실과 신임으로 군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은 봉건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일로 유비의 능력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는 야심만만한 인물로 '보국안민'의 가치를 들고 한나라 헌제의 정통지위를 지킨다는 명분을 갖는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으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봉건 통치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며, 작자의 의도적인 미화에도 불구하고 허위와 모순된 언행을 보여준다. 헌제가 폐위되고 조비가 제를 칭하자 유비의 신하들은 유비에게 빨리 제위에 오르도록 권한다. 그러나 유비는 안색이 변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역적이 하는 일을 본받겠는가' 하고, '경들은 나를 불충 불의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가' 하고 꾸짖었으나, 곧 제위에 오르고 만다.

3. 공명 제갈양

제갈양은 삼국지의 등장 인물 중 비교적 형상화에 성공한 인물이다. 작자는 그를 이상적인 어진 재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그를 찬양하고 미화시켰다. 유비가 명군의 표상으로 묘사된 것처럼 제갈양도 삼국지에서 긍정적인 인물의 한 사람이다. 그는 유비의 '삼고초려'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충정과 지혜를 다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생을 오로지 유비를 위해 분투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천하를 다스릴만한 뛰어난 재능으로 촉한의 패업을 이루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다. 촉한의 흥망성쇠와 삼국의 중대한 정치·군사적 사건들은 모두 그와 관련되어 있다. 그는 소설에 등장한 이후 계속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되어 많은 사건들에 있어서 관건이 되어 준다.

그는 무궁한 지혜와 탁월한 재능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전형이다. 적의 화살을

고스란히 빼앗아 오는 그의 전술과 각종 계책·지모,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거문고를 뜯는 인간적인 여유와 자연의 비밀을 아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지혜의 화신'이라는 글 속에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4. 중모 손권

손권은 오나라의 초대 황제이나, 그 시대의 조조나 유비에 비하면 다소 인상이 뚜렷하지 못한 느낌이 없지도 않다. 예를 들면 조조에게는 '간웅', 유비에게는 '탁인'이라는 식으로 각기 이름 위에 붙여지는 강렬한 인상이 있다. 그러나 손권은 한마디로 그 사람됨을 나타낼 만한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인물이다. 이것은 바로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의 영향이 크다. 여기서 축이 주역이고, 위가 악역, 오는 조연이라는 것이 3개국에게 주어진 배역이기에, 필연적으로 오에 대한 인상이 희박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명도나 인기같은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능력과 합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손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역시 범용한 이는 아니었다. 그렇지 않다면 군웅할거의 난세를 타개하고 능히 정립의 한 다리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삼국지의 작가 진수는 손권을 평해서 '손권은 몸을 굽혀 욕을 참고, 재주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계략을 숭상하여, 구천(句踐)의 기영(奇英)이 있어 남보다 뛰어나다'고 쓰고 있다.

확실히 손권은 구천과 마찬가지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가만히 몸을 굽히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강한 일면을 가지고 있었다.

5. 중달 사마의

사마중달은 조조에게 있어서 유비의 제갈량과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능파로서의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진서'에는 중달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가령 상대를 싫어하고 있더라도 그런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의심이 많은 성격이며, 임기응변의 술을 장기로 했다.' 약간 음성적인 경향이 있지만 권모가로서의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 그에게는 낭고지상(狼顧之相)이 있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이 뒤를 돌아볼 때는 목뿐 아니라 몸째로 뒤로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중달은 몸은 그대로 두고 목만 180도 회전시켜서 뒤를 돌아볼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 중달이 이능파로서의 재질을 꽃피게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조조였다. 젊을 때의 중달은 조조를 섬김으로써 철저하게 훈련을 받

았다.

조조와 중달은 같은 권모가라도 조조는 양성이고 중달은 음성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이능파의 권모가라는 점에서는 같은 타입이었다. 조조가 중달에게 품은 경계심은 이능파가 이능파에 대해서 품은 경계심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중달은 충실하고 부지런히 조조를 섬김으로써 그의 경계심을 완화시키고 차차 신임받게 되었다. 그리고 측근에서 섬김으로써 조조가 장기로 삼은 권모술수의 비법을 배우고 그것을 몸에 익혀 나갔다. 중달이 싸움에 임할 때마다 '손자'의 병법에 입각한 싸움을 했던 것은 조조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조조야말로 '손자' 연구에 있어서 제1인자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달은 조조의 막하에서 성장해 나간 인물이었다. 출람지예(出藍之譽)라고 해도 좋을지 모른다.

6. 운장 관우

관우는 삼국지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의 하나이다. 작자는 그를 대의를 중시하고 강직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다. 소설 중에서의 관우는 '충의의 화신'이며 작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의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는 무위(武威)가 아니라 의를 산같이 중히 여기는 그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잠시 조조의 신세를 지면서 그를 아끼는 조조로부터 술한 유혹을 받았으나 끝내 유비를 잊지 않고 돌아가는가 하면, 또한 조조에게 끼친 신세를 보답할 것을 잊지 않아 그의 생명을 한 번 살려 주기도 한다.

그러나 군령을 여기면서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조조를 놓아주는 그의 의리는 천하를 위한 대의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은원에 이끌린 소의라

할 수 있겠다. 대국을 볼 줄 모르고 마침내 살신의 화는 물론 오·촉 연맹의 파괴까지 몰고 오는 그의 처신은, 개인적인 의리와 그에 대한 사소한 공명심에 대한 집착이라는 관우의 또 다른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물론 그의 성격으로 인한 파국은 훌륭히 소설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7. 의덕 장비

삼국지에서 장비도 역시 매우 인상깊은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팔 척 거구에 사납게 생긴 용모와 벼락같은 목소리를 지니고, 그 기세가 항시 달리는 말처럼 드센 호장이다. 그는 호탕하나 성질이 급하고 악을 원수 보듯하며, 마음은 곧고 생각없이 느끼는 대로 말해 버리는 성격이다. 탐관오리를 본능적으로 증오하며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러나 원래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제갈량에게 한번 감탄하게 되자, 곧 말에서 내려 배복하여 승복할 만큼 사실을 중시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을 줄 아는 일면도 보인다.

그는 장관교의 일전에서 단신으로 조조의 군사를 막아내는 위용을 보여 이름을 떨친다. 그 역시 관우와 함께 충의의 화신으로 이 소설 속에 구체화된 인물이다.

이밖의 많은 인물들이 생동감 있게, 또한 독특한 성격으로 형상화되어 삼국지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이 인물들은 서로의 사상·정신적인 면과 더불어 충돌하거나 연합하여 사건을 이루어 나간다. 이러한 대 서사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이기에 아직껏 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추천하고픈 책이다. **등재**

공·군·문·단

과학칼럼

- 열역학 제2법칙의 관점에서 본 삶의 양과 질

시

- 해바라기의 꿈
- 통일의 그날 위해

수필

- 장경각(藏經閣)에 핀 연꽃
- 다시 이별의 순간에 생각하는 삶의 의미

소설

- 닳을 내린 은하수

공트

- 하이힐(High Hill)

병사들의 이야기

- 꿈은 갖는 이들에게
- 생각을 바꾸고 사랑을 나누며
- 주어지는 일보다는 찾아서 하는 일

열역학 제2법칙의 관점에서 본 삶의 양과 질



이 기 영

중령/공군사관학교 교수부

머리말

필자는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열역학등 열·유체 계통의 과목을 수년 동안 가르쳐오고 있다. 이공학 계통의 학문들은 자칫 잘못하면 수식을 나열하는 정도의 강의로 흐르게 되어 다소 따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이를 우리의 주변 생활과 연결지어 설명하면 좀 더 흥미를 갖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곤 했다. 열역학 역시 고전 물리학의 한 부분으로써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없으면 학기 내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쉽게 이해하면서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교수로서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대부분의 생도들이 열역학 제1법칙은 잘 이해하면서, 제2법칙에 대한 이해는 몹시 더디거나 개념 정립에 몹시 어려워함을 느꼈다. 이에 이들 법칙들을 우리의 사회현상과 연관지워 설명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생도들의 동계 특강 기간에 활용하고자 작성한 내용의 일부이다. 어떤 부분

은 너무 이론을 확대 해석한 면도 없지는 않으나, 우리의 일상 생활을 돌아보는 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여 감히 정리해 본다.

열역학은 제0법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3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Nernst의 열정리에 이르는 네 가지의 법칙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들 법칙들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열역학을 학습하는 골간이 되고 있다. 특히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 불리는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의 양과 에너지 형태의 변환을 설명하여 주는 법칙으로 에너지의 양적인 측면만을 설명하고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법칙이다. 반면에 열역학 제2법칙은 에너지의 질 뿐 아니라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질적 저하도를 적절하게 표현하여 주는 중요한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홀하게 다뤄진 듯한 느낌이어서,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조차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우리 주위의 삶을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양과 질(Quantity & Quality)

우리 사회는 과거 20~30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양적인 팽창에 치중하여 오로지 앞만을 보며 여유 없이 살아온 시대라고 감히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몇 %의 성장이 중요한 것이지 삶의 질적인 문제는 항상 뒷전에 처지게 마련이었고, 출세 지향적인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지 않을 수 없는 어찌면 매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그러한 폐단에 눈뜨기 시작한 신세대의 자기 중심적이고 향락적인 가치 문화가 기성세대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과거 70년대에 닳았던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서는 여기저기서 에너지를 절약 하자라는 구호가 홍수를 이룬 적이 있었다. 그 당시의 경험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면, 무엇을 절약하자는 습관이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는 몰라도 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는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우리의 관습상 현대에 들어와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물질 만능의 '양'을 추구하는 습성—크고 많은 것—때문에 '질'의 측면의 소홀함을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A는 10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무슨 회식이 있다고 하면 좀처럼 빠지지 않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항상 A의 곁에 나타나지만, 정작 A가 이들

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바쁜 친구들이라고 하자. B는 A의 반뿐이 안되는 5명의 친구가 있을 뿐인데 B가 도움을 요청하면 결코 바쁘다고 소위 빼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는 자명한 일이 아닌가? 같은 크기의 보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표면의 매끄럽게 다듬어진 흠이 없는 보석과, 크기만 클 뿐인 흠집 있는 보석은 그 가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요즈음 국내의 각 대학에서 핫이슈로 등장했던 교수 업적평가제의 제요소들을 보더라도 양적인 측면이 우선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의 업적 평가는 교수의 세가지 기본 임무라 할 수 있는 강의능력, 연구능력 및 사회에의 봉사 정도로 측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수의 연구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우선 그 교수가 얼마나 많은 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비를 획득하였는가에 교수의 연구능력의 척도로 삼고 있다. 이 부분을 논의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임에 오해 없기 바라는 마음이다. 매우 재주 좋은(?)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한편의 우수한 논문으로 발표하기보다는, 둘 혹은 그 이상의 논문으로 희석시켜 발표하는 경우도 없지 않음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방법이 교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요령이 되기도 하는 서글픈 현실이고, 그렇게 하게끔 몰아가게 하는 제도의 맹점이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논문을 발표하였더라도 새로운 지식 증가의 기여에는 거의 없다면, 제아무리 발표된 논문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 자원과 시간의 낭비일 뿐인 것이다. 외국에는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논문에 얼마

나 많이 인용되고 있는가로 논문의 질적 측면을 측정하는 한 방법으로 인용되기도 한다. 물론 질의 측정은 양의 측정보다 몇 배나 어렵고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아뭏튼 이와 같은 '양' 적인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교수들로 하여금 고품질의 논문보다는 '질' 적으로 의문시되는 논문들을 양산하게 됨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또는 실패 위험이 높은 연구의 착수를 기피하게도 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물론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질적인 측면은 차치하고서라도 교수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마저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과, 주변 여건이 '질' 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필자 자신도 요구수의 논문을 쓰기 위해 학교의 일과 생도들의 강의 속에서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에의 유혹을 떨쳐 버리고, 열역학 제2법칙의 관점에서 실제적 가치를 검증해 내는 학문적 질을 높이는 작업을 시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비단 위에서도든 내용 뿐 아니라 나 자신,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엔트로피와 엔트로피의 생성 (Entropy & Entropy Generation)

열역학 제2법칙을 설명할 때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언제나 동반하게 된다. 생도들을 가르칠 때에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 제1법칙을 설명할 때보다는 제2법칙을 설명할 때 더욱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특히 엔트로피를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두루몽실하게 넘어

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엔트로피라는 것이 상당히 관념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열역학 용어로서의 엔트로피라 함은 분자들의 무질서도(disorderness) 혹은 무작위도(randomness)를 나타낸다. 즉 계 내의 분자들이 더욱 더 무질서하게 되면 그들의 위치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더 어려워짐을 의미하며, 이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된다. 계의 엔트로피는 계의 미시적 상태를 가능한 경우의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의 열역학적 확률을 p 라 하면 엔트로피를 다음과 같은 볼츠만의 관계식(Boltzmann Relat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

$$s = k \ln p$$

여기서 k 는 볼츠만의 상수로 $k = 1.3806 \times 10^{-23} \text{ kJ/mol} \cdot \text{K}$ 의 값을 갖는다.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의 형태만이 변화할 뿐 에너지의 총량은 변화하지 않는, 즉 보존되지만(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의 질은 감소하게 된다(열역학 제2법칙). 이와 같이 에너지의 질이 감소함은 항상 엔트로피의 증가를 동반하게 된다.

엔트로피를 공학 분야 이외에 적용하여 여러 사회 현상들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사실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이미 사회 과학 계통의 여러 글들에서 언급된 바 있다. 여기서는 우리의 생활과 연관지워 엔트로피 관점에서 생활의 질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엔트로피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무질서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엔트로피 관점에서 본 효율적인 사람은 매우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엔트로피를 적게 생성되도록 (모든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 열역학 제2법

칙)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로 이러한 사람은 모든 물건들을 찾기 쉽게 잘 정리해 두어 필요시 최소의 에너지가 들도록 한다. 또한 이들은 학습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효율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새로운 학습 정보들을 기존의 잘 정리된 지식 체계 속에 알맞게 재배치시켜 저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도서관을 예로 든다면 같은 10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엔트로피를 생성하는 도서관은, 잘 정리된 책장과 분류 체계로 고도로 조직되어 있어 원하는 정보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획득할 수 있으나, 고-엔트로피를 생성하는 도서관의 체계는 많은 도서를 단지 쌓아 두기만 한 책창고의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는 이치와도 같다.

열역학을 강의할 때 엔트로피를 생성시키는 비가역과정의 대표적인 예로 기계적인 마찰을 많이 인용한다. 기계적인 마찰이 엔트로피를 생성시키는 대표적인 비가역과정인 것과 같이, 직장에서 동료들 간의 마찰도 필연적으로 엔트로피의 증가를 동반하게 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업 공간에서 엔트로피의 생성이 최소로 되게 하는 일, 즉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마찰 요인을 없애는 일이 생산성이 높은 집단으로 이끄는 첩경이 된다. 엔트로피를 생성하는 또 한가지 전형적인 비가역적인 예가 자유팽창 혹은 통제되지 않는 화학 반응인데,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한 남에 대한 응답은 매우 비가역적인 고엔트로피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비가역과정이 이미 진행되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갈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미치게 된다.

몇 가지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생활이

가능하면 엔트로피가 적게 생성되는 방향으로 생활하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회는 혼자가 아닌 남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이 상호작용에서 서로간에 엔트로피의 생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열역학 제2법칙의 관점에서 본 삶 (2nd Law Aspects of Life)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열역학 제2법칙의 개념은 우리 일상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위의 이론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광범위하게 적용한 사람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점차로 삶의 '질'이라는 것이 '양'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인식하는 단계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하루의 몇 시간을 일했는가(열역학 제1법칙) 보다는,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열역학 제2법칙)의 문제인 것이다.

인간의 유용성(혹은 능력)이라는 것은 육체적 능력과 지적 능력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계량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능력은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신장되고, 나이가 들에 따라서 감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계와는 달리 인간의 능력은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하되게 되어 있다. 한 드림의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도 기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로서의 능력은 변화하지 않으나, 인간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저하되기 마련이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정도의 능력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하히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가, 혹은 그대로 묻혀 버리는 가는 그 능력을 적절한 시기에 발굴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지적 능력에 관한 인간의 능력에 있어서는 집중력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일을 시작하였다면, 그의 집중력 즉 지적 능력은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능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피로하게 되어 아래의 그림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감소될 것이다.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제1법칙의 관점에서 본다면 같은 4시간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차이점이 없지만, 제2법칙의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학습하는 일은 TV를 시청하는 일보다 더 많은 지적 집중도를 필요하게 되어 집중력이 클 때 학습하고, 집중도가 저하될 때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덜 필요한 TV를 시청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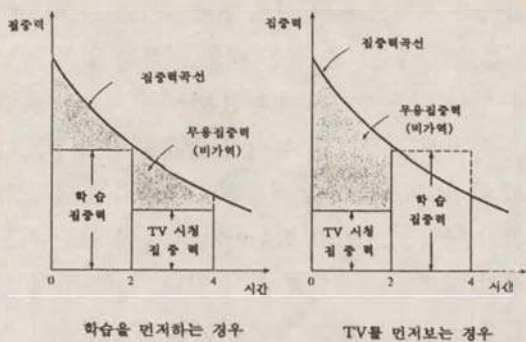
에서 제1법칙을 따르는 효율의 인간은 투입된 노력(에너지)에 대한 성취만을 말하고, 제2법칙의 입장에서의 효율은 동일 조건하에서 가능한 최대 성취에 대한 실제의 성취 정도를 나타낸다. 인간의 행복이란 이 제2법칙의 효율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 아이는 가장 행복한 인간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 이는 그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의 거의 없는데 반하여 그들의 제한된 능력 안에서 매우 잘해 낸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어른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성취하였는가 하는 회의에서 불행이 싹트는 것이 아닐는지.....

맺음말

요즘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선배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하고 있다. 그 진위를 기사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성취한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가 더욱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된다. 해외에서 물 쓰듯 낭비 행각을 벌이는 인사들의 기사를 보면서,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가치있게 쓰는가가 중요함을 인식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양적인 사회가 아닌 질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꿈꾸게 된다.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사회는 양적인 팽창만을 지향하는 삶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자신의 능력을 도외시키고 남의 능력을 가치 기준의 준거로 삼아 자신의 생활을 양적으로 비교하면서,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신이 성취한 능력과 부를 이웃과 사회와 함께 하는 질 높은 사회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등단



일반적으로 제1법칙의 관점에서의 효율이란 연고자 하는 출력과 필요 입력의 비로 정의되는데, 여기서의 효율은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반면에 제2법칙의 관점에서의 효율은 동일 조건하에서 실제의 출력과 최대한 가능한 출력과의 비로 정의된다. 우리의 생활

해바라기의 꿈

김 성 민

대위/제6639부대 131대대



하늘 문을 연 해바라기 씨알
아래로,
솟아 비상할 듯 선 생명

누가 알을까
긴 숨아래 물어 간
그녀의 꿈

에너벨리의 사랑보다 긴 숨으로
판도라는 호기심에 문을 열었지만
그녀는 초록 위에 선다

하늘 문을 닫는다
씨알을 이어 초롱
댄 반딧불 궁뎅이가 아름다울 줄 알까

1막, 1장 2장.....

눈을 지우고 귀를 떠 보라

2막, 1장 2장.....

만인에게 관대한 손이

3막, 1장 2장.....

심장에 와 단다

· · ·
· · ·
· · ·

통일의 그날 위해

김길수

하사/방공포병학교 교육대대



아름다운 동해 바다
붉게 물든 해안선에
우뚝 솟아 오른 검은 그림자
그네들은 우리의 동포인가?

장엄한 오대산
가을의 한적함 속에
서늘이 시퍼런 한발의 총성과
한으로 뿔리어 버린 가슴
그 속에 묻어 둔 민족애 마저 앗아간
붉은 영혼이여!
그네들은 우리의 민족인가?

죽음의 마지막 안간힘 속에
몸부림치며 싸늘히 식어 갔을
전우들에게
단란했던 가정
사랑했던 연인이 있었음을
그네들은 아는가?
어떠한 말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소리없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린
젊은 영혼들!
이것이
그네들의 통일의 길인가?

위선의 동포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위해서 라면
총부리가 아닌
따뜻한 체온 흐르는
가슴 부등켜 안을 수 있는
통일의 그날 위해
우리의 가슴 비워 두리라.

장경각(藏經閣)에 핀 연꽃

최 중 호
수 필 가



팔만대장경이 폭파될 뻔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장경이 만들어진 후 700여년. 그 동안 해인사에 많은 재난이 있었지만, 유독 대장경만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신비의 대장경을 보기 위해 해인사로 갔다. 겨울철이라 산과 들도 진면목을 보이고, 길 또한 한가해서 유적을 둘러보고 감상하기엔 겨울이 제격인 듯 싶었다.

해인사는 일주문 앞에서부터 축제 분위기였다. 얼마 전, 대장경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 록된 것을 봉축했던 연등과 깃발들이 그 여운을 함께 하고 있었다. 이제 대장경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자랑스럽게 보조해야 할 문화유산이 된 것이다.

우선 대적광전에 들러 배관(拜觀)한 후, 돌아

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장경각(藏經閣)으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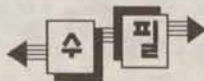
대적광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장경각은, 대적광전에 모셔진 비로자나부처님이, 법보(法寶)인 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상이라 한다.

거미줄 한 번 친 적 없다는 장경각은 담으로 둘러져 있었고, 다시 그 담을 담쟁이 넝쿨이 덮고 있어, 귀중한 법보를 모시는 곳이라 이중 수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일까? 장경각 위론 새도 함부로 날지 않고, 안으론 들짐승 한 번 들어 온 적이 없다고 한다.

장경각 문으로 들어서니 대장경을 모신 첫 번째 건물인 수다라장(修多羅藏)*이 나왔다. 수다라장의 문은 여느 문하고는 달랐다.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니라, 판자를 범종 모양으로 등

* 수다라장(修多羅藏) : 팔만대장경을 모신 장경각의 첫 번째 수다라전(修多羅殿)이라고도 하며, 여기서 수다라(sutra)는 불교 용어로 불교의 경전을 일컫는 말이다.



글게 뚫어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장경은 수나라장의 통로 양편에 모셔져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기 때문에, 전시용으로 진열된 반야심경의 경판 한 장이, 8만 1천 1백 34판의 대장경을 대신하고 있었다. 구양순체로 정성을 들여 새겨놓은 경판의 글자, 그 글자의 정교(精巧)함에 대해선 추사 김정희도, '이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신이 쓴 것이다'며 감탄했다 하지 않았던가.

반야심경이 진열된 맞은 편 통로에는 흑백 사진이 한 장 걸려 있다. 스님이 수나라장으로 들어서면서 합장하고 계신 그 모습인데, 그 앞에 한 송이 연꽃이 피어 있는 게 아닌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통로 중앙에 연꽃이 피다니?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통로에 연꽃이 필 만한 곳은 없었다. 사진에 나타난 연꽃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의문의 연꽃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신 성상(性相) 스님한테서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 수나라장 통로에 있는 문은 입구를 판재로 고정시켜, 범종 모양으로 둥글게 뚫어 낸 공간을 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둥근 모양의 문으로 들어온 햇빛과, 바로 앞 담에 있는 기와 지붕의 처마 그림자가 어우러져, 한송이 연꽃을 피워 냈던 것이었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연출한 하나의, 절묘한 걸작품이었다. 그 장면을 촬영해 그 곳에 걸어 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연꽃은 항상 피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두 번, 춘분과 추분에만 핀다는 것이었다.

서고에 보관된 책들처럼 뻑뻑히 꽂혀 있는 대장경을 바라본다. 대장경이 장경각에 보관된 후에도 해인사에는 일곱 번의 화재가 일어나, 어려운 고비마다 재난을 피해 왔던 대장경. 그 대장

경이 최대의 위기를 맞았던 때가 있었다.

6·25사변 때였다. 전력(戰力)의 약세로 후퇴만을 거듭하던 국군이 유엔군의 참전으로 반격을 가할 때, 퇴로가 막힌 공사군은 지리산과 가야산 등지로 숨어들었다.

1951년 12월 18일, 오전 8시 30분. 경찰로부터 긴급 지원 요청을 받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 상황실에 출동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이에 김영환(金英煥) 편대장은 제10전투비행 전대 보라매들을 이끌고 즉시 출격하였다. 이때 각 전투기에는 폭탄과 로켓탄, 기총(機銃) 등을 장착하고, 편대장은 그 외에 고성능 폭발력이 있는 네이팜탄을 추가로 더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내려진 훈령은 해인사와 그 인근에 몰려 있던 공산군의 소굴을 폭격하여, 지상군을 지원하라는 내용이었다.

네 대의 전투기가 낙동강 줄기를 따라 북상하다가 함안 상공에서 기수를 가야산 쪽으로 돌렸다. 해인사 상공에 이르러 미군 정찰기를 따라 비행하던 김영환 편대장이, 갑자기 무엇을 발견한 듯 해인사 계곡으로 급강하였다. 폭격 지점을 알리는 미군 정찰기의 연막탄이 해인사 앞마당에서 흰 연기를 내뿜고 있었던 것이다. 폭격 지점은 해인사 앞마당이였다. 편대가 공격에 돌입하려는 순간, 편대장은 무슨 생각을 했던지 다급한 어조로 "나의 명령 없이는 폭탄과 로켓탄을 발사하지 말라. 기총만으로 사찰 주변의 능선을 공격하라." 이때 미군 정찰기에선 "편대장은 뭘 하고 있는가, 해인사를 네이팜탄과 폭탄으로 공격하지 않고." 하지만 편대장은 "각 기는 공격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한 후, 해인사 뒤쪽으로 몇개의 능선을 넘어 폭탄과 로켓탄으로 적을 공격하고 귀대해 버렸다.



문제는 그 날 저녁에 있었다. 미 공군 고문단과 정찰 안내를 맡았던 미군 장교가, 폭격 명령을 거부한 편대방을 문책하기 시작했다. 미군 정찰 장교는 “사찰이 전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당신은 사찰이 국가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라며 화를 냈다. 이에 편대장은 “사찰이 국가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지만, 공산군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찰엔 700여년간, 우리의 민족정기가 서린 귀중한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가 파리의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프랑스 전체를 나치에게 넘겼고, 미국이 일본의 문화 유적을 보존해 주기 위해 교토(京都)를 폭파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대장의 답변은 조리 있고도 당당했다. 이에 아무말 없이 듣고만 있던 미군 정찰 장교가 별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한 후, 경례를 하며 “김영환 편대장과 같은 지휘관이 있는 한국 공군의 앞날은 밝기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코르티츠 장군이 히틀러의 파리 폭격 명령을 거부한 것처럼, 김영환 편대장은 해인사를 폭파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

날 프랑스가 파리의 문화 유적을 자랑하고,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빛나는 문화 유산으로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 역사의 숨결을 들려주는 것도 생각해 보면 미래를 내다 볼 줄 알았던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운명 앞에선 그도 어쩔 수 없었던지, 그 후 그는 준장으로 승진하여 복무하다가 '54년 3월,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가야산 상공을 비행하며 무엇을 보았을까? 가야산으로 주름 잡고, 분지에다 수(繡)를 놓은 해인사를 보았을 것이다. 둥근 능선으로 둘러져 있는 가야산이 연꽃이라면, 그 속에 곱게 피어난 것은 대장경을 모신 장경각이 아니던가?

수다라장 통로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본다. 연꽃 앞에 두 손 합장하고 서계신 스님은 무엇을 기원하고 계실까? 팔만대장경의 영구 보존과, 고(故) 김영환 편대장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계신 것 같다.

봄이 오고 춘분이 되면, 장경각의 연꽃도 다시 피어 날 것이다. **중근**

다시 이별의 순간에 생각하는 삶의 의미

윤 재 홍

중위/제10전투비행단 정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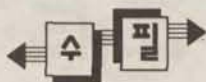


그동안 정들었던 부대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전속을 가게 되었다. 또다시 함께 했던 여려날들을 접어두고 새로운 만남을 위해 지나간 시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처음 아내와 정들었던 많은 이들을 떠나서 먼 곳으로 올 때의 안타까움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그 후의 시간들이 내게 부여한 의미들을, 그 안에 함께 했던 여려 얼굴들과 같이 돌이켜 보게 된다. 그 동안의 시간과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지금의 나는 어떻게 변했고, 또 내 삶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으며 나의 내면 세계는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반대로 나는 이 곳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흔적으로 그들 속에 남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삶의 각각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각기 나름대로의 특징과 빛깔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별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각별한 것 같다. 이별의 순간에 우리는 주변의 사람

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소중하고 깊은 의미를 갖는 것이었던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만남의 기쁨과 성공의 성취감이 주는 밝은 빛깔들은 삶을 아름답게 수놓지만, 이별의 순간은 거기에 동반되는 아픔으로 인해서 슬픈 빛깔과 더불어서 삶의 깊은 의미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적인 요소인 관계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무어라 말로 형언키 어려운 깊은 빛깔을 보태는 것이다.

이별의 순간에 생각하는 많은 의미들 중에서도 특히 소중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이 그들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그 삶의 변잡함과 혹은 너무나도 평범하고도 습관적인 진행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일상이 지



속될 수 없고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에 돌연 전혀 다른 중요성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이전까지와는 달리 앞으로 전개될 삶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순간순간의 행동들이 모두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조건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이 가슴속에 가득 차 오르게 된다. 그 만큼 이전의 일상과 익숙한 사람들의 편안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편안함 만큼이나 깊숙히 내 삶이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얽힘 속에서 내 삶은 진행되어 왔다. 그들 여러 사람들이 지닌 각각의 특성과, 그들의 삶이 지닌 다양한 빛깔과 온도와 정서가 내 삶에 조금씩 조금씩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 들어서 지금의 내 안을 들여다 보면 그들의 빛의 잔상이, 그들의 따스한 체온의 흔적이, 그들이 지니고 있던 고유하고도 독특한 정서의 파편이 내 생명의 일부분으로 남아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나와는 달라진 어떤 새로운 빛깔과, 새로운 생명의 특질과 깊은 인간의 흔과 얼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기꺼이 받아들인 것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 없애는 어울림을 통해서 내 것으로 옮겨진 것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운명처럼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나의 삶에 각인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나는 온전히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한 많은 이들로 인해서 존재하는 그들과 함께 하는 나인 셈이다.

그리하여 때때로 어떤 특별한 경험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잊혀져 있던 어떤 빛깔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완전히 잊혀져 버린 것처럼 까마득하던 것이 내 안에서 작은 동요를 일으키고, 어느새 내 생명과 영혼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옛 기억속으로 나를 몰아넣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에 마주치게 된다. 그 순간에 우리는 나의 삶 안에서 포함된 옛 사람들과의 인연을 새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살아온 삶의 순간순간들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 이렇게 나의 삶은 나 아닌 다른 존재들로 둘러싸여 있고, 내 영혼은 그들과의 대화와 호흡으로 가득차 있다. 자주 습관화된 일상으로 인해서 망각해 버리더라도 그렇게 얽혀서 지내는 날들의 의미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나는 새로운 이별 앞에서 있다. 지금은 아직 이 속에서의 삶이 내게 준 것들을, 이곳에서의 생활을 통해 내 안에 자리잡은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난 어느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 안에서 새롭게 살아오는 이 날들의 의미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곳에서의 삶이 내게 부여한 것들을 겸손하게 갈무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자리할 나를 위한 준비로 또 하나의 이별 앞에 선다. **중편**

땀을 내린 은하수

이 상 규

대위/본부사령실 인사행정과



내가 이곳 풍두(風頭) 마을에 이사 온 지도 벌써 두 해째가 되어간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이웃을 사귀지 못하고 있다. 우선은 내 자신이 중풍으로 불상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이유였다. 교직에서 물러난 뒤 유통이니 뭐니 하는 사업에만 손을 대지 않았어도 지금의 초라한 모습의 내가 아니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를 하곤 한다.

돌이켜 보면 내 자신이 정말이지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눈을 뜨면 죽은 통나무처럼 방바닥에 무성의하게 나뒹굴고 있는 것은 분명 차갑게 식어버린 내 오른쪽 다리였고 뻣뻣하게 굳어버린 왼팔 역시 거추장스럽기까지 했다. 그래도 이사 첫날에는 전직 교사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단지 김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

에 퍼지면서부터 나를 찾던 이웃은 하나 들썩 밭길을 끊기 시작했다. 내가 정작 이웃이라고 맘먹고 있는 사람인 김노인이 비정상적인 인물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나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예전의 것과는 아주 달랐으며, 이제는 거의 외면을 하는 것이었다.

김노인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호두나무 주위를 빙빙 맴도는 것이 전부였다. 사색이나 산책을 위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인지 풍두 마을 사람 중에 몇은 그런 그를 미쳤다고들 했다.

그렇다고 그가 공격적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없었다. 한 번은 김노인이 호두나무 주위를 맴돌고 있을 때 아이들이 그를 향해 뭐라고 소리치며 달아나도 김노인은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그러고 보면 호두나무 주위를 아무런 이유없

이 빙빙 맴도는 김노인의 모습과 기똥거리며 정원을 맴도는 내 처지는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웬지 모를 호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고 하질 않았던가!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김노인이 보이질 않았다. 그리고 보니 며칠 전부터 그의 얼굴빛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 신문의 주요기사를 대충 읽어 내려가는 동안까지도 김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때마침 풍두 마을 이장(里長) 허씨가 농약분무기를 짊어지고 집 앞을 쟁걸음으로 지나치기에 김노인의 소식을 물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나를 위아래로 한 번 훑어보는 것이 전부였다.

나를 벌레보듯한 이장의 행동이 한참동안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화가 치밀었다. 얼굴이 별장게 달아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도 잠시 뿐이었다. 토담 벽 아래에 나란히 놓여있는 화분이 어느새 풍성하게 가지를 쳐서 뽕뽕하게 자라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밝은 빛이었다.

화분 세 개를 대충 마무리하고 마지막 한 개를 손질할 때였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김노인이 우리집 담장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엉거주춤 바닥에 앉아있던 나는 그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한참 동안 내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런 그의 모습과 남의 얘기를 하길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여울졌다. 우선은 반가웠기에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어떤 매개체가 필요했다. 분갈이를 마친 화분 세 개 마저 얹어놓은 뒤 너스레를 떨었다. “들어오셔서 분갈이 좀 도와 주실래요? 제가 좀 서툴러서요.” 그러자 김노인

은 담장 아래로 숨어버렸다.

얼마 후 녹슨 대문이 쉼 목소리 내며 삐뚤 열렸다. 그 사이로 김노인이 등성등성 박힌 누런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이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설령 마음사람들이 김노인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나와 김노인의 친분을 가로막지는 못하리라는 확신 같은 것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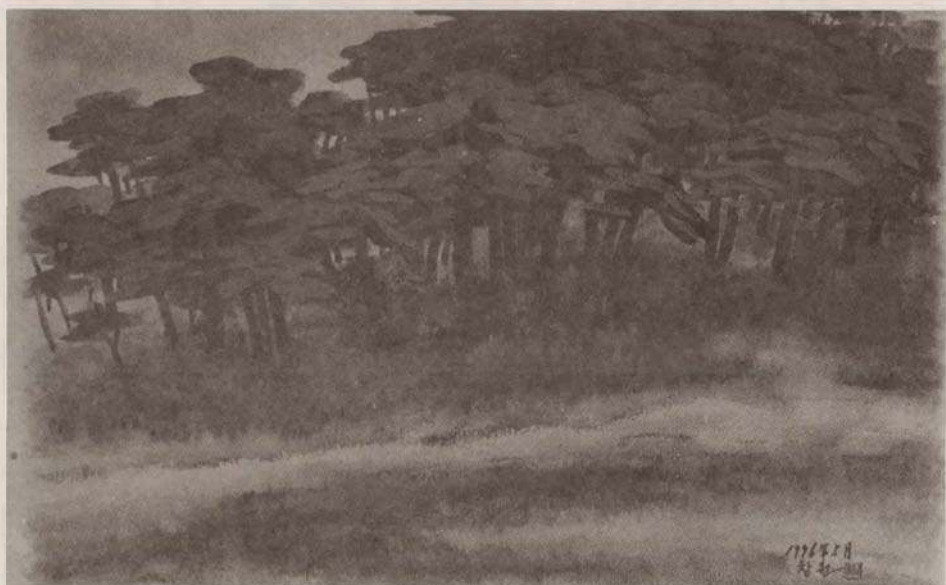
분갈이를 마치고 분무기로 난입을 정리하려 하자 그는 잠시만 기다리라는 듯 내 손목을 짚음겨워었다.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동물적인 반응 같은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의 손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요? 순서가 잘못되었나요?” 그러자 그는 허름한 잠바 윗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대문을 나섰다.

그것이 김노인을 마지막으로 대한 것이 되었다. 그날 마감뉴스가 끝날 무렵 침실로 들어가려 했을 때 멀리서 들려오던 앰블런스 소리가 집앞에서 멈춰 섰다. 현관문을 열어 집주위를 살펴보니, 호두나무 근처에서 녹색 반쪽등이 반짝이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아, 김노인!’이라는 탄성이 맴돌았다. 김노인에게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급히 현관으로 들어서서 잠바를 걸치기 시작했다. 호두나무 쪽으로 나가 보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언제 나왔는지 아내가 내 손목을 잡아 끌었다. “무엇 때문에 또 그래요, 시간도 늦었는데 신경 쓰기 말고 그만 자요.” 아내는 짜증을



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번 토요일 새벽에는 집앞 골목에서 취객들간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파출소로 불러 다니느라 애먹었던 나였다. 결국 김노인이 파출소를 찾아와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내의 눈밖에 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아내가 잠들길 바라던 내가 바보스럽게도 먼저 잠들고 말았다. “어보, 뭐해요! 해가 벌써 중천에 떴는데…….” 언제 들어도 곱지 않은 아내의 성깔스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느 때 처럼 때문에 끼어 있을 조간신문을 찾아 나섰다. 현관에 나설 때까지 아내의 잔소리는 여전했다. 그 잔소리에 항변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를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빌어먹을, 사업하다 망하니까 이젠 집에서 내쫓기겠구먼!”

운동화를 반쯤 구겨 신고 집앞 호두나무 쪽으로 향했다. 검은 가죽점퍼 차림의 한사람과 담배를 연신 빨아대는 또 다른 한 명이 접근금지라고 적힌 띠 속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가죽점퍼 차림의 사람은 낙엽을 휘적거리더니

담배를 문 사람에게 뭐라 중얼거렸다. “문형사님, 초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부랑자들의 동사(凍死) 같은 거 아닐까요?” “네가 뭘 안다고 씨부렁거리? 니가 신참이지 형사냐?” 담배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문형사라 불린 사람은 덩수룩한 수염을 긁적거렸다.

어쩌면 자세히 둘러보지 않아도 될 듯도 싶었다. 남 얘기라면 끼니를 걸러서라도 입놀림을 즐기는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예상대로 저녁 때가 되니 김노인과 관련된 아내의 입방아가 시작되었다. “그 놈의 노인네, 망령이 났으면 집구석에 처 박혀 있지. 뭐 잘났다고 집밖에서 나돌아 댜져 싸지 싸!” 아내의 첫마디에 화가 났다. 지난 번 취객사건 때 나를 변호해 준 유일한 사람은 바로 김노인 하나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저 여자가 과연 내 아내였던가 싶었다. 씩씩했다.

저녁상을 물릴 즈음 집앞 호두나무로 다시 향했다.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가 김노인의 모습처럼 섬뜩하게 나타났다. 환상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편안해 보였다. 아마도 김노인

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도 편안한 모습으로 환하게 미소짓고 있었을 것이라는 묘한 생각이 들었다. 그가 늘 그랬던 것처럼 호두나무 주위를 한 번 빙 돌아보았다. 서너 번쯤 나무 주위를 돌다가 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나무 밑둥 부분이 하얗게 벗겨져 달빛에 반짝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안경을 고쳐쓰고 다가가서 그곳을 유심히 바라보니 ‘명천(明天)’이라는 한자가 각인되어 있었다. 혹시 김노인의 흔적이 아닌가 싶어 머리 속에 기억해 두기로 하고, 먼 발치서 인기척이 있는 것 같아 얼른 호두나무 주위를 벗어났다. 서둘러서 호두나무 주위를 벗어난 내 자신의 모습이 못나 보였다.

다음날 김노인의 죽음은 동사로 쉽게 판명났다. 비정상적인 사람에게서는 죽음의 규명마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사건이 빨리 종결되어서 속 시원하다는 듯한 눈치였다. 이장 허씨는 마을의 커다란 재앙을 애타했다는 듯이 아예 공개적으로 신속한 사건처리에 찬사를 보냈다. “암, 그래야 말구. 이젠 마을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겠구먼!” 마을회관 앞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사건이 빨리 종결되었다는 허씨의 너스레였다.

‘明天’ 그것은 오랫동안 열병처럼 나를 괴롭혔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나 호두나무 근처를 지나칠 때면 더한 의문으로 남았다. 혹시 김노인이 남긴 흔적이라면 그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 법한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별다른 해답은 뾰족하게 찾을 길이 없었다.

토담에 기댄 감나무가 한 알의 까치밥을 남겨두고 마을을 두리번거렸다. 내 자신이 김노인의

죽음을 두리번거리는 것처럼. 그러던 나는 문득 지난 번 분갈이를 할 때 김노인이 나에게 건넨 호두알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보니 호두알 표면에 뭐라 작게 적어놓은 듯한 것도 같았다.

급히 안방으로 들어선 나는 점퍼 안주머니를 뒤졌다. 손때 묻은 호두알이 잡혔다. 아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불 소청을 훌훌 털어버렸다. 현관문을 나서 토담아래 햇빛 좋은 곳을 찾았다. 늦가을 날씨지만 제법 차가운 기운이 마당 곳곳에 감돌고 있었다. 호두알을 이곳저곳 살피니 과연 뭐라 흐릿한 글체의 흔적이 보였다. ‘明天’ 돋보기 너머로 확인된 호두알 위의 글체였다. 그렇다면 호두나무 밑둥에 각인된 ‘明天’이라는 흔적 역시 김노인이 남긴 것이 분명한 사실이 된 셈이었다. 그 어떤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아무리 ‘明天’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려봐도 그 어떤 단서가 되질 못했다.

결국 최선의 방법으로 김노인이 살아생전에 거듭했던 행동에 한 번 빠져보기로 했다. 나무 주위를 빙빙 돌다가는 풍두 마을 사람들의 입방 아에 오를 것이 불 보듯 뻔했기에 그 옆에 앉아 머리 속으로 호두나무를 빙빙 맴도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집 누렁이가 두마리의 새끼를 낳은 다음날이었다. 진눈개비가 내리고 있어 개집을 따뜻하게 감싸줄 요령으로 호두나무 주위에 쌓아 놓은 벧단 몇 묶음을 추러 날 때였다. 김노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인 ‘明天’이라는 각인 아래부분의 땅을 밟자 푹 꺼져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니 개미집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온 흙무덤이었다.

순간 그곳에 또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 부러



진 나뭇가지로 대충 휘적거리려 보았다. 이상하게도 초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포실포실했다. 한뼘 정도의 깊이를 파 내려가자 부스럭 소리가 났다. 손으로 대충 흙을 헤쳐보니 마분지로 만든 누런 봉투같은 것이 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봉투 위에도 '明天'이라는 글자가 먹으로 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봉투를 대충 말아쥐고 흙을 매웠다. 그리고는 벗짚으로 덮어버렸다. 실로 오랫동안 찾아왔던 김노인의 흔적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영감님 계세요?" 마루턱에 앉아 마분지로 된 봉투를 열어보려 할 때 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상했다. 이미 풍두 마을 사람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는 내게 찾아 올 사람이 없는 터였다. 급히 봉투를 감추고 태연하게 대문 쪽으로 향했다.

"아, 마침 계셨군요." 김노인이 죽은 다음 날 사건조사를 담당했던 문형사였다. "뭐, 불일이라도 있수?" 내가 다소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이자 문형사는 눈웃음으로 응수했다. "영감님도, 꼭 무슨 불 일이 있어야 하나요?" "그럼 뭐요?" 더욱 의기양양해서 내가 되물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김노인의 유족들이 사건종결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해서요. 영감님하고 김노인이 가깝게 지내셨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문형사는 수첩을 습관적으로 펼치

면서 나의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김노인과 나는 그저 인사를 나누고 지내는 정도였소. 그리고 지난 번에 사건이 모두 종결되지 않았수?" 나의 말에 문형사는 수첩을 덮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런 사건도 처리하다 보면 절차라는 것이 있어서……." 나와 실랑이를 벌이던 문형사는 멋적었던지 되돌아 갔다. 담장 너머로 문형사가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투덜대며 마을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멀리 보였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마루 쪽으로 향할 때 아내가 방문을 열어젖히고 나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모른 체 하고 마루턱에 걸터앉아 아내가 방문을 닫을 동안까지 기다렸다.

얼마 후 방문이 닫히자 마자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빛바랜 노트가 보였다. 필경 일기장 같은 것이었다. 김노인이 죽기 바로 전날의 기록도 남겨 있었다.

「풍두(風頭) 마을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숨어서 살아왔건만 동생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하다. 무엇보다도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동생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내가 직접 집도를 하지 않았어도 동생은 불구가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리 운명의 장난은 잔인한지 모르겠다. 밤마다 동생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 나를 원망한다. 내 몸이 썩어질 때까지 이 세상에

서의 죄책감은 사라지질 않을 것 같기에……」

그러고 보면 내가 김노인을 대할 때 그 어떤 잘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처럼 느끼곤 했던 것이 사실로 입증된 순간이었다. 전직 의사의 죽음이라, 그것도 자신의 동생 수술을 집도했다가 실패를 한 뒤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에 김노인에 대한 연민의 정이 돌아났다. 한참동안을 넋을 잃고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김노인의 죽음이 풍두 마을에서 잊혀져 갈 이듬해 무렵, 어느 날 군청에서 높은 양반들이 김노인의 행적을 묻고 잡지사를 비롯한 방송기자들이 마을에 찾아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어느 기자는 호두나무를 촬영해 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두나무 앞에는 커다란 비석 하나를 세워놓고 군수가 마이크에 대고 뭐라고 하면서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풍두 마을 사람들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장 허씨는 카메라의 조명을 받으며 취재기자의 인터뷰에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뭐라 얘기하고 있었다.

군청 관계자와 방송기자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좀처럼 호두나무 주위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일어있기에 별 관심을 둘 필요는 없었다.

겨우 잠잠해 진 것은 노을이 마당을 가득 채울 때였다. 모두들 호두나무 주위를 떠나고 없었다. 씩씩한 기분을 안고 저녁상을 받고보니 입맛이 없었다. 아내는 손가락을 놓자마자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물러갔다.

재떨이에 등급은 새우처럼 놓여진 담배꽂초가 시선 속에 들어왔다. 텔레비전에서는 톰과 제리라는 만화영화가 방영되고 있었다. 오늘도 생쥐

가 치즈 속의 구멍 속으로 숨어 들어서 고양이를 골탕먹이는 줄거리가 전개되고 있었다. 결과는 언제나 생쥐의 승리,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채널을 돌렸다.

일곱시 저녁뉴스가 웅장한 배경음악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중앙뉴스가 끝나고 전국 네트워크 형식의 지방뉴스가 시작되었다.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숨을 멈추었다.

바로 집앞 호두나무를 배경으로 서른 남짓해 보이는 취재기자의 방송멘트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평생 모은 전 재산 8억여원을 낙도 의료사업 기금으로 기증한 화제의 전직 내과원장 김명천(金明天) 노인의 죽음을 풍두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라며 취재기자는 공정한 취재였음을 애써 강조하고 있었다.

바로 이어진 인터뷰 화면에는 이장 허씨가 긴장된 표정에 어눌한 말씨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김영감님의 죽음은 우리 풍두 마을 주민 모두에게 커다란 슬픔이구먼유. 비록 고인은 하늘나라로 향했지만 우리 주민들은 살아 생전에 김영감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것처럼 영원히 거울로 삼을 것이구만유.” 이장 허씨의 말이 끝나자 지난번 마을회관 앞에서 사건처리가 속히 진행된 것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뉴스가 끝나고 씩씩한 기분을 안은 채 호두나무로 향했다. 기념비의 문구를 읽어보는 것은 무의미했다. 하지만 밑동에 새겨진 ‘明天’이라는 글자가 밤하늘의 별빛에 해맑은 미소를 드러내고 있었다. 멀리 서녘 하늘에선 돛단배 형상의 은하수가 호두나무쪽을 향해 닳을 내리고 있었다. **등단**

하이 힐 (High Hill)



전 호 명

준위/제19전투비행단 정비과

서울의 지하철은 만원이다.

만원이라는 어휘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전동차 안에 쓰여 있는 정원 40명이란 숫자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출근이나 퇴근시간의 지하철은 정원의 3배 이상이 탑승을 하게 되니 쾌적한 분위기와 거리가 먼 전장을 방불케 한다.

그것도 겨울이라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후끈 후끈한 열기를 참을 수 있지만, 계절이 여름이라면 짜증스럽기 그지 없다.

몸에는 땀이 흐르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여 꼼짝 달삭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손길이 몸에 닿는다면 짜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

사람의 몸에 손이 닿는 경우는 몇 가지 구분이 있다.

어쩔 수 없이 무의식적으로 닿을 때도 있다. 순조롭게 달려가고 있던 버스가 길 앞에 사람을 발견하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차안에 섰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잡이나 옆에 섰던 사람을 붙잡게 된다. 이런 경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몸에 손을 댄다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일 때는 적잖게 당황하게 된다. 여자의 몸매가 아름다워서 한 번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발생할 때도 있다. 그런 마음이야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실천에 옮기는 경우는 드물다. 내가 좋아서 만져 보았는데 왜 말이 많으냐고?!

박미숙양은 여느 때와 같이 화장품 회사에 출근하는 길이다. 직업이 미용사인 만큼 의상과 메이크업을 아름답게 하여 지하철을 탔던 것이다.

아침은 싱그럽다. 간밤의 피로를 수면으로 풀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로 시작하는 출발이기에 아침은 싱그럽고 활기차다. 그런데 그러한 기분도 잠시, 지하철에 오르자마자 그 기분은 짝 가시고 짜증스러워진다. 사람들 틈에 끼여서

곤욕을 당하기 때문이다. 등어리에서 식은 땀이 아니라 진땀이 맺히기 시작한다. 맺히는게 아니라 등줄기를 타고 흐른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이 때 미숙양의 엉덩이에 남의 손이 닿은 것이다. 처음에는 우연이려니 하면서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 손길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이라면 문제가 틀린다. 그리움의 표현일테고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마음일 것이니, 상대방도 괜시리 고운 눈을 한 번 흘기고는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등어리에서 땀이 솟았을 망정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손이라면 오히려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다. 생면부지의 얼굴이다. 꿈에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알미운 사람의 손길이다.

그녀는 생각을 했다. 이걸 어찌지. 능청스러운 사내가 짜증스럽기만한, 여름날 아침 출근 기분을 아주 망쳐 놓고 말았으니.

『그래도 한 번은 봐 주어야겠지.』

오른손을 뻗어서 능청스러운 사나이의 손을 엉덩이에서 떼어 놓으면서 슬쩍 쳐다 보았다. 그다지 밍지 않은 얼굴이다.

『잠시 영큼한 마음이 들면 그럴 수도 있겠지』

미숙양은 잠깐 사나이의 얼굴을 바라본 뒤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가관이 벌어졌다. 사나이가 링크를 하는 건지, 아예 두 눈을 감은 건지 요상스럽게 웃는가 싶더니 슬며시 손을 붙잡았다. 엉겁결에 잡혔던 손을 뿌리치고 더 큰 봉변을 당하기 전에 자리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으로 이동을 시도했으나 그것도 무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워낙 뻑뻑하게 들어선 전동차인 지라, 정거장에서 밀려 내리는 경우가 아니곤 마음대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이제 그것으로 그만이겠지.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평소에는 한 정거장 한 정거장 이동하는 시간이 잠깐 이었는데 오늘은 굼벵이의 행진이다. 가는 것인지 서있는 것인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헌데 이게 무슨 일이란.

다시 그 사나이의 손이 아까보다 더 강도 높게 밀착시키고 있지를 않는가!

『봐 줄려고 했더니 구제불능이구먼! 그럼 방법이 있지.』

오른쪽 엉덩이에 사나이의 손이 밀착되어 있으니, 눈치채지 못하게 왼쪽 발을 약간 비껴 들었다. 그리고 나서 오른손으로 하이힐의 앞부분을 반듯하게 벗어 들었다. 약간 자세가 흔들리는 했지만 전동차가 움직이는 것 쯤으로 믿었는지, 아니면 엉덩이에 붙인 손에 정신을 쏟은 탓인지 사나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박미숙양은 정확하게 90도로 우회전하면서, 오른손에 든 하이힐로 사나이의 이마뺨을 내리 찍었다. 『뻑!!』 하는 소리가 달리는 지하철의 전동차 안을 메아리로 번졌다. 어디 그 소리 뿐인가?

“옥!” 하는 사나이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나이는 그 와중에 용하게도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저 만큼 도망가고 있었다. 누가 시작했지도 모르는 박수가 혼돈스럽게 번지고 있다.

차라리 조용했으면 좋으련만 이 또한 무슨 변고람!?

그러나 그 박수는 야유가 아니었다. 용기있는 시민 한 사람에 대한 격려로 알고 있는지, 후습지근한 에어컨 바람이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꿈을 갖는 이들에게



홍 대 희

병장/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정비대

꿈이 있는 삶은 언제나 아름답다!

인생은 정말 꿈을 꾸며 그것을 키우는 사람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각자의 삶 속에 꿈이 있다는 것은 곧 서로가 살아가야 될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최소한 한 두 가지 정도는 존재할 수 있으리라.

2차 대전이 막 시작되던 무렵에 많은 수의 유대계 민족들은 히틀러를 비롯한 광기 어린 민족주의자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살고 있는 그 감옥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최고의 위기 상황을 접하며 언젠가라는 희망도 꿈도 없이 거의 대부분이 자포자기한 모습 속에 지쳐 있었고, 생활 환경조차도 수많은 벌레들이 감옥 이곳 저곳을 자기집 마당을 활보하듯이 다니고 있었다. 매스껍고 구역질나는 변냄새와 불결한 침대, 게다가 전염병까지……. 겨우 생명만을 간신히 보전시킬 수 있는 매 끼니의 식사가 주어지고, 끝없는 절망감 속에서 덩수룩한 수염과 흐리멍당한

눈망울 속에는, 채 지워지지 않은 눈자육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뇌로 가득찬 그들의 처참한 삶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만은 약간 특이하다 싶을 정도의 행동으로 - 그 당시 전쟁이라는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일찍이 일어나서는 언제나 해맑은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거울을 보고 또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깨끗하게 씻고 면도까지 말끔하게 한 용모로, 지저분한 옷이지만 깨끗이 청결하게 옷을 입고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다. 어느 비가 내리던 날, 항상 시무룩한 표정으로 창 밖을 응시하며 세상을 마치 다산 것인 양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며 생활하고 있는 한 청년이 그 젊은이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도 태연할 수가 있소?” 그러자 젊은이는 씩 웃으면서, “친구여, 나는 내

아내에게 반드시 살아서 돌아 갈 것이라고 맹세를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소. 내가 그들을 생각하면 단 하루라도 게을리 할 수 있겠소?” 결국 그 한마디의 작은 소망은 절망에 놓여 있던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얻게 한 것이다.

한없이 커 보이기만 했던 그들—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인정받던—의 여러면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무렵 합리적인 시선을 가지면서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게 되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서게 되었을 때, 친구나 이웃보다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 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만 멀어져 보이던 그들의 모습들이 실제로는 가까운 이웃의 삶인 것을 느끼게 되었고 외경심마저 느끼게 해 주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매우 끊임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날이던가, 유난히 답답했던 가슴을 안고 평소애 좋아하던 산에 오르던 그 날, 나의 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다.

어렸을 적에는 마냥 크게 부풀어진 풍선껍처럼 커져만 보이던 꿈들이 하나 둘씩 허물어지고 지금은 벗겨진 껍질 마냥 허무한 기억으로 남겨져 버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느낌.

참을 수 없는 미련과 아쉬움 속에 빠져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계획과 부족한 노력을 한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 꿈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어서, 그래서 더욱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결여된 그것이란 단지 현실과 단절된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으리라.

군 생활을 하기 전,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했던 많은 수의 사람들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거의 포기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뀐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게 된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그냥 군대에 갔다와서 생각해 보면 무슨 확실한 방법이 생기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왔을 것이다.

고등학교때 입시에 쪼들려 생활하다가 대학에 진학해서는 그 동안 놀지 못했던 기분을 한꺼번에 푼다고 생각한 나머지 거의 1년동안 하루하루 계획없이 무조건 놀기에 바빴다. 그러다 1년이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했나 싶을 정도로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급기야는 군대로 입대를 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도피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 꿈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차피 이 나라의 사나이이라면 한번쯤은 군대에 와야 한다.

더욱이 공군은 일정 기준의 선발에 의해서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이라는 점에서 타군에 비해 자랑할 만한 것이다. 그냥 흐르는 물과 같이 따라가듯이 아무 생각없이 해왔기 보다는 자기가 예전에 계획했던 것들, 내지는 지금이라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혹은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 보고 열심히 노력을 해 나아간다면 훗날 제대를 하게 될 때 더 없이 값진 것을 얻어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비록 군 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짜증이 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서 또 그런 힘든 와중에서도 자기

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펼쳐 보이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으리라고 본다.

이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과도 일맥 상통하다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영화스토리를 보게 되면 주인공은 처음엔 비참하고 여러가지 난처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지만, 그러한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악을 물리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꿈을 실천하게 된다는 결말로 나오게 된다. 현재 우리의 삶이 영화처럼 100% 자신의 꿈이 실현된다는 보장이야 없겠지만, 자기 자신이 주위의 여러 환경을 이용하여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꿈을 실현하는 정도의 여부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안되면 조상을 닮고 잘 되면 자기 자신을 닮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말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다.

실패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다음에 도전할 때는 실패하였던 것들을 거울 삼아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아진다.

앞으로의 모습은 지금 모습보다 훨씬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즉 앞으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청사진하면서 노력을 하면 현재의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인식의 차원에서 볼 때 참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특히, 군대는 전국 각지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의 대립도 적지 않게 발생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환경속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똑같은 장소에 모여, 똑같은 조건하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대립이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회에서 지역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대립하고 하는데 하물며, 군대라고 오죽하겠는가?

그러나,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생활을 하다보면 서로를 좀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생활속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동안 예전에 가지고 있던 어리석은 생각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또 자기가 생각한 여러 가지 꿈들도 마찬가지로 허황된 꿈이 아닌 현실적으로 자기의 적성에 맞는 꿈으로 바뀌게 되어, 좀 더 현실적으로 자기의 꿈을 찾게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아진다.

군대에서 담아 놓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확실한 정신 무장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냥 꿈이 아닌 자기 자신의 진정한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리라.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계획, 철저한 자기관리와 실행력, 오늘날의 영웅을 만든 이러한 단어들이 군 생활 속에 자칫 잊혀지기 쉬운 많은 것들을 인식시키며 나아가 사회속에 올바른 삶의 모습들을 회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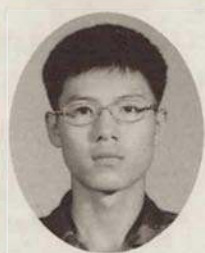
꿈이란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단순한 그냥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나아갈 때, 실패를 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때, 진정 자기가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꿈이란 아름다운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꿈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등문**

생각을 바꾸고 사랑을 나누며



서 영 호

상병/제3훈련비행단 전훈실

따르릉! 따르릉!

“정훈실 서상병입니다. 통신보안!”

“저어, 저~공군부대 맞습니까?”

50대 중반쯤의 남자가 경상도 사투리로 조마 조마 망설이며 겨우 말을 꺼냈다.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지요?”

“저는 예, 마산에 있는 혜림학교 교장되는 사람인데예, 한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 저희 학교에서 3훈비로 견학겸 소풍을 갔으면 해서예”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 저희 실장님께 연결시켜…….”

“그런데 예, 저희 학교가 장애자 학교라서 될런지 모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망설였던가 갑자기 웃음이 절로 나왔다.

“괜찮습니다. 실장님하고 통화해 보십시오!” 라고 돌려드렸다.

맞다. 어제가 장애자의 날이었구나! 군대생활을 하며 시간관념을 잃어버린 지금의 난,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못하고 사람들의 냉정한 차가운 손에 떠밀려 버림받은 신체 장애인들이 떠올랐다.

일과회의시간. 실장님의 긍정적인 판단으로 일정은 금요일에 혜림학교생을 맞이하기로 견학 준비를 지시받았다.

이리저리 서두르며 준비에 착수한 금요일 오전!!

아침부터 이리저리 군화를 닦고 복장을 단정

히 하며, 공군 소개영화 상영 준비를 위해 시청 각교육실로 향했다. 유난히도 따사로운 햇살 위를 내딛으며 조심스런 웃음으로 가득찬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장갑차와 무장전시 관람을 마친 많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조금씩 꽃바람에 실려와 들을 수가 있었다.

어머니와 같이 손을 잡으며 걸어오는 아이들, 갓난 아이가 걸음걸이를 배우는 것같이 보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너무 밝고 귀여웠다. 정말 저 아이들의 표정이 장애인의 표정인가? 믿기지 않았다.

푸른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F-16비행기의 굉음으로 마친 공군 소개영화 관람을 마치고, 연못가에서의 점심시간—옹기종기 부모님과 친구들과 모여앉아 도시락을 나눠먹는 아이들, 연못가에 자신의 신발을 내딛지며 마냥 기뻐하며 웃는 아이들, 조심스레 나비를 쫓아가며 좋아하는 등줄기가 굽어있는 아이들, 이륙하는 비행기를 보기 위해 목이 빠져라 하늘만 쳐다보는 아이들…….

지금 아이들은 이 아름다운 땅에 살아있음을 느낀 것 같이 보였다.

금빛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긴머리의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다. 그 아이는 노란 민들레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유심히 쳐다만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지 무서운 기색으로 겁에 질려 뒷걸음치며 비켜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일까? 저 아이는 무슨 신체장애를 지닌 것일까? 다른 아이들처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반신 마비나 팔·다리가 경련을 일으켜 자신의 행동마저 주체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달

랐다.

나는 그자리에 멍하니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 수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을 마시고 피어있는 노란 민들레와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짓는, 미소가득찬 고운 얼굴은 태양의 몸짓보다도 밝은 어린천사의 모습이라는 걸……. 그렇다 이 아이들은 장애인이라 아니라 천사다.

한마디의 원망조차 하지못하고 거친 숨소리를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 이들에겐 높아만 보이는 계단길이나, 택시승강장 앞에서의 택시승차도 우리는 창피하다거나 눈살스럽다는 핑계만 진채 그냥 지나쳐 버린다. 사람들의 무관심한 말 한마디와 날카로운 편견으로 장애인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만약, 내가족이나 내친구들이 유전도 아닌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신체장애를 일으키면 어찌하겠는가? 온갖 배타심과 검은 손가락질로 외면 받으며 작은 촛불같은 생명마저 이겨내려 거친숨을 내쉬며 살아가는 내친구, 내 가족들에게 까지 똑같은 편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건 누구 하나에게만 하늘의 뜻으로 선택되어지는 일은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창의적인 고안품을 발명한 발명가, 세계적인 기량을 발휘한 음악가,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은 대통령 등 자신의 인내를 극복하고 발전시켜 주목을 받은 인물들도 많다.

널리 알고있는 헬렌켈러의 삶은 설리반 선생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몸은 불편하지만 이들은 더 나은 자신의 의지를 보이며, 행복의 꿈을 가질 수 있

다는 신념을 믿고 살아 온 것이다.

이처럼 지금의 이 어린아이들 또한 지극한 온정과 사랑으로 어루만져 준다면, 큰 희망으로 아름다운 삶을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바꾸고 사랑을 나누면 아이들은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환한 웃음을 주고, 하얗고 부드러운 고운 손을 잡으면 푸르는 삶의 희망을 준다.

장애라는 말이 곧 장애가 되는 사회. 나 자신의 말한마디가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도 있다.

흰 머리의 감색양복을 입은 교장선생님이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한결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통스런 병이 자신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간에 따뜻한 가슴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랑도 함께 준다는 것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 이들이 사람들에게 바라는 소망은 외부로 나타난 형식적인 동정보다는 서로에 대한 관심, 함께하는 소망, 느껴지는 사랑을 바라는

것이다. 이러하면 이들의 작은 등지에 불어오는 바람은 늘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나누면 사랑이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오늘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될 때 즈음, 나를 놀라게 한게 있었다.

모두 한손에 비닐봉지를 권 채 자지 주위에 놓여진 쓰레기를 줍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모형항공기 대회, 우주소년단 부대견학, 인근 초·중·고생들의 부대견학을 치뤘지만 이번만큼 나에게 뜻깊은 깨달음을 준 행사는 없었다.

다음에 다시 오라는 새끼손가락의 마음찬 약속만 남긴 채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야만 했다.

부대내에는 아직도 아이들의 맑은 웃음들이 식지않고 따뜻하게 남아 있는듯 느껴졌다. 밤 하늘의 별까지 유난히 반짝이는 걸 보니, 그 온기가 물들어 더욱 더 반짝인 것만 같다.

내일은 백혈병으로 시름에 젖어있는 사촌조카의 병실에 편지 한장과 헌혈증 하나를 고이 감싸 보내야겠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종근**

주어지는 일보다는 찾아서 하는 일

김도현

병장/제17전투비행단 정훈실



간혹 이런 말을 들곤 한다.

‘신세대 병영 생활’, ‘신세대 군인’.

기성세대들에게 신세대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게 느껴질 것이다. 옛날 군대가 생각나게 하는, 무언가 빠진 듯한 그들. “요즘 애들은 다루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 흔히들 이런 식의 반응으로,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보아지는 신세대.

신세대란 말은 예전에 없다가 90년대 초반 급격한 대중문화의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사회적으로 구분지어 표현하기 위해 생긴 신종어라고 들었다.

말이 어떠하든, 최근 군내에서도 소위 신세대 군인의 정신자세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을 참 군인화 하기 위한 논의가 자주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것을 본다.

몇일전 모 군관련 연구기관에서 ‘신세대 군인 정신교육, 토론식이 바람직’이라는 내용의 논문

을 발표하여, 신문 한 구석을 비교적 크게 장식한 적이 있었다. 주입식 교육보다는 자율적 학습을 우선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으로 기억한다.

자율! 명령과 복종, 그리고 계급에 의한 상하 구조의 엄격한 틀이 존재하는 군에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부분 어폐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자율의 참의미인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설득력으로 갖을 수 있다고 보인다.

이 글을 적기로 결심하면서 제목을 무엇으로 할지, 한참동안 고민했었다.

더구나 이미 많은 이들이 신세대가 어떠네, 알고 보면 이해가 가는 점도 있네 하면서, 젊은 군인들 얘기를 다루오던 터라 잘못하면 식상한 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도 있었다. 많은 시간 생각 끝에 결국 내 자신의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신세대, 아니 우리 젊은 군인이 추구하는 것들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이라 생각되어 ‘주어지는 일보다는 찾아서 하는 일’이라 적

었다.

주어지는 일과 찾아서 하는 일.

쉽게 생각하기에 '어차피 군대 일. 뭐 다를게 있겠는가. 3년 그냥 그렇게 시키면 하고, 일 없으면 그저 시간 가는데로 보내는 거지.' 라고 생각해 버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본인 생각엔, 이런 구시대적 군생활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 세대 군인은, 참된 신세대는 결코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자율의 본뜻을 알고, 찾아서 하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갖는 이가 참 신세대라 자부할 수 있을거다.

언젠가 "군가경연대회"라는 부대행사를 치루면서(정훈실에 근무하는 관계로) 느낀 바가 있다.

그 당시 나는 이제 막 업무에 손이 익어가는 과정이었고 사실상 정훈병 보직을 받고 처음 치루는 행사였기에 몸도 마음도 무척 힘들고, 촉박한 시간내에 해내는 일이라 꽤 긴장도 된 적이 있었다. 더구나 무언가 색달라야겠다는 윗분들의 의지 때문에 정신적으로 꽤 쫓기는 느낌을 받고, 짜증도 나고 맘 같아선 금방이라도 하던 일 건어차고, 어차피 잘못되도 정작 말하는건 내가 아니니까 하는 순간의 유희도 있었다.

그러나, 작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있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에게 내보일 때 떳떳할 수 있어야겠다는 욕심이 날 채척질 했고, 이왕하는거 확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내 의지를 뒷받침해 줬다.

위에서 시키는 것만 했다면, 그저 시간땀질 정도로 생각했다면 그 행사는 그날 모인 수 많은 장병들의 박수를 그렇게 받지는 못했으리라 생

각된다.

내가 참 신세대라고 자랑하지는게 결코 아니다. 다만 나의 이런 일을 대하는 성격이, 곧 우리 진짜 신세들의 윤곽 뚜렷한 사고방식이라고 믿기에 하는 얘기다.

조형물 중에 부조라는 게 있다. 뒷면은 과감히 삭제되고, 보이는 전면에만 입체적인 형태를 가미한 것으로 벽면 장식등으로 많이 이용된다. 참 신세대라면 부조같은 느낌으로 일을 하진 않는다. 그들은 주어지는 일은 물론 특히 찾아서 하는 일에서, 사방 360도 모든 곳에서 보아도 뚜렷한 형태와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찬란한 조각품처럼 일하고 싶어한다.

흔히들 쓰는 용어로 '임무' 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임무에 완벽을 기하자' 라는 식의 문구도 본 기억이 있다.

하지만, 486컴퓨터 샀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난 다음날 옆집에서 586컴퓨터를 들여오는 요즘 같은 다변화, 급발전의 현실속에서 '주어지는 임무' 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이젠 주어지는 임무에 찾아서 해내는 임무가 더해져야 할 것이다. 그걸 알고 그렇게 하고자 자신을 내던질 줄 아는 이가, 또한 참 신세대 일거라 생각된다.

속된 말로 '쩐쩐' 라는 군에서만 쓰는 말이 있다. 요즘 젊은 군인들의 상당수의 찐쩐(업무 착오, 혹은 주요업무 실수)는 주어지는, 시켜서 하는 일에서 발생하는 것을 주위에서 본다. 이것을 바꾸어 표현해 보면, 그만큼 그들은 수동적인 일에는 집중력이나 애착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다. (기성세대 보다 훨씬 더)

여기서 본인은 또다른 참 신세대 우리 젊은 군인의 특징을 언급할 수 있겠다.

그들 진짜 신세대들은 동기를 중시한다. 결과는 그저 그들의 행동이나 노력에 대한 보람, 만족 등의 대가를 재는 잣대일 뿐 결코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그들이 일을 하면서 우선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은 '왜 이일을 하는가'의 동기인 것이다.

지금 계속된 본인의 표현은 A는 B이다 식의 '정의조'이므로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음은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또래 20대 초반인, 건전한 생각을 갖고 목에 인식표를 걸고 다니는 이들이라면 적어도 80%이상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범 공군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SR(자기혁신)운동에서 '관심제고를 통한 동기부여'라는 것이 있다. 신세대 군인이라 자칭하는 한사람으로 이 말이 왠지 절실한 부분으로 와 닿는다.

대부분 장병들이 맨처음 군대에 와서 훈련소에 입소, 가입교 기간동안 설움 아닌 설움에 제일 먼저 자문자답하는 것이 "내가 왜 이곳에 왔지. 꼭 와야만 했나."식의 푸념 섞인 물음이라 생각된다. 이제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르고 명확한 그래서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 있는 동기를 찾고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우리 참 신세대의 바램인 동시에, 그들을 이 독특한(일반 사회구조와는 다른) 조직 속에 참된 조직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척도일거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참 신세대, 아니 결코 부정적 시각만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젊은 군인들의 생각과 바램을 부족하나마 적어 보았다.

자율과 동기를 중시하고, 그래서 주어지는 일과 더불어 찾아서 하는 일에 욕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며, 그런 과정들속에서 작은 명예심을 찾는 참 신세대 장병. 그게 바로 우리들 자신이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세대임을 자부하며, 그렇지 못한 이들과까지 젊다는 이유로 신세대 칭호를 받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음을 감히 지적하고 싶다.

이제 더이상 '신세대'라는 의미가, 이 사회 기성세대에게 부정적 부류의 젊은이들과 뒤엉켜 불려지지 않았으면 싶다.

마지막으로 군이라는 조직에 설새없이 흐르는 개울물처럼 맑고 역동적인, 그래서 신선한 활력소 역할을 우리 신세대 군인들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조심스레 적어 본다.

신세대 군인! 주어지는 일 보다는 찾아서 하는 일에 적어도 프로의식을 발휘하고 푼 나를 포함한 그들.

주위를 둘러보자.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패기와, 우리의 숨은 능력을 기다리는 일들이 많으므로..... 그리고 상기하자. 우리는 이제 대학로 신세대가 아닌,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공군의 참 신세대임을. **등원**

공군 1996년 겨울호(통권 제237호)

.....
글을 기다립니다.

구분	내용	분량
보라매칼럼	의식적 차원에서 권장할 사항	20매 내외
시사, 안보	- 군 전략 및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것 - 군과 관련된 군내외 시사문제	40매 이내
군사지식	공군 및 군대 전반에 관련된 지식 및 정보	40매 이내
공군논단	시사안보를 제외한 연구분석 발표	40매 이내
마음의 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수상록	20매 내외
취미생활	타인에게 권할 만한 취미 소개	30~40 내외
장병문예	단편소설, 시 등 문학작품	35매 내외
병영이야기	병영생활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	7~8매
기타	- 공군정책 제안 - 부대동정 사진 - 공군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알림

본 도서는
 공군장병들의
 교양함양과 건전한
 읽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
 게재된 내용은 공군의
 공식전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등권

- ▶기간 : 연중
- ▶보낼곳 : - 각 부대 정훈참모
 - (320-919) 공군지 편집실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
 ※ 반명함판 사진 1매, 연락처 명기
- ▶전화 : (효)6232 (02) 506-6232
 (042) 552-6232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원고 송부시 계좌번호 기입 바람)

-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 발행일 : 1996년 12월 30일
- 인쇄처 : 인쇄/출판 금성산업
 T. (042)254-7434 F. 256-7434

최상의 준비태세 확립



공군본부

